

한라산 총서 IV
한라산의 인문지리

목차

제1장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의 인문 환경

- 1.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 환경적 특성 15
 -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취락과 주요시설의 분포적 특성 / 15
 - 취락의 분포실태와 특징 / 15
 - 도로의 개설실태와 특징 / 17
 - 주요시설의 분포실태와 특징 / 20
 -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활동의 특성 / 21
 - 산업부문별 경제활동의 특성 / 21
 - 경제활동에 따른 자연보전지구로서의 공간적 범위 / 29
 -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범위설정에 대한 시사점 / 30
- 2. 한라산과 제주도민 33
 - 제주도민들은 한라산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 33
 -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 : 한라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 33
 - ‘한라산=한라산국립공원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 / 36
 - ‘한라산=해발고도 500m이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 / 40
 - ‘한라산=제주도’로 설정하는 시점 / 44
 - 한라산과 제주도민과의 관계 / 49
 - 제주도 최고 이미지로서의 한라산 / 49
 - 일상 생활 속에서의 한라산 / 51
 - 사람들은 왜 한라산을 갈망하는가 / 54

제2장 지도와 지지로 보는 한라산

- 1. 옛 지도 속의 한라산 63
 -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개관 / 63
 - 지도에 표현된 한라산의 모습 / 63
 - 17세기 제주도 지도의 한라산 / 67
 - 18세기 제주도 지도의 한라산 / 71
 - 19세기 제주도 지도의 한라산 / 84
 - 그림 지도의 한라산 표현 / 93

2. 지지 속의 한라산 인식	100
조선시대 제주도 지지 개관	/ 100
지지에 기술된 한라산 인식	/ 102
한라산의 지명과 상징적 의미	/ 102
한라산의 지형과 지세	/ 106
한라산의 기후와 토양	/ 112
한라산의 생물	/ 114
한라산의 인문경관	/ 117

제3장 한라산지의 촌락과 교통로

1. 한라산지의 개념과 지리적 함의	125
2. 촌락의 분포와 성립 배경	129
촌락 분포의 지역차	/ 130
촌락의 성립 배경	/ 132
한라산목장의 산물, 목축 촌락	/ 132
관리들의 임시 숙소, 원 촌락	/ 135
불을 놓아 만든 화전 촌락	/ 137
제주 4·3의 상처, 복구 촌락	/ 140
새로운 출발지, 개척 촌락	/ 141
지역별 설촌 유래와 특색	/ 144
산북지역의 한라산지 촌락	/ 144
산남지역의 한라산지 촌락	/ 149
3. 촌락의 입지 요인과 입지변동	152
촌락의 입지 요인	/ 153
식수 조건	/ 153
농경지와 지형 조건	/ 154
촌락의 입지 변동	/ 155
4. 촌락의 경관 변화	157
촌락경관의 구성 요소	/ 157
촌락경관의 변화	/ 161
인구 감소에 따른 경관 변화	/ 161
지역 개발 정책에 따른 경관 변화	/ 163

5. 한라산지의 교통로	165
교통로의 시대별 변천 /	167
조선시대 교통로 /	167
일제강점기 교통로 /	169
해방이후 교통로 /	171
교통로의 입지와 특성 /	173
한라산제1횡단도로 /	173
한라산제2횡단도로 /	176
서부관광도로 /	177
동부관광도로 /	178
한라산관광도로 /	179
동부축산관광도로 /	180
남조로와 서성로 /	181
하치마키 도로 /	182
교통로의 이용 /	182

제4장 한라산의 경제

1. 한라산의 화전농업과 화전민	189
한국의 화전농업 /	189
화전농업의 개념 /	189
한국의 화전농업 /	192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 /	194
제주도의 화전농업 /	198
제주도 농촌의 농업지대 /	198
제주도 화전 조성 과정 /	201
제주도의 화전민 /	204
화전민의 유형 /	204
화전민의 발생 원인 /	207
화전민의 경제생활 /	210
화전민의 생활 : 제주의 마지막 화전민 /	212
2. 한라산의 목장과 목축업	215
조선 전기 한라산 목장 /	215
조선 후기 한라산 목장 /	216
중산간 목장 /	216
산간 목장 /	218
마을공동목장 /	219
형성 배경 /	219
경관 구조 /	222
한라산의 목축업 /	228

방목 /	228
이목 /	230
낙인 /	232
거세 /	233
방애 /	234
테우리 /	237

3. 한라산의 임업	239
한라산의 산림업 /	239
한라산 임정사 /	239
산림 개황 /	241
조림 사업 /	242
채종원 /	242
한라산의 표고버섯 /	243
한라산의 양봉 /	246
한라산의 숲 굽기 /	251

제5장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의 활용

1. 교육자원으로서의 활용	259
2.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264

참고문헌	271
사진 목차	277
그림 목차	280
표 목차	281
색인	282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의 인문 환경적 특성

그 주변지역의 취락과 주요시설의 분포적 특성

취락의 분포실태와 특징

제주도 내에서 가장 해발고도(표고)가 높은 지점에 입지해 있는 자연취락은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火田洞)으로, 대략 560~570m의 표고를 보인다. 그리고 행정구역 편제상 가장 하위단위인 리(里)단위로 보면, 해발 500~520m 지점에 입지해 있는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廣坪里)다. 두 취락은 행정구역이나 취락의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직선거리가 2km밖에 안 될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그림 1-1〉). 그리고 규모가 다른 두 개의 취락은 한라산과 국립공원으로부터는 제일 가까운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사실에 토대를 둔다면, 한라산의 산록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발 600m 이상의 산간지역에는 자연발생적인 취락의 형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가 국토개발연구원에 발주한 조사보고서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에 의하면, 중산간지역(해발 200~600m 사이)에는 크고 작은 32개의 취락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2개의 취락은 대부분 10~20호로 구성된 자연취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취락이 차지하는 면적은 〈표 1-1〉에서 보듯이 총 960ha다. 이들 취락을 행정구역별로 분포실태를 보면 제주시 7개, 서귀포시 3개, 북제주군 17개, 남제주군 5개로 나타난다. 나아가 북제주군의 취락은 애월읍 7개, 한림읍 2개, 조천읍 4개, 구좌읍 4개로 구성되며, 남제주군은 5개 모두 안덕면에 속해 있는 취락이다. 이처럼 한라산 주변지역이라는 전제를 배경에 두고 중산간지역의 취락분포를 검토해 보면, 산남지역(18ha, 18.7%)보다는 산북지역(78ha, 81.3%)에 더 많은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다시 산북지역 내에서는 북제주군의 동부지역(16ha)보다 서부지역(43ha)에 상대적으로 많은 취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표고별로 취락지구의 면적분포를 보면, 전체 960ha의 취락지구 면적 중 해발 200~300m 사이에 71ha, 300~400m 사이에 20ha, 400~500m 사이에 2ha, 그리고 500~600m 사이는 3ha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유추할 때, 현재 한라산 주변지역에서 취락입지의 한계선은 대략 해발 400m로 설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해발 400m 이상 지역이 아직까지는 제주도민들의 손길이 덜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파괴정도나 오염도도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로의 개설실태와 특징

제주도 내의 교통은 오로지 도로교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12월 현재, 제주도 내의 도로 총 연장은 2,619.1km로 82%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다. 도로 종류별로 검토해 보면, 일반국도 4개 노선 426.2km(2000년도 시점에서는 서부관광도로가 제외됨),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 64.4km, 지방도 8개 노선 177.3km, 시·군도 1,918개 노선 1,951.2km이다.

제주도내 도로의 점유율은 한라산 방향으로 해발고도를 더해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 약 20여 년 사이에 행해진 중산간 지역 내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가 많이 개설되었거나 혹은 기존도로가 확장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듯이 한라산 등반로 중 특정구간을 케이블화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지정과 관련하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라산 주변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는 일반국도인 5·16도로(제1횡단도로라고도 함. 11호선 국도. 제주시 관덕정 앞~서귀포시 초원빌딩 앞까지 약 41km 구간)와 1100도로(제2횡단도로라고도 함. 99호선 국도. 제주시 오라 로터리~서귀포시 중문동 일주도로변까지 약 35.1km 구간)가 있다. 이 두 도로는 모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시발지와 종착지로 하고 있으며, 두 개의 도로가 모두 일부구간에서 한라산 국립공원을 통과하고 있다. 특히 제1횡단도로는 1932년에 한라산 기슭을 가로지르며 서귀포까지 임업용 도로로 개설한 것이 근간이 되었다. 이 도로는 2~3년 전에 도로의 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환경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 주춤해 있는 상황이다. 서부관광도로(95호선 국도. 제주시 용담동~대정읍 보성리 약 29km 구간)는 2002년 12월에 도로 확장 공사(왕복 4차선)가 마무리되면서 국도로 승격되었는데,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약 580m 부근까지 접근하여 개설되어 있다. 서부관광도로는 최초 중산간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한 1967년경부터 확장, 보수공사가 시작되었는데, 1990년에 이르러 첫 단계인 29km 전 구간이 완전 포장되었다.

서부관광도로와 함께 자웅을 겨루듯 그 역할을 담당해온 동부관광도로(9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주시 건입동~표선면 표선리 약 35.4km 구간)는 2005년 7월 현재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국도로 승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사진 1-1>. 동부관광도로는 서부관광도로와 함께 공로(公路)로 사용된 제주도 도로의 효시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도로 역시 1967년부터 보수공사가 시작되어 1989년에 이르러서야 개통될 정도로 제주도민들의 애환이 깃든 도로다. 이 동부관광도로의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360m 부근에 이른다.

한라산 주변지역의 지방도 중에서도 조천과 남원을 잇는 남조로(1118호선. 30.3km), 한라산 북서사면을 연결하는 제1산록도로(1117호선. 20.8km), 한라산 남서사면을 연결하는 제2산록도로(1115호선. 28.5km)는 중산간 지역의 매력적인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도로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한라산 남동사면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인 서성로(1119호선. 서귀포시 상효동~성산읍 고성리 약 34.6km 구간)가 최근에 개통되어 남동사면 지역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가 되고 있다.

이외에 한라산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자림로(1112호선. 27.3km)다. 비자림로는 제1횡단도로(개월오름과 물장오리 사이의 해발 620m 지점)에서 구좌읍 평대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역새와 삼나무 숲이 우거지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빼어나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한라산 주변지역에는 시·군도도 많이 개통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한라산 정상부에서 가장 가깝게 개통되어 있는 도로는 서귀포시 지역 내의 1100도로에서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영실 산장까지 연결되는 시도(市道)이다. 이 시도는 1100도로의 해발 920m 지점에서 분기되어 영실 산장이 위치하는 해발 1250m 지점까지 약 4.75km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사진 1-2>. 이외에 취락의 한계선으로 산정할 수 있는 해발 400m 이상 지역의 시·군도는 2시 2군 지역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제주시와 북서지역 방면(애월읍 및 한림읍)에서 뻗어 나온 도로들이 유달리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한 생활영역의 확대과정, 즉 경제활동의 영향력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 지적할 수 있다.

주요시설의 분포실태와 특징

주요시설의 분포실태는 다음에 이어지는 산업부문별 경제활동의 특성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지만,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주로 산업시설의 속성과 해발고도별 분포에 따른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1-2〉는 중산간지역 표고별 주요시설의 분포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216개의 시설 중 각각 해발 200~300m 사이에 114개(전체 52.8%), 300~400m 사이에 61개(28.2%), 400~500m 사이에 29개(13.4%), 500~600m 사이에 12개(5.6%)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조사는 1997년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표고별로 다소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시설별로 점검해 보면, 산업시설이 96개로 단연 앞서고 있으며, 다음이 서비스시설로 69개, 문화·교육시설은 36개로 3위에 랭크된다. 결국 전체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93%를 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표 1-2〉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즉, 해발 고도를 더해 갈수록 여러 시설들의 입지가 떨어지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취약형성이 어려운 지역, 즉 해발 400m 이상 지역에도 산업시설과 서비스시설 및 문화·교육시설들이 점진적으로 입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은 차후 이들 시설을 배경으로 하여 관련업종의 시설들이 점유하는 공간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시설은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왕래를 전제로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표 1-2〉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지역적으로 볼 때 여러 시설들이 산남지역에 비하여 산북지역에 더 많이 치우쳐 입지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시의 경우는 문화·교육시설이 36개 중 17개(47%)로 많은 편이며, 북제주군의 경우는 산업시설 96개 중 48개(50%)와 서비스시설 69개 중 37개(54%), 행정기관 8개 중 5개(63%), 의료·후생시설 7개 중 4개(57%)로 중산간 지역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활동의 특성

산업부문별 경제활동의 특성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 내의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크게 농업, 목축업, 임업 및 서비스업(관광업)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농업은 제주도의 2대 산업으로 구분될 정도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의 핵심은 감귤생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 중반 이후부터 한라산 주변지역이라 할 수 있는 중산간 지역으로 감귤 과수원을 조성하는 농가가 급속히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2003년 12월 현재, 제주도 내의 총 농가 수는 37,893호인데, 이 중 감귤생산에 관여하는 농가는 33,957호로 89.6%나 된다. 이와 같이, 현재 제주도 내에서의 감귤은 모든 생산농가가 수익성이 높고 낮음을 떠나 도내농업의 기본이라는 사고가 만연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최근 4년간에 걸쳐 감귤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였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감귤정책 부재로 인해 감귤 값의 폭락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최근의 시장동향에 따른 생산농가와 지방정부의 대응시점에서 보면, 당분간 과수원 용지로 중산간지역이 잠식되는 현상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지만, 장차 감귤 소비량의 증가여부에 따라 과수원 용지의 확산도 방

심할 수는 없다.

2003년도 감귤재배 면적은 24,560ha이며 이를 시·군별로 보면 제주시 2,973ha(전체면적의 12.1%), 서귀포시 5,312ha(21.6%), 북제주군 6,148ha(25.1%), 남제주군 10,127ha(41.2%)다. 1:25,000 지형도 상에서 과수원의 분포실태를 살펴보면,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시는 280~300m 지점, 서귀포시는 300~400m 지점, 북제주군은 215~225m 지점, 그리고 남제주군은 185~240m 지점까지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귤 재배지로서 중산간지역의 활용은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기와 동기에 기온차가 커서 감귤생육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됨은 물론이며 농가의 유지관리도 힘들기 때문이다.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중산간 지역에는 감귤보다는 오히려 메밀, 도라지, 감자, 더덕 등의 재배지가 증가하는 일로에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반영된 결과다. 나아가 이들 작물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시장동향과 연관되어 일시적으로 대규모 면적에서 재배하는 경향이 강한 작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면 수확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문제는 중산간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초지나 임야(나대지) 등을 개간하여 아주 짧은 기간만 활용한 후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는 점이다. 중산간 지역의 토양은 화산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비옥도가 매우 떨어지고 토양층도 낮으며 또한 토양모재 사이에 찰기가 없다<사진 1-3>. 따라서 어떤 작물을 재배해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사용한 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바람이나 유수에 의해 토양모재가 주변부로 비산(飛散)되고 유실되어 여러 가지 악영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어서 목축업에 대한 실태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의 목축업의 대상을 사육두수가 많은 순으로 열거하면, 닭, 소(육우 및 젖소), 돼지, 개, 꿀벌, 오리, 산양 등이다. 아울러 현재는 사육두수가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제주도'하면 고려시대 이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주마(조랑말)의 사육을 꼽을 수 있다<사진 1-4>.

이들 가축들을 기르기 위한 기업형 목장과 집단시설들은 해발 150~400m 사이의 중산간지역에 대거 입지해 있다. 특히 2001년 강만익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이르러 소나 말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10소장과 산마장도 한라산을 축으로 해발 150~450m 사이의 지역을 환상(環狀)의 형태로 연결하여 사용해 왔다고 한다. 이들 목장지는 1945년 이후 각 마을별로 불하되어 사용돼 오다가 1980년대 접어들면서 소와 말 사육이 급격히 사양화되는 가운데 활용도가 떨어졌다. 그 이후에 일부는 기업목장 용지로, 또 일부는 골프장 용지나 기타 용지 등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넓은 면적의 목장지와 목초지가 남아 있어 중산간 지역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도 이들 목장지나 목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개발업자들의 절대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조사시점에서 중산간 지역의 기업형 목장이나 비교적 큰 축산단지의 사례를 들면, 이시돌목장(한림읍 금악리, 해발 350m, 조천읍 선흘리, 해발 215~230m), 광령양돈단지(애월읍 광령리, 해발 410~440m), 제동목장(표선면 가시리, 해발 355m), 제남목장(서귀포시 용흥동, 해발 295~310m), 송당목장(구좌읍 송당리, 해발 260~270m) 등을 들 수 있다.

한라산 주변지역의 임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해발 400m 이상의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표고버섯의 생산에 주목할 수 있다<그림 1-2>.

표고버섯의 생산에는 기본적으로 서늘한 기후와 풍부한 목재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해발 400m 이상의 한라산 주변지역은 표고버섯 생산의 최적지가 되고 있다.

표고버섯의 생육은 약 22~28. 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삼림 속이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인공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활엽수종 중 상수리나무나 졸참나무(이상 1급목), 혹은 밤나무나 떡갈나무(이상 2급목) 등을 약 1m 크기로 자른 후 4~5개월 동안 자연건조 시키고, 드릴로 뚫은 구멍 속에 성숙한 종균을 넣어서 약 2년 동안 재배해야만 수확이 가능하다. 문제는 종균을 심을 원목이 주로 20~25년 정도의 한창 성장 중에 있는 나무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인위적인 삼림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면적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2003년 12월 현재 총면적 66,154ha(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의 합계) 중에서 제주시 10,134ha, 서귀포시 13,339ha, 북제주군 25,193ha, 남제주군 17,488ha를 차지하고 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2개의 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산림면적을 점유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공간적 범위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최근 10여 년간에 걸친 산림면적의 변화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감소에 머물고 있다. 이것도 산불 등에 의한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다면, 그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을 비롯한 중산간 지역에서의 벌채행위가 매우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산림의 보존도 아주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3년도 표고버섯의 총 생산량은 250,227kg이며, 시·군별로는 제주시가 18,350kg, 서귀포시가 96,000kg, 북제주군이 60,380kg, 남제주군이 75,497kg을 생산하고 있다. 1 : 25,000 지형도 상에서 볼 때 표고버섯의 재배지는 최하지점이 해발 약 420m, 최고지점은 약 1,020m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해발 700~800m 사이에 밀집·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도는 2002년 12월 16일자로 유네스코로부터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서의 표고버섯 생산이나 의도적인 목재생산 활동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과는 반대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주로 관광업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서비스업 부문이 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는 점이다.

최근에 이르러 중산간 지역을 비롯한 한라산 주변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광활동은 한라산 등반과 레저형 스포츠 중에서 오름 트레킹(Orum trekking)과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 등이다. 특히 오름 트레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상품화되면서 급증하였고, 현재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는 360여 개의 오름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한라산 등반과 오름 트레킹은 주로 자연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관광시설이나 부대시설은 필요하지 않지만, 관광객들의 지나친 등반활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등산로가 훼손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는 관계로 필요 이상의 등산로가 개설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한라산 정상등반에 있어 코스를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휴식년제를 취하는 배경도 그 동안 등산객의 과다수용으로 인해 취해진 조치라 할 수 있다.

등산이나 오름 트레킹 외에 관광시설이 필요한 업종이 골프장, 승마장, 일부 숙박업 등이다. 제주도(2004년)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제주도 내의 골프장은 운영 중인 곳이 10개소,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이 12개소, 절차이행 중에 있는 곳이 9개소, 그리고 예정자가 지정된 곳이 6개소로 확인된다. 시·군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7개소, 서귀포시가 7개소, 북제주군이 15개소(이 중 동부지역 7개소, 서부지역 8개소), 남제주군이 8개소(이 중 동부지역 4개소, 서부지역 4개소)로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을 포함하여 사업승인, 절차이행 또는 예정자가 지

정된 곳을 모두 합하면 37곳에 달한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몇몇 골프장의 사례를 위치하는 지점(해발고도)과 연계시켜 검토해 보면, 오라CC(1979년 등록, 회원 36홀) 270~380m, 제주CC(1986년 등록, 회원 19홀) 550~600m, 파라다이스GC(1995년 등록, 회원 19홀, 대중 9홀) 380~430m, 레이크힐스CC(2002년 등록, 회원 27홀) 420~500m 등이다. 이처럼 골프장은 스포츠의 특성상 해발 2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 주로 건설되고 있으며, 제주CC와 같이 해발 600m 지점의 높은 지대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해발 600m 이상이 되면, 한라산 주변 지역을 배경으로 한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바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건설될 골프장들도 해발 300m 이상의 광활한 초지를 잠식하는 형태로 건설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심의 과정이나 승인절차 등이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제주도 내의 관광승마장은 2003년 12월 현재 모두 24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22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지역별로 분포실태를 보면, 제주시가 2개소(노형동 및 봉개동), 서귀포시가 2개소(대포동 및 상예동), 북제주군이 7개소(교래리 3, 송당리 2, 봉성리 1, 어음리 1개소), 그리고 남제주군이 13개소(성읍리 8, 수산리 2, 동광리 1, 서광리 1, 삼달리 1개소)다. 이들 관광승마장도 주로 중산간 지역에 입지하여 녹색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입지점의 실태를 사례로 살펴보면, 어승생승마장(제주시 노형동)이 해발 530m로 가장 높고, 명도암관광승마장(제주시 봉개동) 320m, 에덴승마장(서귀포시 대포동) 295m, 초원승마장(서귀포시 상예동) 270~280m, 탐라관광승마장(북제주군 교래리) 340m, 서진관광승마장(북제주군 교래리) 440m, 알프스승마장(남제주군 성읍리) 140m 등으로 확인된다.

이들 관광승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마필 수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1,466두이고, 승마장으로 사용되는 용지는 총 229ha로 승마장 당 평균용지 면적은 9.5ha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대시설은 마사(馬舍)가 57동, 관리사(管理舍)가 29동이며, 관광승마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총 131명으로 집계된다.

중산간 지역 내에 위치하는 숙박시설은 휴양펜션, 콘도미니엄, 민박, 리조트, 유스호스텔, 수련장, 야영장(캠핑장) 등이 포함된다. 최근 휴양펜션과 콘도형 민박시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많은 수가 해안지역(해발 200m 이하)의 일주도로 변이나 또는 바다가 바로 인접하는 해안선(해안도로변)을 따라 입지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는 오름 주변이나 도로변을 따라 입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들 숙박시설은 개별적으로 정확한 숫자와 그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외 관광객들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체험형 관광 혹은 생태관광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들도 점차 중산간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중산간도로(16호선 국도)나 중산간지역의 여러 지방도 및 시·군도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황토방, ○○별장, ○○○빌리지, ○○○콘도 등의 명칭을 사용한 숙박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또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점진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하는 만큼, 중산간 지역에는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경제활동에 따른 자연보전지구로서의 공간적 범위

앞에서 부문별 경제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리한 것처럼, 현시점에서 보면 중산간 지역이나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은 이미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전제로 한 간섭이 서서히 가

해지는 일로에 있다. 결국, 하루속히 제주도 혹은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보전권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 안에 잔존해 있는 지형, 지질, 동·식물 등 자연 생태적인 희귀성과 특이성을 중심축으로 보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설정된 범위 내에 제주도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축적해온 생활문화의 흔적(유적지)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라산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중산간 지역 내의 경제활동은 부문별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크게 구분하면 농·목축업, 임업 및 관광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나마 이와 연관된 경제활동이 아직까지는 점적(點的)인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가 더 이상 면적(面的)인 상태의 경제활동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간섭이라는 측면과 연관지어 볼 때, 제주도민들의 한라산 주변지역에 대한 간섭정도는 현시점에서는 매우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라산을 중심축에 놓고 볼 때, 해발고도를 더해 갈수록 제주주민들의 간섭정도는 미미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배경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 지방정부가 「자연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제20~23조)」 등에 의거하여 관리·보존해 온 역량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장치가 두말할 나위 없이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경제활동의 실태와 관련하여 보전의 당위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당연히 공간적인 범위가 문제시된다. 본고에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은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지역이다. 다시 말해 해발 400m 이상의 지역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취락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고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나타내는 토지이용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에 따르면, 해발 400m 이상의 지역은 제주도 전체면적 1,828.3km² 중 442.6km²로 24.2%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는 제주도 전체면적의 1/4에 가까운 지역이 보전지역(자연유산으로서의 지정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지역(전체면적 442.6km²)은 토지이용 면(1997년)에서 볼 때 산림지 308.8km²(69.8%), 초지 82.4km²(18.6%), 잡목지 41.9km²(9.5%) 및 시설용지 3.6km²(0.8%) 순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취지와도 부합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범위 설정에 대한 시사점

세계자연유산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를 예견할 때, 그 공간적 범위는 어떠한 가정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본고에서 논의해 온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라산을 축으로 한 주변지역이 섬(島嶼)이라는 도서적 특성과 화산지역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의 독특성과 희귀성이 존재하는 비교우위의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타원형의 섬 지역인 제주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해발고도가 유지되면서 한라산 정상부(1,950m)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순상(楕狀) 형태의 지형배치가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지형

배치는 해발고도에 따른 수목경관(樹木景觀)의 다양성과 섬 생태계의 중요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사진 1-5>.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은 앞에서 지적한 도서적 특성과 화산 지형적 특성과도 결부되어, 천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제주도나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을 지구적 차원의 자연유산으로 지정해야 하는 배경인 동시에 당위성이라 역설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소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제주도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일궈온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신적·생활 문화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데 논리적 모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연유산지역으로서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역으로, 제주도민들이 쌓아온 생활문화의 특성이란 관점에서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오히려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보전지역으로서의 공간적 범위는 본고에서 논의한 바대로, 개략적으로 제주도 내의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더욱 구체화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는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축소하거나 또는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전과 관리를 위한 한라산 주변지역을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지역으로 설정하여 제시해 보았다. 이 설정근거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에 의한 관여 정도이다. 따라서 해발 400m 이상의 지역은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위적인 토지이용이 행해지고 있고, 생태적으로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유산으로서의 지정과 관련했을 때도 토지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편이성이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를 해발 400m 이상의 지역으로 설정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범위를 더욱 제한하거나 혹은 더욱 확대하는 형태로서 재설정하는 방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그 때의 설정근거도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희귀성과 가치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지도 상에서 확인할 때, 제주도는 21C의 새로운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 대륙과 일본열도, 태평양 상의 도서지역(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그리고 아시아 대륙과 필리핀제도, 뉴기니섬 및 오세아니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발전을 위해 거듭 태어난 제주도는, 지구촌 여러 지역의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시켜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배경은 제주도나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라산과 제주도민

제주도민들은 한라산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제주도민들은 평소 한라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주도민들은 한라산이 제주섬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매일같이 부모나 자식얼굴을 대하듯 쳐다볼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고 있다<사진 1-6>. 그러나 한라산을 대할 때의 도민들의 태도나 상념은 항상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아침에 일어나 한라산을 바라보며, 오늘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것 같다고 나름대로 날씨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라산이 선명하게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전제로, 그 날의 운수를 점치는 사람도 있다. 또한, 계절 따라 변하는 한라산의 자태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안타까워하거나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미터(barometer)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는 근원지로서, 꿈과 이상향을 키우는 대상으로서, 혹은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정신적 도량을 넓히는 수련의 장으로도 끊임없이 제공돼 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문화의 한 맥(脈)을 이어오는 데에도 중요한 근원적 요소가 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이 노래하고 시를 쓰고 소설과 수필을 쓰는 데 매우 편리하고 절실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아 항시 묵묵한 조연자의 역할과 더불어 때로는 선망(羨望)과 흠모(欽慕)의 대상으로서, 때로는 숭상(崇尙)과 경외(敬畏)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한라산의 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라산과 제주도민들의 생활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제주도민들의 한라산에 대한 정신·문화적 측면에 근간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라산의 문화적 특성이라 할 때 주된 관심사를 어디다 둘 것인가는 분명히 필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덧붙여 두고자 한다.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 : 한라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한라산은 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라산체(漢拏山體)를 어느 지점(범위)까지로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확실한 정답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명쾌하게 정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일반인들은 한라산이라 하면 가장 먼저 정상부에 위치한 화구호(火口湖)인 백록담(白鹿潭)을 연상하게 된다. 그리고 백록담은 마치 한라산의 최고봉인 것처럼 착각까지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백록담은 한라산체의 일부분이지만 정상부의 어느 한 지점에 오르기 전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더욱이 한라산을 오르지 않은 채 해안지역에서 조망할 때는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백록담은 결코 한라산의 최고봉도 아니다. 그렇지만, 한라산을 말하면 모두가 백록담을 우선해서 머리 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은 비록 백록담이 한라산 최고봉은 아닐지라도, 최고봉 아래의 산정호수(山頂湖水)로서 항상 신비스런 자태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백록담이 신비스런 면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백록담과 주변 정상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위의 <표 1-4>는 백록담 정상부와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한 지리적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앞으로 한라산을 아끼고 보전하는 입장에서는, 표에 제시한 간단한 지리적 정보 정도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주도민들은 흔히 “한라산은 제주도이고 제주도는 곧 한라산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어찌 보면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 표현 자체는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에 대하여 도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한라산=제주도’, ‘제주도=한라산’의 지론을 포함하여 세 가지 시점에서 구분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리하는 세 시점의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은 나름대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고,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긍정과 부정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에 대한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라산을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한라산의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갈 수 있는 호기(好機)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라산=한라산국립공원 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그림 1-3>- A)

한라산(체)이 어느 지점까지를 일컫는 것인가를 판가름할 때, 한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는 경계선은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간적인 범주라 할 수 있다. 언뜻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고 쉽게 연상해 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한라산이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건설부 고시)된 것은 1970년 3월의 일이며, 그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1966년 10월부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되고 있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총면적은 153.386km²(15,338.6ha)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8.2%(이 중 사유지는 3.4km² [340ha])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2003년 1월 16일자 환경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부터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도 전체 지정구역인 83,094ha의 면적 중에서 핵심지역(Core Area)은 15,158ha를 보이고 있는데, 이 범위는 거의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셈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시·군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58.784km²(5,878.4ha), 서귀포시가 36.575km²(3,657.5ha), 북제주군이 35.558km²(3,555.8ha), 남제주군이 22.469km²(2,246.9ha)의 순서로 넓게 점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군 지역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의 일부를 끼고 있는 읍·면지역은 북제주군의 애월읍과 조천읍, 그리고 남제주군의 남원읍이다. 결국 한라산국립공원을 배후지로 삼고 있는 지역은 2개 시(市)와 3개 읍(邑) 지역으로 압축된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단순한 행정 경계선에 불과할 뿐이며,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의 차이나 경관적 가치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발고도로 살펴보면, 제주시 쪽에서는 해발 약 600~850m, 서귀포시 쪽에서는 900~1,000m, 애월읍 쪽에서는 750~1,000m, 조천읍 쪽에서는 600~700m, 그리고 남원읍 쪽에서는 650~850m 사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를 3개의 지역(해안지역, 중산간 지역, 산악지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적용시켜 볼 때 산악지역(600m 이상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한라산국립공원 안에는 총 46개의 오름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17개(큰드레왓, 어승생악,

삼각봉, 왕관릉, 흙붉은오름, 물장오리 등)로 가장 많고, 애월읍(북제주군)에 14개(붉은오름, 사제비동산, 만세동산, 삼형제오름, 이스렁오름 등), 서귀포시에 8개(오백나한, 불래오름, 방애오름 등), 남원읍(남제주군)에 6개(동수악, 성널오름, 사라오름 등), 조천읍(북제주군)에 1개(어후오름) 순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 한라산 정상부나 백록담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오름은 제주시 쪽의 장구목(오라 2동), 왕관릉(오등동), 삼각봉(오라 2동)과 서귀포시 쪽의 옷방애오름(동홍동), 그리고 애월읍 쪽의 윗세(웃세)오름(붉은오름, 광령리)이다<그림 1-4><사진 1-7>.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입지하고 있는 문화재로는 지정문화재로서 ①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1966년 10월 지정, 1993년 8월 변경), ② 존자암지(제주도기념물 제43호, 1995년 지정), ③ 존자암지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7호, 고려·조선시대, 부도[浮屠], 2000년 지정)이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로서 ④ 하원동절터추정지(조선시대, 존자암지 남서쪽 일대), ⑤ 백록담 마애명(조선시대 목사인 이윤성(李潤成), 조위진(趙威鎭), 심낙수(沈樂洙), 이양정(李養鼎), 조정철(趙貞喆), 임관주(任觀周), 조영순(趙榮順), 조관빈(趙觀彬), 남익상(南益祥) 등이 남긴 것, 백록담 동쪽 암반과 동쪽 꼭대기 암벽), ⑥ 관음사(아라 1동, 근대, 1908년 안봉려관 스님 창건), ⑦ 관음사 군(軍)주둔지 옛터(4·3유적, 아라동, 토벌대 2연대 2대대 병력 주둔) 등이 있다. 더불어 한라산국립공원 안에는 관음사 외에도 천왕사, 석굴암, 존자암 등의 사찰이 있어서, 사시사철 불자(佛者)들이 줄을 잇고 있다<사진 1-8, 9, 10>.

한라산체의 크기나 한라산의 영역(공간적인 범위)을 한라산국립공원 내로만 압축해서 고려하는 시점은 분명히 한라산의 영역을 가장 작고 좁게 설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한편, 한라산을 인식하는 사고(思考)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시각은 한라산이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제주도에서도 가장 높고 신성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랫동안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자연 생태계가 온전하게 보전돼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라산=한라산국립공원’으로 보는 시각은 한라산이 항상 푸르고 깨끗하며, 제주도의 자연을 최고로 대표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점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고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라산=해발고도 500m 이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그림 1-3>- B)

한라산을 해발고도 500m 이상 지역으로 설정하여 인식하는 시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 가지 의문점이라면, 왜 하필 해발 500m로 설정하는가에 대한 점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단초를 제공한 연구자는 현원학(2004)이다. 필자도 해발 500m까지를 한라산체로 보는 시각에는 충분히 동감할 수 있다. 현원학은 한라산(체)을 정의함에 있어서 경계선을 해발고도 500m 지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해발 500m 지점이 조선시대부터 조성된 목마장(牧馬場) 용жат성(상жат성)을 쌓았던 지점이라는 사실과 오늘날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경계지점이라는 배경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지형적으로 볼 때, 한라산체가 해발 500m까지만 이어지다가 갑자기 끊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해발 500m라고 하는 지점은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인위적인 설정지표에 의하여 오랫동안 제주도민들의 간섭을 덜 받은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장(場)으로서의 기능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역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억제돼 온 배경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삼림도 비교적 탁월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도 아주 양호한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1-5〉 참조).

이에 해발 500m 지점까지를 한라산으로 보고자 하는 시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제로 판단하는 사고라 할 수 있다. 하나는 평소 한라산을 제주도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大山)으로 인식하면서 한라산체가 차지하는 영역이나 범위도 제주 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여기는 사고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라산이 지니는 품위나 품격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자 하는 사고이다. 이 시각은 한라산이 이미 과거로부터 선민들이 신성시해 온 영산(靈山)임을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모든 마을을 관장하는 한라산신(漢擎山神)이 거주하는 특수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제주도 조사에 따르면, 해발 500m 지점 이상 지역의 면적은 총 325.5km²(32,550ha)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제주도 전체면적(1,828.3km²)의 17.8%에 해당되며, 또한 앞서 제시한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인 153.386km²(15,338.6ha)의 2.1배에 해당된다. 바로 지적하자면, 해발 500m지점까지를 한라산으로 설정하는 관점에서는 한라산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고 영역에서도 2배 이상으로 확대된 배경을 지니게 된다. 한라산의 공간적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동서남북 방향 모두 해당되지만, 유달리 남북사면 쪽보다는 동서사면 쪽이 훨씬 넓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제주도의 지형이 고구마처럼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배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의 화산활동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표 1-5〉를 통하여 해발 500m 지점 이상의 공간적인 영역에 대한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산림지가 262.9km²(8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초지가 33.6km²(10.3%), 잡목지가 24.5km²(7.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지나 밭, 과수원 및 시설용지 등 경제활동을 위한 인위적인 활용도는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발 500m 지점까지를 한라산으로 설정하는 시점도 제주도 청정자연의 이미지를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해발 500m 이상의 지역에 나타나는 취락(마을)은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솔도마을, 해발 약 660m)과 안덕면 광평리 본동(해발 510m) 정도로 압축된다. 또한, 이 지역 안에서 눈에 띄는 인공 시설물은 도처에 자리잡고 있는 표고버섯 재배사(宿舎 및 管理舎)와 목장·축사(용강목장 : 해발 500m, 금산목장 : 해발 570m, 호명목장 : 해발 560m)를 비롯하여 서귀포시 공설공원묘지(해발 500~525m), 남국선원(사찰, 해발 520m), 레이크힐스 골프클럽(일부, 해발 520m 전후), 서귀포시 쓰레기위생 매립장(해발 520~550m), 제주시 공동묘지(해발 530~720m), 한밭저수지(해발 600m), 제주컨트리클럽(해발 510~590m), 제주농업시험장(2개소 : 해발 520m 지점 및 690m 지점), 탐라교육원(해발 500m) 등이 확인된다.

더불어 해발 500m 이상의 지역 내에는 다양한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제주도 제주마(종마장 포함, 제주시 노형동, 천연기념물 제347호, 해발 570~680m),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59호, 해발 585~595m), 대포동 왕벚나무 자생지(비지정, 대포동 산 1-1번지 일대, 해발 800~865m), 색달동 상жат성(비지정, 해발 545~565m), 대포동~하원동 상жат성(비지정, 해발 600~650m), 법정사향일향쟁지(비지정, 도순동 산 1번지 하천변 일대, 해발 665 ~700m), 중문동 녹하지악 4·3성(비지정, 중문동 산 5번

지 일대, 해발 520~530m), 왕이메 전설지(비지정, 안덕면 광평리, 산 79번지, 해발 612m) 조 근대비악 전설지(비지정, 광평리 산 59번지, 해발 541m), 물영아리 전설지(비지정, 남원읍 수 망리 산 189번지, 해발 508m), 신레리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256호, 해발 525~560m) 등에 주목할 수 있다<사진 1-11, 12>. 이들 문화재의 특성은 인문적인 요소보다는 주로 자연적인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해발 500m 이상의 지역을 한라산으로 설정하는 시점은 제주섬에서도 한라산의 존재가 상당히 크고 넓다는 배경을 전제로, 많은 제주도민들이 한라산 자락의 특정 장소에 삶의 보금자리를 틀어 생활한다는 의식이 극대화된 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라산=제주도’로 설정하는 시점(<그림 1-3>- C)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라산=제주도’, ‘제주도=한라산’이란 등식의 사고는 오래 전부터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사고는 분명히 지형적·지질적인 정보나 지식을 전제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한라산체가 해안지역까지 뻗어 있다고 보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일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배 또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 섬을 떠나 물으로 갈 때, 제주 섬 자체가 시야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도민들은 한라산 자락이 해안까지 길게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되고, 결국은 한라산 자체가 제주 섬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터득하곤 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그림 1-5>와 같이, 학교교육에서조차도 제주도에 대한 지형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주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지역신문사의 하나인 한라일보사에서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초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한라대맥(漢拏大脈)을 찾아서’(“한라산 학술 대탐사”, 제2부)란 제하(題下)의 대하기획물을 연재한 사실이 있다. 이 ‘한라대맥을 찾아서’란 기획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도의 최장축선(最長軸線)에 해당하는 동서지역 내의 오름군, 즉 우도와 성산포 방향에서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내를 가로질러 고산 차귀도 앞 해안에 이르기까지 110여 개의 오름들을 탐사함으로써, 그것들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관련 정보들을 발굴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었다. 말하자면, 오름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발굴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라일보사의 대하기획물의 시도에도 ‘한라산=제주도’란 등식이 내면에 깔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라산 자락(사면)을 마치 성산포 방향에서 고산 차귀도 앞까지 동서로 길게 이어진 축(軸)으로 보고 접근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한라산=제주도’란 시점에서는 한라산이 제주도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대변하며 삶에 필요한 모든 부문의 상징체(象徵體)로서 부각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라산이 곧 제주도라면, 제주도민들에게는 한라산이 정신적 지주임은 물론이고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는 근원적

존재로서 보다 확대된 사고가 자리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이 제주도라는 시점은 제주도라는 섬을 좀 더 색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제주도는 크게 해안지역(해발 200m 이하 지역), 중산간 지역(해발 200~600m) 및 산간지역(해발 600m 이상 지역)으로 3분할 수 있는데, 이 세 지역이 제주도민들에게 주는 자연적 혜택을 분명하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해안지역은 도민들의 주거지, 도로, 사회시설과 농경지 등 다양한 생활용지를 제공하는 가장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간적 영역이다. 말하자면, 해안지역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활동의 중심장(中心場)이다.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역의 면적은 993.3km²(99,330ha)로서 제주도의 총면적인 1,828.3km²의 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사진 1-13>. <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안지역에서는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의 근본을 제공하는 밭(289.9km²)과 과수원(262.5km²) 면적이 높게 나타난다. 취락지는 41.4km²(4,140ha)에 불과하여 다른 용도의 면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지만, 제주도 전체 취락지 면적인 42.4km²(4,240ha)에 비교해 보자면 97.6%나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발 200~600m 지역인 중산간 지역은 총면적이 589.0km²로 확인되며, 이 중 초지(268.4km²), 산림지(161.7km²), 잡목지(85.7km²)가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7>. 이 점은 중산간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사진 1-14>. 즉, 초지가 넓게 점유한다는 사실은 과거로부터 목축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산림지나 잡목지의 면적이 넓은 배경도 주로 자연에 의존하던 1960~1970년대를 돌이켜보면, 땔감(신탄)을 비롯하여 집안에 여러 용도로 필요한 목재를 제공해 왔음은 물론, 다양한 임산물 생산에도 활용되었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중산간 지역은 해안지역과는 다른 차원의 중요한 생산기지로써, 제주도민들의 운택한 경제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담당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해발 600m 이상인 산간지역은 제주도 총면적의 13.5%에 해당하는 246km²(24,600ha)를 차지하고 있다. 산간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은 산림지(218.8km²), 잡목지(14.1km²), 초지(11.4km²)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중에서도 산림지의 면적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이 산간지역의 기능은 순환의 원리에 의해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향시 깨끗한 산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수종으로 구성된 식생이 보전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자연공원으로서 충분히 낭만과 희열을 느끼도록 한다<사진 1-15>.

그렇기에 산간지역에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경제활동을 금지해왔고, 또한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상업성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인 지역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산간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주로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한라산=제주도'로 설정하는 시점은 한라산체 혹은 한라산 자락 전체를 제주도민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거대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대한 생활공간'인 한라산 자락을 해발고도를 토대로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면, 세 개의 지역은 서로 역할과 기능이 다르면서도 한편으론 제주도민들의 삶에 아주 긴요하게 밀착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한라산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로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영원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상징체(象徵體)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한라산과 제주도민과의 관계

앞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내용으로서,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점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궁극적으로 한라산이 제주도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주도(濟州島) 최고 이미지로서의 한라산

제주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 제주도민이라면 쉽게 연상해 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한라산을 비롯하여, 감귤, 해녀, 초가집, 특색 있는 많은 오름들, 제주방언 등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좀 더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에 제주일보사와 미래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제주도민 의식조사는 참고할 만하다.

<그림 1-8>은 제주도의 이미지로 생각나는 상징물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대한 상징물로서는 한라산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감귤(29.2%), 세 번째로는 청정지역(12.0%), 네 번째로는 휴양관광지(8.9%), 다섯 번째로는 삼다도(7.9%)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신혼여행지(2.0%)나 돌하르방(2.0%)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4개의 시·군 지역별로 살펴볼 때, 산북지역인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는 한라산을 먼저 지목하였고, 반대로 산남지역인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는 감귤을 우선적으로 연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결국, 자신들의 해당지역에 따른 상징물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된 셈이다.

이 조사에서 제주도의 이미지로 비교적 높게 자리잡은 5개의 상징물은 감귤을 제외하면, 주로 제주도의 자연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시각에서 평가하자면, 한라산 백록담을 비롯한 주변의 국립공원과 삼림지역, 부속도서, 중산간 지역의 귤자왈 지역, 368개의 오름군, 용암동굴, 나아가 다양한 화산지형 등은 제주도를 전국에서 최고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에서도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한라산이 제주도를 빛내고 상징하는 자연적 요소 중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라산의 존재 가치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역으로 제주 섬 한가운데에 한라산이 없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기도 하다.

일상 생활 속에서의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친숙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는가. 아니면, 제주도민들의 정신세계 속에 어떤 존재로 의지하는 대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전화번호부를 활용하여 <표 1-6>을 작성해 보았다. <표 1-6>은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단어인 '한라' 또는 '한라산'을 상호나 고유 명칭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 사례는 최근 전화번호

호부(2004년 판)에 등재된 것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활용사례들이 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 표에 제시한 활용사례만 보더라도 ‘한라’와 ‘한라산’의 명칭이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애용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표 1-6〉에 따르면, ‘한라’ 혹은 ‘한라산’의 명칭을 상호나 고유 명칭으로 활용한 사례는 정량적으로 전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2001년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의 명칭은 한라문화제로 통용(1965~2001년까지 36년 간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탄생한 초·중학교의 교명에도 ‘한라’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주류도 ‘한라산’ 소주이다. 이외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사, 병원, 연구소는 물론이고 체육관, 사설학원, 서점, 음식점, 건설업체, 여관·호텔업, 사회복지단체, 교회, 주점 및 다방의 상호에 이르기까지 활용도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나아가, 동일한 전화번호부의 제주시편에서 ‘한라’ 또는 ‘한라산’ 명칭을 상호로 활용한 사례의 총 건수를 살펴보면 ‘한라’는 258건, ‘한라산’은 19건으로 나타난다. 서귀포시편의 경우는 ‘한라’가 총 99건, ‘한라산’은 11건으로 집계된다. 이 통계적 수치를 기초로 할 때, 제주도민들은 상호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라산’이란 명칭보다도 ‘한라’라는 명칭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은 〈표 1-6〉과 〈표 1-7〉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7〉은 2005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주도내 3개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한라’와 ‘한라산’을 키워드(주요어)로 검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각 신문사별로 검색된 ‘한라’와 ‘한라산’ 주요어의 빈도수는 제주일보가 총 1,070건, 한라일보가 3,209건, 제민일보가 7,696건으로 확인된다. 신문사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의 개설연도나 개편연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한라’와 ‘한라산’으로 구분해 보면, 3개 신문사가 모두 ‘한라산’보다는 ‘한라’라는 주요어가 평균 75.4%를 차지하여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례에서 활용되는 ‘한라’나 ‘한라산’이란 상호나 고유명칭(주요어)은 제주 섬 한 가운데에 솟아있는, 글자 그대로 한라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의미하는 별칭으로 사용하는 듯한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하겠다. 그만큼 제주도에서는 이미 ‘한라’나 ‘한라산’이란 고유명사가 단순히 산(山)을 뜻하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생활을 영위하는 넓은 공간인 제주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어의가 변화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전제로 평가해 볼 때,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한라’ 또는 ‘한라산’이란 단어가 매우 친숙한 고유명사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만으로 한라산이 제주도민들의 정신세계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확인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거의 매일 한라산을 접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분명히 정신세계 속에도 이질적인 감각이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대상이기보다도 친근한 의지의 대상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발 더 나아가 기분이 좋을 때나 울적할 때, 서민들의 술인 ‘한라산’ 소주를 마시며 한라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한시도 떠나버릴 수 없는 소중한 정신적 지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길언(2002)은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정신적인 토양이 되면서 제주도 문화의 한 자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람들은 왜 한라산을 갈망하는가

해마다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소박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본 절의 맺음말로 삼고자 한다. 그 소박한 질문은 사람들은 ‘왜 한라산을 올라야만 할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한라산에 오를까’, 또 ‘대체 한라산에 올라서 무엇을 얻고 내려오는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첫째로, 한라산이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이다. 한라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눈앞에 펼쳐진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든지 1시간이내면 어리목이든, 관음사든, 영실이든, 성판악(휴게소)이든 한라산을 오를 수 있는 지점까지 다다를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게 솟아있는 한라산은 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한라산은 더욱 선명하고 요염한 자태로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 유혹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어 한라산을 오르게 된다. 한라산을 오르면, 사람들은 한라산이 지닌 자연의 일부를 얻고 돌아온다. 그 자연의 일부는 오르는 중간 중간에 마시는 한라산 샘물이고, 맑은 공기이며, 수많은 야생화와 짝지어 노는 노루이고,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이름 모를 새들이다<사진 1-16>.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드디어 ‘환희’라는 선물로 변신하여 되돌아온다. 한라산은 바로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는 산이다. 사람들은 한라산이 지닌 자연의 매력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한라산을 갈구하며 오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라산은 일반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비밀과 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 중요한 비밀과 정보를 얻기 위해 또한 한라산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 한라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한라산이 가진 중요한 비밀과 정보는 시간대마다 바뀌고 계절마다 바뀌는 경관적 요소이기도 하고, 독특한 비경을 뽐내는 여러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선민들이 쌓아 놓은 역사의 한 조각이나 문화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엄청난 비경을 속에 숨기고 있는 아흔아홉골, 탐라계곡, 산별른내, 영실계곡, 수악계곡 등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 골짜기 속에 구상나무, 비자나무, 시로미, 왕벚나무, 돌매화, 영송(靈松)이 울곧게 성장하며, 그 많은 나무들 사이사이에는 한라산 부근에서만 자란다는 제주조릿대, 섬바위장대, 제주사약채, 한라고들빼기, 한라개승마 등이 터잡아 피어난다. 나아가 진달래와 철쭉은 4월과 5월에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을 꽃향기에 취하게 만들어버린다 <사진 1-17>. 운이 좋을 때면, 한라산 탐방객들은 한라산 자연 속에서 노루와 오소리, 제주족제비와 제주 땃쥐, 제주도마뱀과 제주비바리뱀 등이 부지런히 먹이를 찾는 모습도 접할 수 있다.

나아가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원류를 좇는 사람들에게는 설화가 깃들여 있는 오백장군, 제주의 위급한 상황을 외부로 알렸던 왕관릉(연圖돌, 煙臺), 불교유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행굴(修行窟)과 존자암(尊者庵), 굴빙고(窟氷庫)로 활용했다는 구린굴, 한라산신제를 지냈던 제의장소와 선인들이 남긴 마애명 암벽장소, 그리고 4·3의 한(恨)을 품고 있는 수많은 오름과 계곡 등이 제격일 것이다.

이처럼 한라산은 중요한 비밀과 정보를 가진 장소들을 도처에 품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어찌 사람들이 한라산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중요한 비밀과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여 뇌리에 각인시키거나 카메라 속에 고이고이 간직해서 돌아온다<사

진 1-18, 19>. 물론, 그 중요한 비밀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현장에서는 사람마다 탄성을 지르거나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럴 만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다. 한라산은 자신이 가진 중요한 비밀이나 정보를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항상 바꾸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번 오른 한라산을 질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이다.

세번째로, 한라산은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 때문에 너나할것없이 한라산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라산을 오르는 것은 산을 좋아하는 많은 동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라산은 속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매개체로 만남을 주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라산은 ‘나와 남’, 그리고 ‘우리들’의 만남의 장소인 셈이다. 보통 사람들은 속세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끔 보고 싶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 그래서 한라산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약속한 바는 없지만, 언제나 쉬는 장소에서는 그리웠던 얼굴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웠던 사람들을 한라산에서 만나기에, 너무나 반갑고 쌓였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한라산은 그런 대화의 장을 항상 서슴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난 대로, 한라산의 자연을 함께 만끽하고 중요한 정보도 같이 얻고 돌아온다. 한마디로, 한라산을 오르는 일은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라산을 오르면, 손(損)되는 일은 없고 득(得)되는 일만 많아진다. 어찌 사람들이 한라산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네번째로,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라산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꿈과 이상을 품고 살지만, 그 꿈과 이상도 천차만별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의 꿈과 이상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원래처럼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되찾음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하여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한라산을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면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한라산을 오르내리며 실제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라산은 ‘말없는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쉽게 표현하면, 극기훈련이거나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한라산을 오르는 일이다. 이들에게 있어 한라산은,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굳은 각오와 맹세를 하는 데, 또는 새로운 기회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 굳게 다짐하는 데 필요한 존재이다. 말하자면 한라산은 사람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다짐과 맹세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또는 세계적인 명산을 탐험하기 위해 혹서기(酷暑期)나 혹한기(酷寒期)에 한라산을 대상으로 훈련을 쌓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산악등반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탐험하는 산에서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 모르기에 사전훈련을 쌓는 것이다. 그들의 꿈과 이상은 자신들이 설정한 산을 무사히 오르내리는 데 있으며, 아울러 탐험하는 산의 정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성취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꿈과 이상은 매우 소박하다. 그리고 한라산은 그러한 소박한 꿈과 이상을 키우는 데도 크게 일조(一助) 하는 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옛 지도 속의 한라산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개관

제주도는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섬으로 일찍부터 인간이 거주해 왔다.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과의 교역도 비교적 일찍부터 행해졌다. 또한 고려시대 이후에는 국내 최대의 목마장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적 관심이 두드러졌던 곳이다. 제주도가 지니는 이러한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형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도 제작이 일찍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목종 때에는 제주도의 서산(瑞山)에서 화산이 폭발하자 조정에서 태학박사(太學博士) 전공지(田拱之)를 파견하여 산의 형상을 그려 왕에게 바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의 그림은 폭발로 형성된 산과 그 주변 지역을 그린 회화식 지도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전기 지리지와 지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던 양성지가 1482년(성종 13)에 『제주삼읍도』를 그려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선 전기에도 지도제작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하는 제주도 지도는 대부분 조선 후기에 간행된 것이다. 다른 지역의 지도들도 비슷한 실정인데 조선전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들이 전란을 거치면서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존하는 단일 군현의 지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가 남아 있다.

조선후기 제주도의 지도제작과 관련된 기록은 1709년 목사(牧使) 이규성(李奎成)이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에서 단편적으로 보인다. 지도 여백의 서문 가운데 수로(水路)를 기술한 부분에서 구지도(舊地圖)와 신지도(新地圖)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1709년 『탐라지도병서』를 목판으로 만들 당시 이미 두 유형의 지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에도 『탐라지도병서』와 똑같은 기록이 있고, 그 옆에는 이 책에 수록된 두 장의 제주 지도가 모두 인쇄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해동지도』에 수록된 두 장의 『제주삼현도』는 모두 인쇄본으로 제작되어 비교적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장의 지도는 현존하는 제주도 지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양대 계보를 이루고 있다. 즉, 『해동지도』에 수록된 두 장의 『제주삼현도』 가운데 앞 부분에 수록된 지도는 1709년 간행된 『탐라지도병서』를 축소하여 그린 것이고 뒤편에 수록된 지도는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인쇄본 지도를 토대로 제작한 것인데 이후의 지도들은 거의 대부분 이들 지도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모사하거나 약간 수정된 형태로 다시 제작되어 후대로 이어졌다.

『탐라지도병서』의 형태를 따르는 지도들은 대부분 대형의 낱장 지도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계보에 속하는 지도들은 제주도의 모습을 비교적 실제에 가깝게 그리고 있고 읍치(邑治), 방호소(防護所), 각 촌락, 중산간의 목장 지대, 임수(林藪), 포구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본토의 남해안 사이에 산재한 여러 도서들, 중국·일본·유구국 등의 외국지명도 제 위치에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읍성을 비롯한 군사기지, 포구, 목장 등의 모습에서도 거의 동일한 축척을 유지하고 있는, 보다 사실적인 지도의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지도는 행정, 군사 등 실용적 차원에서 관에서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872년 조선왕조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 주도의 지도제작사업이 행해졌는데, 이 때 제작된 『제주삼읍전도』도 이 유형에 속하는 지도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면 다른 한편의 계보를 이루는 지도는 대형의 낱장 지도가 아닌 군현지도책에 수록된 형태로 존재한다. 앞의 유형에 비해서 규격도 작고 제주도의 모습도 동서로 압축되어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성곽으로 이루어진 읍치와 방호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조되어 크게 그려져 있는데 관아 건물도 매우 상세하다. 수려한 경관을 지닌 성산 일출봉, 산방산, 송악산 등이 크게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홍살문을 그려 열녀문과 효자문을 표시하였고 정자와 사우(祠宇) 등도 그려 넣어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제주도 주변의 도서나 남해안 지역, 그리고 중국·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지명들은 거리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표시되어 있어서 『탐라지도병서』의 유형에 비해 사실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각각의 지도가 제작되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제작의 의도가 달랐던 데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계보 이외에도 제주도를 그린 독특한 지도가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당시 목마장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도로 177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와 1899년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에 수록된 『제주지도(濟州地圖)』를 들 수 있다. 이들 지도에서는 각 목장의 경계선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고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측화산인 오름과 마을 이름, 해안의 포구까지 망라하고 있다. 특히 『제주삼읍도총지도』는 목장의 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목장의 위치, 경계, 내부 시설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제주도 지도들은 제주도를 독립된 형태로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지도의 방위가 남쪽이 상단으로 되어 있다. 이는 육지에서 제주도를 바라본 방향으로 지도를 그렸기 때문이다.

낱장의 단독 지도 이외에도 우리나라 전도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도 또 하나의 작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전도에 수록된 지도들은 낱장의 지도보다는 소략하고 수록된 내용에서도 오류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 지도는 낱장의 지도와는 달리 북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전도가 한반도의 북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잡아 배치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조선 전기의 지도들을 비롯하여 17세기 후반의 『동여비고(東輿備考)』, 18세기 중반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1834년의 『청구도』, 1861년의 『대동여지도』 등으로 이어진다.

지도에 표현된 한라산의 모습

17세기 제주도 지도의 한라산

『동여비고』의 제주도 지도 『동여비고』는 17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지도로 경상도 양산의 대성암에 소장되어 있다. 지도에 표시된 것은 읍치의 고적(古蹟)조에 표시된 항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사찰의 분포가 상세하다. 역사부도적 성격을 띠면서 조선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이기도 하다. 이 지도와 똑같은 사본이 규장각에 『조선강역총도』라는 명칭으로 소장되어 있다.

17세기 후반경에 편집된 『동여비고』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는 전체적인 모습이 감자처럼 둥글게 표현되어 있으며, 지도의 내용도 이후의 지도에 비해 왜곡이 심하다. 제주, 정의, 대정 세 고을의 표시가 부각되어 있지만 고려시대의 속현이 모두 표시되어 있고 조선 전기에 혁파된

사찰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중산간에 설치되어 있었던 목마장이나 해안 주위에 있었던 방호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도에 묘사된 한라산 지역에는 한라산과 더불어 일부 오름들이 소략하게 그려져 있다. 한라산은 제주목에서 20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두무악(頭無岳) 또는 원산(圓山)이라 불린다고 쓰여 있다. 한라산 중에는 존자암이 대표적인 사찰로 표시되어 있다. 한라산 주변의 오름들은 갈악(葛岳), 금물악(今勿岳), 장울악(長兀岳), 수악(水岳) 등이 나타나 있다. 수악의 봉우리에는 띠 모양으로 물이 있는 분화구를 표현하였는데, 용추(龍湫)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방암(方岩)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한라산의 정상에 있는데 신선들이 노니는 곳’이라 쓰여 있다. 방암에 대해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그 형상이 네모반듯하여 사람이 다듬어 만든 것과 같고, 바위 아래에는 향부자가 균락을 이루어 향기가 온 산에 가득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형상(李衡祥) 목사 종가 소장인 제주도 지도 앞서 살펴본 『동여비고』의 제주도 지도는 제주도의 단독지도가 아니고 전도에 수록된 것이다. 제주도의 단독 지도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는 이형상 목사 종택에 소장된 지도로 추정된다. 이형상은 1702년에서 1703년에 걸쳐 제주목사로 재직했는데, 이 때 제주에 있던 지도를 자신의 고향으로 가져간 것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지도는 세로 145cm, 가로 105cm로 지도 상단에 지지 기록이 있다. 지도의 내용을 보면, 1636년에서 1637년 사이 제주목사를 지낸 신경호(申景琥)가 세운 연무정(演武亭)이 광양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지도 상단의 기록에는 동해방호소(東海防護所)가 없는데 1678년 목사 윤창형(尹昌亨)이 동해방호소를 혁파했기 때문으로, 이 지도는 최소한 1678년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성안에 서원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1576년에 창건된 충암묘가 굴림서원으로 승격된 것이 1682년(숙종8)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682년에서 1702년 사이인 17세기 말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제주도의 단독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고 인쇄본 지도로도 가장 오래된 것이 된다.

지도는 남쪽이 상단으로 배치되어 있고, 남해안 지역과 제주와 전라도 사이의 여러 섬들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조선전기 전도 유형에서 볼 수 있는 파도무늬가 새겨져 있다. 제주도 지역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들과 목장의 분포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외에 방호소, 봉수(望), 해안가의 연대, 포구와 촌락, 과원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고을간 경계도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라산은 정상부를 중심으로 여러 봉우리와 오름들을 연이어서 커다란 산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산의 꼭대기에는 백록담이 그려져 있고, 어승생악이 크게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한라산 정상부의 남동쪽에는 장울추(長兀湫)라는 못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지금의 봉개동 명도암 마을 남쪽 한라산 기슭에 있는 물장오리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못을 말한다. 그 밖의 주요 오름으로는 사모악(紗帽岳), 시련악(時連岳), 반응악(盤癡岳), 삼의양악(三義讓岳), 야래악(野來岳, 들위오름), 장손악(獐遜岳), 거문악(巨門岳), 효성악(曉星岳), 정수악(井水岳), 아악(罽岳), 병악(竝岳), 녹산(鹿山), 다라비악(多羅非岳), 성불악(成佛岳), 방하악(防下岳) 등이 그려져 있다.

한라산에서 발원한 하천도 표현되어 있는데, 한라산이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하천도 동서 사면보다는 남북 사면에 발달해 있다. 한라산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오름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데, 봉우리의 방향은 산남과 산북이 반대로 되어 있다. 또한 당시 곳자왈 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숲들도 표시되어 있는데, 북제주군 애월읍 감은악으로 이어지는 숲과 조천읍

반응악으로 이어지는 숲, 한림읍 정수악으로 이어지는 숲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인문경관으로서 중산간 지대에 설치된 목마장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목마장과 민간의 취락지대를 구분하는 잣성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한라산 주위의 자목장(字牧場)이 표시되어 있다. 이들 자목장은 말을 키우던 장소인 둔(屯)에 천자문의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당시 제주도에는 이러한 자목장이 59개 있었다. 지도에도 59개 자목장이 대부분 표시되어 있다. 한라산의 동부지역에는 산마장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 지역 목축의 중심취락으로서 산마 감목관이 주재하던 교래촌이 표시되어 있다.

18세기 제주도 지도의 한라산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한라장축(漢拏壯墟)」 『탐라순력도』에 수록된 「한라장축」은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지도는 그림첩에 수록된 필사본 지도로 집에 보관되어 전해져 왔기 때문에 목판본의 제주도 지도처럼 널리 유포될 수 없었다. 지도의 규격은 첩에 수록되어 있어서 세로47cm, 가로30cm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 지도로는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어 사실적인 측면이 돋보이는 훌륭한 지도로 평가된다.

「한라장축」의 전체적인 구도는 제주도를 독립적으로 그린 여타의 지도처럼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고 24방위를 제주도 주변에 표시하였다. 또한 지도의 외곽에는 한반도 남해안의 지명, 중국의 여러 지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배치하였는데, 단지 방향만을 고려하여 그려 넣었다. 대신에 지도의 하단에는 방위에 따라 주요 주변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입하여 전체적인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는 것은 과거의 지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북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는 현대지도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섬 지방인 경우 본토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렸기 때문에 남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양식은 일본이나 유구국을 그린 지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과거의 지도에서는 하나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리지 않고 어떠한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주변에 24방위를 배치한 것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주변 지역과의 위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4방위를 배치하고 해당 방향에 주변 지역을 그려 넣은 것이다. 이러한 방위 배치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울릉도 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항해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서 행해진 것은 아니고 주변지역의 대략적인 위치 파악을 위해서였다. 서양의 경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과 항해의 필요로 인해 중세를 거치면서 포르투갈노라는 항해용 해도가 많이 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항해에까지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시대 항해의 경우 북극고도를 측정하거나 나침반의 방위각을 이용하여 항해하기보다는 바다 가운데의 섬이나 해안의 지형지물을 항해의 참고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그려진 외국 지명의 경우 중국의 영파부(寧波府), 소주(蘇州), 항주(杭州), 양주(楊州), 산둥성(山東省), 청주(靑州)를 비롯하여 일본(日本), 유구(琉球, 오키나와), 안남국(安南國, 베트남), 섬라국(暹羅國, 태국), 만랄가(滿刺加, 말라카)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을 통해 입수한 지식과 제주로 표류했던 외국인을 통해 전해들은 것으로 당시 서양과 달리 원격 항해가 제한되어 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조선과 교류가 활발했던 대마도의 경우는 우도의 옆에 위치시켰으나 일본의 북쪽 바다에 위치한 일기도(一岐

島, 이키섬)의 경우는 일본과 동떨어진 남쪽에 그려 넣었다. 그만큼 이 섬에 대한 당시인들의 인식이 낮았던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라장축」의 제주도 부분은 비교적 당시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주목을 비롯한 정의, 대정의 읍치와 해안을 둘러가면서 설치되어 있는 방호소(防護所)는 홍색으로 강조하여 그려져 있다. 또한 세 고을의 경계도 홍선으로 그려 넣은 점이 이채롭다. 해안 지역과 중산간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마을 이름들도 비교적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하단 여백에는 지도의 제작시기와 당시 지방관의 이름, 도리(道里)와 면적, 그리고 각 방위를 따라 도달하는 지역까지의 거리수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도면에서 빠진 정보들을 보충하여 한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동양의 지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다. 즉, 시각적 표현인 지도와 텍스트인 문장이 결합된 형태로, 고도로 추상화된 기호체계로 표현되는 현대지도와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라산 부분에는 여러 오름들의 봉우리를 연속으로 그려 표현하였다. 한라산 북사면에 있는 두리오름인 두리여가 중앙에 그려져 있고, 서쪽으로는 어승생, 고산, 발산, 병악, 정수악 등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황악(거친오름), 녹산, 성불악, 다라비, 사모, 반응악(바농오름) 등의 오름이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 지도의 특징은 중산간 지대에 설치되어 있었던 목마장이다. 목마장의 경계이기도 했던 돌담(일명 ‘하жат’)을 점선으로 그려 넣었으며 각 소장의 명칭도 기입하였다. 여기에는 이형상 목사 종가 소장의 제주지도와는 약간 다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이형상 목사 종가 소장의 제주지도에는 자목장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반면, 「한라장축」에는 소목장(所牧場)과 자목장(字牧場)으로 목장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당시 상위 단위의 대목장(大牧場)으로서 소목장(所牧場)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 소목장(小牧場)으로서 천자문의 글자를 딴 자목장(字牧場)이 설치되어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라산 북쪽에 일소장(一所場), 대이소장(大二所場), 대삼소장(大三所場), 목일소장(牧一所場), 목삼소장(牧三所場) 등의 대목장이 표시되어 있고, 일자장(日字場), 현자장(玄字場), 황자장(黃字場) 등의 자장이 한라산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라산의 동부지역에는 산장의 모습도 보이는데, 산장의 하나인 침장도 바농오름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다. 차귀방호소 근처에는 별현장(別玄場)이 그려져 있다. 이 곳에는 1705년에 모동장이 들어서는데 그 이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동북쪽 사면에 있는 황자장 옆에는 지도제작 당시 새로 설치된 목장이 ‘가축(加築)’이라 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한라산의 남북 사면에 발달해 있는 하천들이 그려져 있고, 한라산의 동북쪽 선흘리 방면으로 이어져 있는 곳자왓 지대의 숲과 대정 방면의 숲도 나타나 있다.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 『탐라지도병서』는 1709년에 제작된 목판본 지도로 간기(刊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지도의 제작자는 1707년 부임하여 1709년 5월에 이임한 이규성(李奎成)으로 추정된다. 세로 125cm, 가로 98cm 대형지도로 상단과 하단에 지지적인 기록이 수록되어 있고 중간에 지도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세 장의 목판을 위 아래로 이어서 만든 것으로 수록된 내용이 매우 자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후대에 제작되는 많은 지도들이 이 지도를 기본도로 삼았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던 지도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도 하단의 기록에 신지도, 구지도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존재하던 여러 종류의 제주 지도를 기본자료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최신의 정보들이

수록되기도 했는데, 1702년 목사 이형상이 삼성묘(三姓廟)를 가락천 동쪽에 옮겨 세운 것과 1704년 목사 송정규(宋廷奎)가 계청하여 목장을 축조함에 20소(所) 60둔(屯)을 합하여 10소로 정한 사실, 1706년 목사 송정규가 서산장(西山場)을 축조하고 공마(貢馬)를 포구로 내릴 때의 목장으로 삼은 사실 등이 지도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지도의 방위는 육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렸기 때문에 남쪽이 지도의 상단이 되었다. 바다는 전통적인 물결 무늬를 그려 넣었고, 사방으로는 간지(干支)에 의한 24방위를 표기하였다. 지도의 서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외국의 지명도 표기하였는데, 특별히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방향에 위치시켰다. 외국 지명이 배치된 방향은 비교적 정확하다. 한반도의 육지 부분도 실제 거리와 관계없이 지도의 상단에 배치시켰고 그 사이에 있는 섬들도 상세하게 그려 넣었다.

『탐라지도병서』는 18세기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이며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널리 유포된 지도로 이후의 지도들도 이를 모사한 것이 많다. 송실대 소장의 『제주지도』는 『탐라지도병서』를 필사한 대형의 지도로 필사한 품격은 다소 떨어진다. 18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에도 『탐라지도병서』 계열의 지도가 『제주삼현도』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송실대 소장의 지도에 비해서 규격은 작지만 필사의 상태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탐라지도병서』는 중앙 조정에 보관되어 국가적 차원의 군현지도 편찬에서도 기본도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상·하단의 기록에는 각 고을의 연혁, 도리(道里), 인구, 군사, 재정 등과 관련된 사항과 명승 고적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기록에서는 지도에서와 달리 목장이 13소(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소장과 10소장, 대정의 모동장(毛洞場)을 합했기 때문이다.

지도에는 대축척의 제주도 지도답게 한라산의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가운데에는 백록담이 크게 과장되어 그려져 있는 것이 이채롭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오름들과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여러 하천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특히 다양한 수목들이 그려져 있는데 한라산의 산정부 근처에는 흡사 주목과 비슷한 형태의 나무들이 그려져 있다. 꽃자왈 지대에 형성된 숲들도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라산의 중앙부에는 백록담이 크게 강조되어 그려져 있고, 백록담 분화구의 암석들도 그려져 있다. 특히 동암과 서암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분화구에 형성된 암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오름으로는 어승생악이 강조되어 있고 그 위쪽에는 두리여(斗里礮)가 보이는데 이는 연동 남쪽에 있는 두리오름을 말한다. 그 근처에는 개미목이 의항(蟻項)으로 표시되어 있고 지금의 왕관릉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대(煙臺)도 사각형에 표시되어 있다. 『남환박물』에 의하면, “여기에 하나의 봉수대가 있어서 해남의 백량(白梁)으로 완급을 전달했으나 해무가 항상 자욱하므로 지금은 헛파되었다.”고 한다. 연대로 사용되던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주도가 지방행정체제에 의해 중앙에 포섭되는 고려 중기 이후로 판단된다.

평평한 들판을 의미하는 평대도 표시되어 있는데, 교래리 근처에는 오늘날 정강이르에 해당하는 잠가전평대(暫可田坪代)가 있고 한라산 서부지역에는 은수평대(隱水坪代), 광제원평대 등이 있다. 용천수나 물이 고여 있는 못도 그려 있는데, 지금의 구좌읍 송당리 근처에는 말자지(末子池)가 있고, 현재의 절물휴양지에 있는 사천(寺泉), 서쪽 광제원에는 생수(生水), 그 아래에는 거해지(巨害池)가 그려져 있다. 지금의 구좌읍 송당리에는 슬수(瑟水, 비화물)가 보이고 남쪽 우부악 근처에도 생수가 표시되어 있다.

특히 한라산 중산간에 설치된 목장의 표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10소장을 비롯하여 산마장, 모동장, 천미장, 장장(獐場), 북쪽 해안의 좌가장(左可場)과 서산장(西山場)까지 상세히 그

려져 있다. 또한 목장의 경계가 되는 돌담(잣성)과 함께 목장을 출입하는 문(門)의 명칭까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문은 ‘양(梁)’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민간에서는 ‘도’라 부른다. 원래 ‘양’은 하천의 양안에서 돌이 무너져 쌓여 인마가 건너다닐 수 있는 곳을 지칭하였는데, 마장에 설치한 문도 ‘양’이라 했다. 문거문량(門巨文梁), 문저출량(門猪出梁), 문저목량(門楮木梁) 등이 ‘하жат’에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1734년 정도원(鄭道元) 목사가 남문 밖으로 이전한 사직단이 표시되어 있고, 1754년 남문 밖 광양 땅으로 이전되는 향교가 성안에 그려져 있어서 대략 1734년에서 175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로 122cm, 가로 119.5cm의 규격으로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다. 지도의 배치는 앞의 지도들과 동일하게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하였고 주변으로는 간지(干支)로 된 24방위를 배치하였다. 지도의 외곽으로 외국의 지명들도 기재되어 있고 북쪽에는 조선의 남해안도 그려져 있다. 바다에는 파도 무늬가 얇은 청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전체적인 지도의 윤곽은 제주목 관아가 있는 해안이 만의 형태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지도에는 한라산과 여기에서 뺀어내린 임수(林藪), 주변의 오름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한라산의 모습이 다른 지도에 비해 강렬하게 표현된 점이 특징인데, 백록담뿐만 아니라 영실의 기암절벽까지도 묘사되어 있다. 무엇보다 다른 지도에 비해 한라산 중심부의 지명이 상세하게 수록된 점이 특징이다.

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담이 물결무늬의 형태로 그려져 있다. 그 아래로 지금의 큰두레왓에 해당하는 대두리(大斗里), 작은두레왓에 해당하는 소두리(小斗里)가 그려져 있다. 그 서쪽으로는 지금의 장구목에 해당하는 장고항(長鼓項)이 그려져 있다. 전체적인 형상이 장구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위쪽에는 주홍굴(朱紅窟)이 표시되어 있는데, 구상나무 숲속에 있는 지금의 옷상굴로 추정된다.

백록담 바로 아래로는 입선석(入先石)이 있는데, 현재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아래에는 연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의 왕관릉에 해당한다. 과거 연대가 있었던 곳이라 전해진다. 그 바로 밑에 용진동(龍眞洞)이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의 용진굴이다. 김종철의 『오름나그네』에 의하면, 용진굴은 용이 떨어진 구렁이란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용진굴의 굴은 동굴이 아니고 골짜기, 구렁의 의미이다. 이 용진동을 지나 북쪽으로 내려가면 개미목에 해당하는 의항(蟻項)이 보인다. 개미의 목처럼 가늘게 생겨져 붙여진 이름이다.

개미목 남쪽에는 다른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상마(上馬)와 하마(下馬), 대마근다리(大馬斤多里)와 소마근다리(小馬斤多里)가 그것이다. 이것은 옷막은다리와 아랫막은다리, 큰막은다리와 작은막은다리에 해당한다. 김종철의 『오름나그네』에 의하면, 막은다리는 계곡의 머리가 되는 지대를 이르는 말이라 한다. 대마근다리의 계곡은 지금의 동탐라골, 소마근다리의 계곡은 지금의 서탐라골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벼랑이나 낭떠러지를 나타내는 어외(於外)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전라남북도여지도』에 수록된 문덕어외, 고량지어외와 더불어 논성어외(論星於外), 구란어외(九亂於外) 등이 보이는데 위치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라산의 서남쪽으로는 기암절벽으로 유명한 영실이 오백나한의 모습처럼 이채롭게 그려져 있다. 그 옆에는 이 곳에 있었던 존자암이 ‘존자(尊者)’라 표기되어 있다. 영실 북쪽 편에는 삼장동(三長洞)이 있는데, 오창명의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에 따르면, 지금의 삼형제악에 해당한다. 그 아래쪽에는 골두(骨頭)가 표시되어 있다. 이 오름은 천왕사가 있는 아흔아홉골의 제일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골머리오름이라 부른다.

한라산 주변에 그려져 있는 주요 오름으로는 ‘오름의 맹주’라고 불리는 어승생악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한라산 동쪽 사면에는 토적악(土赤岳), 평안악(平安岳), 사손장올악(沙孫長兀岳), 수장올악(水長兀岳), 대내악(大乃岳) 등이 그려져 있는데, 수장올악에는 분화구에 고여 있는 물의 모습을 독특하게 표현하였다. 서쪽 사면에는 진목악(眞木岳), 천서악(川西岳), 이사랑악(伊士郎岳), 건송악(乾松岳), 만수동산(萬水同山), 불라악(虜羅岳), 저악(猪岳) 등이 그려져 있다. 오름과 더불어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평대(坪代)들도 여럿 보이고 있다. 지금의 애월읍 상가리 일원에 해당하는 곳에 광제원평대(光濟院坪代), 조천읍 교래리 근처에 있는 잠가전평대(暫可田坪代), 한라산 서쪽 사면의 은수평대(隱水坪代) 등이 표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지도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목장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는 것이다. 중산간에 포진되어 있는 10소장과 더불어 천미장, 모동장 등의 우목장도 그려져 있다. 또한 각 소장에는 비를 피하던 곳인 피우가와 물을 먹이던 수처도 그려져 있고 잣성에 있는 출입문도 표시되어 있다. 특히 산마장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구마(驅馬)할 때 사용되었던 원미장(尾圓場), 사장(蛇場), 두원장(頭圓場) 등의 시설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산마장에서 키운 말을 진공하기 위해 한쪽으로 몰아 점마하던 시설이다. 두원장으로 말을 몰아서 길게 이어진 사장으로 말을 한 마리씩 보내어 말의 등급을 매긴 후 미원장으로 집결시킨다. 이와 같은 시설은 1702년에 제작된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에 잘 묘사되어 있다.

한라산과 관련하여 이 지도에만 유일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한라산 등반로다. 제주읍성의 남문을 출발하여 백록담까지 이르는 등산길이 붉은 선으로 그려져 있다. 남문을 출발하여 연무정을 지나 남쪽으로 간다시촌(良多時村)을 거쳐 3소장의 출입문인 문흑덕량(門黑德梁)으로 목마장에 들어선다. 남쪽으로 더 가면 사지고개(寺址古介)가 나오는데 지금의 관음사 일대로 보인다. 여기는 점심을 먹는 곳이라 적혀 있다. 남쪽 방향으로 더 올라가면 산마장 지역이 나오고 이어서 아랫막은다리 근처의 희충괴(喜忠怪)에 도달하게 된다. 희충괴는 굴을 가리키는 궤의 명칭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미상이다. 이어 웃막은다리, 용진동을 거쳐 입선석을 지나 서북벽을 오르면 백록담에 도착하게 된다. 이 같은 경로로 그려져진 등산로에는 중요 지점까지의 거리수도 옆에 표기하여 전체 산행길의 거리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북도여지도』 중의 제주지도 이 지도는 18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전라남북도여지도』에 수록된 것으로, 규장각 소장인 『해동지도』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두 종의 『제주삼현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탐라지도병서』 계열의 것과 이것이다. 이 지도의 원형과 관련해서는 『해동지도』에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이 있다. 즉, 지도의 앞 페이지 제주목 주기 부분에 “탐라의 두 지도가 모두 인쇄본인데 이들을 그려져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록된 『제주삼현도』가 모두 목판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도 역시 『탐라지도병서』와 같은 목판본을 필사한 것이다.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한 점이나 주변에 24방위를 배치한 점, 서남쪽에 외국의 지명을 배치하고 북쪽으로 조선의 육지부 지명이 표기된 점은 『탐라지도병서』류와 동일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도의 윤곽은 매우 과장되어 있다.

앞의 유형에 비해서 규격도 작고 제주도의 모습도 동서로 압축되어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성곽으로 이루어진 읍치와 방호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조되어 크게 그려져 있는데 관아 건물도 매우 상세하다. 수려한 경관을 지닌 성산 일출봉, 산방산, 송악산 등도 크게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홍살문을 그려져 열녀문과 효자문을 표시하였

고, 정자와 사우(祠宇) 등도 그려져 넣어 문화적인 측면도 강조하였다. 제주도 주변의 도서나 남해안 지역, 그리고 중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지명들은 거리관계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있어서 『탐라지도병서』의 유형에 비해 사실성이 떨어진다.

바다에 그린 섬과 외국 지명도 위치상 오류가 많이 보인다. 송악산의 남쪽에 있는 가파도와 마라도의 위치가 서북쪽에 잘못 그려져 있다. 송악산 부근 바다에는 중국의 유명한 고사와 관련된 갈석(葛石)과 전횡도(田橫島)가 그려져 있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유구국(琉球國), 소유구(小琉球)의 모습도 성산포 부근의 엉뚱한 곳에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지도가 실용적 목적에서 제작되었다기보다는 역사적·이념적 성격이 강한 지도임을 시사한다.

또한 지도에 그려져 있는 내용들도 당시대의 사회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남쪽 대정현의 동해소(東海所)가 이미 혁파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려져 있고 대정현의 향교가 1653년 이원진 목사에 의해 단산(簞山)으로 이설되는데 여전히 옮겨가기 전 위치에 있다. 서귀소는 위쪽에 있다가 바닷가 쪽으로 1590년에 이전되는데 이 사실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전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성곽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던 구서귀소의 모습을 오목한 만으로 그리고 배까지도 그려져 넣었다. 필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도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17세기 중반경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이 지도는 17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목판본 지도를 그대로 필사한 제주지도의 계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도는 회화적 성격이 보다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데 한라산의 모습이 더 강조되어 표현되었고 한라산에서 뻗어 내린 임수의 표현도 강렬하다. 한라산의 정상부에는 백록담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두리오름인 두리서(斗里嶼)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礮)가 서(嶼)로 되어 있다. 주요 오름으로는 장손악(노루손이오름), 효성악(새별오름), 성불악(성불오름), 고악(높은오름), 황악(거친오름), 다라비악(따라비오름) 등이 그려져 있다. 정수악(정물오름)은 우수악(牛水岳)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지도에는 어외(於外)가 붙은 지명이 많이 표기되어 있다. 한라산의 동쪽 사면에 죽생어외(竹生於外), 문덕어외(文德於外), 고량지어외(高良地於外)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오창명의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에 의하면, ‘어외’는 벼랑이나 낭떠러지로 이루어진 큰 암벽 지대나 골짜기 따위를 뜻하는 것으로 중세어의 ‘어위’에 대응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목마장의 모습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형상 목사 종가 소장의 『제주지도』와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처럼 각 자장별로 목장이 표시되어 있다. 지금의 구좌읍 송당리 지경에는 황자둔목장(黃字屯牧場), 그 서쪽에 홍황일영축자둔목장(洪荒日盈胙字屯牧場), 장손악 근처의 진자둔목장(辰字屯牧場), 병악 위쪽의 현자둔목장(玄字屯牧場), 차귀소 부근의 별자둔목장(別字屯牧場), 고래촌 근처의 별천양자둔목장(別天兩字屯牧場)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 밖에 숲의 모습도 여럿 그려져 있는데, 지금의 제주시 회천동에 있는 ‘닥낭구석’이 저목수(楮木藪)라고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제주도 지도의 한라산

이원조의 『탐라지도병지(耽羅地圖并識)』 19세기에도 제주도 지도의 제작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원조(李源祚) 목사에 의한 『탐라지도병지』의 제작을 들 수 있다. 이원조(1792~1871)는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이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현재 후

손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례 또한 제작의 연대가 명시적으로 밝혀진 중요한 것으로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 다음은 기록의 일부인데, 지도 제작의 목적, 제작과정, 지도에 대한 당시인의 생각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탐라지도는 옛날에 판각(板刻)이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닳아 헤어지고 크기도 커서 병풍이나 족자로 만들기에 불편했다. 듣기에 제주사람 고경욱(高敬旭)이라는 자가 영주십경(瀛洲十景)을 잘 그려져 옛날 목판본 지도를 모사했다. 규격은 전에 것에 비해 3분의 1로 줄이고 방리와 촌명, 언덕과 시내 중 이름이 없는 것은 생략하여 번잡함을 제거하고 간단하게 했다. 목을 채색으로 바꾸고 보기에 편하다. 족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 놓았다. 바다가 널리 펼쳐져 있고 한라산이 우뚝 솟았으며 망루와 성곽의 배열, 민간의 가옥들이 펼쳐짐과 포구의 방수하는 곳, 월삭(月朔)으로 진현하는 수(數), 해외 여러나라의 방향과 원근 등이 한눈으로 보아 알 수 있으니 와유(臥遊)할 수 있는 자료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원조는 고경욱을 시켜 당시까지 전해오던 『탐라지도병서』를 축소 모사하도록 했다. 『탐라지도병서』는 대축척의 자세한 지도로 오히려 열람하기에 번잡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시대의 지도 문화에서는 상세한 대축척의 지도가 항상 효율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도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효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군사적 목적이나 실제 행정적인 목적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세한 대축척의 지도를 선호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대략의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형세를 한 폭의 그림처럼 감상하고자 했던 사람은 복잡한 지도보다는 쉽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보다 간략한 채색의 지도를 선호했을 것이다. 『탐라지도병서』는 후자와 같은 목적에서 제작되었던 대표적인 지도라 할 수 있다.

실제 『탐라지도병서』와 비교해 보면, 마을 이름과 포구 이름이 대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라산 주변의 모습도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데, 『탐라지도병서』보다 세밀한 표현이 떨어지고 있다. 『탐라지도병서』에는 백록담 분화구와 절벽, 주변의 오름뿐만 아니라 숲, 그리고 여러 수목들의 모습까지 묘사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는 주요 오름과 하천들을 그린 정도이다. 백록담 주변의 지명은 대부분 『탐라지도병서』의 것을 따르고 있는데, 분화구의 동암·서암·남봉이 그려져 있고, 왕관릉인 구봉암, 개미목인 의항, 장구목인 장고항 등이 보인다. 과거 연대도 표시되어 있고 구상나무밭인 구상목전도 표시되어 있다. 또한 『탐라지도병서』처럼 목마장이 각 소장별로 표시되어 있고 경계도 그어져 있다. 목장의 출입문은 『탐라지도병서』와 달리 명칭 표기가 없고 단지 '문'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위백규(魏伯珪) 『환영지(寰瀛誌)』의 『탐라도』 현존하는 독립 제주지도들이 대부분 관에 의해 제주도 현지에서 제작된 상세한 지도인데 반해, 이 지도는 민간에서 개인이 제작한 것으로 당시 육지부에 거주하는 지식인들의 제주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환영지』는 18세기 호남의 삼대 실학자의 한 사람으로 불리는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 1727~1798)의 대표적인 저서로, 조선 팔도 및 중국, 일본, 유구(琉球)의 지도와 지지(地誌), 천문, 제도 등을 기록한 책이다. 위백규는 본래 1770년에 『환영지』를 간행했는데, 현존하는 목판본 『환영지』는 1822년에 종손 위영복(魏營馥)이 편찬한 것이다. 필사본 『환영지』도 현존하는데, 필사본 『환영지』에 수록된 탐라지도는 매우 소략하다.

『탐라도』는 대형의 단독 제주지도처럼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지도의 외곽에는 간지로 된 방위가 표시되어 있다. 제주도 주변에는 일본, 동남아, 중국 등의 외국 지명과 남해

안의 여러 섬들이 그려져 있다. 바다에는 물결무늬를 그려져 놓았다. 이러한 구도와 양식은 『탐라지도병서』와 유사한데, 그를 참조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내용은 『탐라지도병서』류에 비하면 매우 소략하다.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의 고을 표시와 산지와 하천, 북쪽 지역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포구가 표기된 정도이다.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건립된 삼성묘가 제주 성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18세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라산의 표현은 상대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준다. 백록담과 주변의 지형, 서쪽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곳자왈 지대의 우거진 숲은 『탐라지도병서』의 구도와 유사하다. 특히 백록담의 모습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동암과 서암의 모습도 부각되어 있다. 또한 영실의 기암절벽도 독특하게 표현되었는데, 지명은 ‘영곡(靈谷)’이라 표기되어 있다. 백록담 북쪽 사면에 있는 구상나무밭은 ‘향목(香木)’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천은 쌍선으로 그렸는데, 성안을 통과하는 산지천이 백록담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이채롭다. 『탐라지도병서』처럼 중산간 지대에 설치된 목마장이 각 소장의 표시와 함께 그려져 있다. 한라산 주변에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는 오름은 일부만이 그려져 있고 명칭은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한라산에 대한 인식이 실재를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중의 제주지도 제주도가 단독으로 그려져진 지도는 앞서 제작되었던 지도들을 모사하는 경향이 많은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같은 대축척 지도책에 수록된 제주 지도는 더욱 정제된 모습을 띠고 있다. 전체적인 윤곽은 거의 실재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고, 내부에 표시되는 지명도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군사 행정적으로 중요한 항목들만 선택적으로 수록되었다. 즉, 방호소·봉수 등의 군사시설과 공마와 관련된 목마장 등이 중요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지도에서는 개별 제주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산지의 표현방식이 나타난다. 즉, 이전의 개별 제주 지도에서는 측화산인 오름들을 독립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체계에 따라 각 오름들도 연맥식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한라산의 산정부에 있는 암벽이 강하게 부각되어 표현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백록담이 그려져 있다. 또한 산정에는 다른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혈망봉(穴望峰)과 십성대(十星台)가 표시되어 있다. 혈망봉은 백록담 분화구에서 남쪽에 있는 봉우리인데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서 붙인 이름이라 한다. 십성대는 영실에 있는 칠성대(七星臺)의 오기로 보이는데, 필사본 『동여도』에도 십성대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대동지지』에는 성안에 있는 칠성도(七星圖)를 칠성대로 기술하였을 뿐 한라산 칠성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라산 서쪽 사면에는 삼수동(滲水洞)이 있는데, 이 또한 다른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한라산 서쪽에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오창명은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에서, 삼수동은 ‘숨물골’의 한자 차용표기로 보고 애월읍 한대오름 동쪽에 있는 ‘숨물팻’에 비정하였다. 또한 굴도 표시되어 있는데 한라산 동쪽 사면의 거은굴(巨隱窟)과 남쪽의 수행굴(修行窟)이 표시되어 있다. 거은굴은 정확히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수행굴은 존자암 근처에 있던 굴로 스님들이 이 곳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진다. 최근의 한라산 탐사에서 수행굴로 추정되는 굴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라산 정상부에서 사방의 오름들에 뿔어내린 맥이 육지부의 산줄기와 똑같이 연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려져진 주요 오름들은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고구산(높고메오름), 안덕면 상창리의 병악(온오름), 한라산의 동쪽 등반코스에 위치한 성판악, 서귀포시에 있는 달라산(월라봉),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녹산과 감은악,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사미악(세미오름)과

도전악(피꼬리오름),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장올악(장오리오름)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목마장이 10소장까지 표시되어 있고 하жат성도 그려져 있다.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년에는 조선왕조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진 전국적 규모의 군현지도 제작사업이 추진되었다. 『제주삼읍전도』는 이 때 작성된 지도첩에 수록된 지도이다. 여기에는 제주도 전도뿐만 아니라 제주, 정의, 대정의 고을로 분리하여 그린 분도가 같이 수록되어 있다.

지도의 규격은 세로 69cm, 가로 109cm로 비교적 큰 편에 해당한다. 지도는 육지부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져 남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위에 간지로 된 24방위를 배치한 점이 독특하다. 제주도와 같이 육지부에 인접한 섬이 아닌 경우에는 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방위와 주변 지역을 일부 그려져 넣기도 했다. 남쪽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안남국(安南國), 섬라(暹羅), 만랄가(滿刺加), 점성(占城) 등의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그려져 있다. 한라산 지대에는 산정부에 백록담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오름들을 자세하게 그려져 넣었다. 통상 다른 지도에서는 어승생악이 강조되어 표현되는데 이 지도에서는 다른 오름들과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다. 영실에는 오백장군의 모습을 독특하게 표현하였고 존자암도 표시해 넣었다.

두리여 아래쪽 과거 연대가 있었던 곳에는 ‘고연대(古烟垓)’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산악(신산오름, 돌오름) 위쪽에는 ‘구향목전(舊香木田)’이 표시되어 있다. 오창명의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에서는 ‘구상남밭/구상남밭’의 차자 표기로 보았다. 즉, 구(舊)는 ‘구’의 음가자 표기, 향(香)은 ‘향’의 제주도 방언 ‘상’의 음가자 표기, 목은 ‘나무’의 제주방언 ‘남·낭’의 훈독자 표기, 전은 ‘밭’의 제주방언 ‘밭’의 훈독자 표기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 곳은 구상나무가 우거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오름과 더불어 한라산 지대에 분포하는 용천수와 못들도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지금의 구좌읍 송당리의 황악(거친오름) 근처에는 마소은지(馬小隱池), 한라산 서쪽 6소장 지역에는 거해지(巨害池)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용천수가 아닌 고여 있는 못으로 보이며 당시에는 말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라 생각된다. 용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금의 구좌읍 덕천리에 있는 기악(체오름) 아래와 지금의 절물자연휴양림에 있는 사천(절물),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고구산(늬고메) 아래의 가문악수(가문오름물), 그 서쪽 이생원 근처의 생수가 표시되어 있다.

목장의 표시도 상세한데, 각 소장별로 목장이 표시되어 있고 한라산 동쪽에는 산마장도 표시되어 있다. 목장의 경계인 잣성은 목장과 아래쪽 마을과의 경계인 하жат뿐만 아니라 목장과 한라산 산림지대와의 경계인 상жат까지 그려져 있다. 제주목에서 대정, 정의의 두 고을로 이어지는 중산간의 도로는 ‘상대로(上大路)’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길은 그려져 있지 않다. 상대로 변에는 원취락도 형성되어 있었는데, 한라산 서부 지역에는 이생원(利生院), 동부 지역의 지금의 조천읍 대흘리에는 제중원(濟衆院)이 있어서 길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지금의 제주대학교 근처의 삼의양악 아래에는 산천단(山川壇)이 표시되어 있다. 이형상 목사의 계청에 의해 설치되어 한라산신제를 지냈던 곳이다.

『제주군읍지』 중의 『제주지도』 1899년(광무 3) 5월에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제주군읍지』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다. 1895년 행정구역이 모두 군으로 변경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읍지에 첨부된 지도이지만 수록된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전체적인 윤곽은 다소 왜곡되어 있으나 이는 책의 규격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이전 시기 독립된

형태의 제주도 지도에서처럼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전 지도에서 보이는 24방위 표시나 외국 지명들과 남해안, 그리고 그 사이의 섬들은 제외되어 있다.

중앙부의 한라산은 풍수지도인 산도(山圖)처럼 맥세를 강렬하게 표현하면서도 독립된 형태의 오름도 상세히 그려져 있다. 한라산의 중앙부에는 백록담을 별처럼 표현하였고, 분화구 상에 있는 동암과 서암도 그려 넣었다. 영실에는 오백장군 대신에 천불암이 그려져 있다. 한라산의 북사면에는 예전에 있었던 연대가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의 의항(개미목)은 잘록하게 표현된 것이 이채롭다. 어승생약은 어승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목장이었던 10소장의 경계가 상жат성과 하жат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점이 이전 지도와 다르다. 1소장에서 10소장에 이르는 목마장과 산장, 그리고 갑마장의 경계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하천도 상세하게 그렸는데 군 경계와 구분하기 위해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중산간을 경유하는 도로는 그려져 있지 않으나, 원취락이었던 원동이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표시되어 있다.

목장의 상жат성 위쪽으로도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홉 군데에 화전동(火田洞)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 뒤의 읍지 본문에 화전세를 수세하던 기록이 있어 산장이 있던 곳에 화전촌이 형성되어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세금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10소장과 자목장 체제로 이어져 내려왔던 제주도의 마정은 1895년(고종 32) 지나친 공마(貢馬)와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 공마제를 혁파하고 돈으로 바꾸어 상납하도록 하는 조치가 행해짐에 따라 국영목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도에 표시된 화전동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마장에서부터 화전의 개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지도의 한라산 표현

앞서 살펴본 지도와 더불어 실경을 그린 회화에서도 한라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익태 목사의 『탐라십경도』,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판화 형식의 『제주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그림은 실경을 그린 것으로 그림에는 지명도 표기되어 있어서 회화식 지도로도 볼 수 있다.

『탐라십경도』의 한라산 관련 그림지도 『탐라십경도』는 이익태 목사가 1694년(숙종 20)에 제주도를 두루 다니면서 경치가 가장 뛰어난 열 곳을 가려 화가에게 그리게 하여 병풍으로 제작한 것으로, 각 그림지도의 상단에는 해당 지역의 설명을 수록하였다. 그가 꼽은 제주의 10경은 「조천관」, 「별방소」, 「명월소」, 「성산」, 「백록담」, 「영곡」, 「산방」, 「서귀소」, 「천지연」, 「취병담」 등이다. 이 중에서 한라산을 표현한 것은 「백록담」, 「영곡」, 「서귀포」의 세 그림 지도다.

먼저 「백록담」 그림 지도를 보면 백록담 주변의 지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파도 무늬가 그려져진 백록담에는 물을 먹는 사슴과 활을 쏘는 사냥꾼, 그리고 전설에 나오는 흰 사슴을 탄 노인의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백록담의 남쪽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기우단이 그려져 있다. 백록담의 분화구에는 구멍이 뚫려있는 바위인 혈석과 곧게 서있는 바위인 입석이 그려져 있다. 여기의 혈석을 혈망봉과 관련지어 볼 수 있으나 혈망봉은 남쪽에 있는 것이어서 위치상 서로 다르다. 백록담의 북사면으로는 구봉암이 그려져 있다. 모습이 왕관과 같아서 왕관바위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왕관릉이다. 그림에도 흡사 왕관처럼 그려져 있다.

구봉암의 동쪽에는 독특한 형상을 지닌 황사암(黃沙岩)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의 어디에 해당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라산의 후면주봉 아래에는 장고항(장구목)이 봉우리의 잘록한 부분에 그려져 있다. 그 일대에는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사이사이에 빙통(氷桶)이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움푹 패인 곳으로 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아 남아 있던 곳을 지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탐라계곡의 최상부에는 홍량(紅梁)이 표시되어 있는데, 백록담 분화구로 오르는 입구로 보인다. 양(梁)은 돌무더기가 쌓여 마치 돌다리처럼 형성된 것을 말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출입구에 해당하는 ‘도’로도 사용된다. 그 밖에 수목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수종에 따라 특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영곡」은 한라산에서 절경으로 유명한 영실을 민화적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지도에서도 영실 기암의 모습이 독특하게 갖가지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세 갈래의 폭포수가 시원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운생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영실기암의 서편에는 존자암도 표시되어 있다. 그 아래 절리를 이루고 있는 암벽에는 어린벽(漁鱗壁)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모양이 생선비늘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귀소」에는 한라산 남사면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한라산 가운데에 백록담을 움푹하게 그렸고 그 아래쪽에는 칠성암이 그려져 있는데 존자암이 있었던 곳이다. 영실에는 오백장군의 모습이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다. 동남쪽의 성판악은 흡사 성처럼 그려져 있다. 서남쪽의 쌍계암은 별칭으로 각씨암이라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그 아래로는 이 곳에 설치된 9소장이 표시되어 있다.

『탐라순력도』의 한라산 관련 그림지도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와 병마수군절제사의 관직을 제수받은 이형상(李衡祥)이 1702년 순력을 마친 후, 순력을 기리기 위해 이듬해에 완성한 그림첩이다. 여기에는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축(漢拏壯壘)」을 비롯하여 전체 41면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다양한 순력의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그림첩에서는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 이형상의 주관 아래 화공(畵工) 김남길(金南吉)이 그림을 그리고 글씨는 오 씨 노인이 썼다. 서두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력의 장면을 그린 기록화적 성격을 지닌 그림들이다. 이러한 그림은 행사의 구체적인 실상을 사실적으로 포착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서 제주도 전체의 형세를 보여주는 지도인 「한라장축」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순력도들이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졌지만 행사가 행해지는 공간적인 모습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는 회화식 지도의 범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탐라순력도에서 한라산을 표현한 그림은 「산장구마(山場驅馬)」, 「제주조점(濟州操點)」, 「병담범주(屏潭泛舟)」, 「호연금서(浩然琴書)」 등이다. 물론 한라산만을 대상으로 직접 그린 것은 아니지만 배경에 한라산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 한라산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산장구마」는 한라산 산마장에서 키우던 말들을 한 곳으로 몰아 봉진할 말을 가리는 그림이다. 위로는 성판악으로부터 아래로 교래리 일대로 이어진 지역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곳곳에 산재한 오름들과 주변에 형성된 숲들도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성판악 주변으로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물참오름, 물영아리오름에는 ‘유수(有水)’라 표기하여 분화구에 물이 있음을 나타냈다. 팽목동산에는 팽나무의 모습을 독특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산굼부리는 산구음부리악(山仇音夫里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주도 마정의 책임자인 감목관은 교래리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패와 궐패를 봉안하여 예를 올리던 객사도 그려져 있다.

「제주조점」은 제주목의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그림으로 제주읍성의 남쪽에 한라산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한라산 정상부로 이어지는 계곡의 모습이 강렬하며 어승생오름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두리여의 동쪽, 지금의 왕관릉에 해당하는 곳에는 연대가 그려져 있다. 과거 연대가 있던 곳을 표현한 것으로 당시에는 연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다. 다른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오름도 보이는데, 대독거지(大獨去之), 소독거지(小獨去之)가 대표적이다. 오창명의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에 의하면, ‘독’은 암반을 뜻하는 ‘덕’의 훈가자이고, ‘거지’는 음가자 결합 표기로 큰 언덕 따위를 이르는 제주도 방언이라 한다. 현재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병담범주」에는 멀리 바다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한라산 정상부에는 백록담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의 계곡 옆으로는 연대와 어승생오름이 그려져 있다. 어승생오름은 제주도의 오름 중에서 산체가 제일 큰데, 그림에도 걸맞게 크게 그려져 있다. 취병담, 즉 용연으로 흘러오는 대천(한내)이 삼의양악과 아래악 사이로 길게 이어져 있다. 「호연금서」에 표현된 한라산의 모습은 「병담범주」의 것과 거의 비슷하다.

판화로 제작된 『제주도(濟州圖)』 지도의 제작시기는 1702년에 건립된 삼성묘가 동문 안쪽에 있고, 1755년 광양으로 이전되는 향교가 여전히 성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전반기로 추정된다. 민화 풍으로 그린 지도로 제주목만을 그린 것이다. 제주읍성을 크게 부각시켜 그렸고, 성안에는 객사·아사 등의 관청 건물과 관덕정의 모습도 확연하다.

한라산은 여러 봉우리를 중첩하여 표현하였는데, 이전의 지도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하늘에는 구름무늬까지 그려져 넣어 회화적인 풍취를 한껏 느끼게 한다. 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담을 그려져 넣었고 해안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거기서 발원하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별도 천과 산지천의 갈라지는 곳에 수분처(水分處)라 표기해 넣었다. 이는 다른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지명이다. 한라산 북쪽 사면 백록담으로 이어지는 계곡에 있는 기암절벽들은 음각으로 표현하였다. 한라산 서쪽 사면에는 영실의 기암 절벽으로 보이는 곳에 존자석(尊者石)이라 표기되어 있고, 바위들을 흡사 나무 막대기와 같이 표현하였다. 지도의 상단에는 한라산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있는데, “한라산은 고을의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이다. 한라라 말하는 것은 은하수를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두무악이라 하는데 봉우리가 평평하기 때문이다. 또는 원산이라 하는데 크게 솟아 둥글기 때문이다. 정상에는 큰 못이 있는데 사람들이 떠들면 운무가 일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오월에도 눈이 남아 있고 팔월에도 가죽옷을 입는다.”라고 쓰여 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지지 속의 한라산 인식

조선시대 제주도 지지 개관

지지는 지리지(地理志)라고도 불린다. 지리지와 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지만, 지리지는 역사서의 부록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해 지지보다는 포괄하는 영역이 작게 느껴진다. 좁은 의미의 지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기록을 지칭한다. 넓은 의미의 지지는 여행기나 산천 잡기(雜記)로부터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지리서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여기서는 지지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관찬과 사찬의 지리지뿐만 아니라 여행기, 유람기, 등산기 등의 기록도 포함하여 이 속에 담겨있는 한라산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외적을 방어하는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목마장으로서 중시되던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지도와 더불어 많은 지지가 저술되어 활용되었다. 조선전기에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처럼 총지(總誌)에 수록된 것이 대부분이고 조선후기에 가서는 사찬읍지의 편찬과 맞물리면서 독립된 지지의 저술이 행해졌다.

독립된 지지로는 1653년 이원진의 『탐라지』가 효시를 이룬다. 이 책은 현재 전해오는 제주도의 가장 오랜 읍지로서 이후 제주도 지지의 저본이 되었다. 내용면에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인물, 시문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특징을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17세기의 제주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저술로 평가된다. 1702년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은 기존의 지지와는 다소 다른 양식으로 제주, 정의, 대정 고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기술하였다. 이후 이원진 『탐라지』의 뒤를 이어 1744년 부임한 윤식(尹植) 목사도 『탐라속지』를 저술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존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후에도 영조 연간에 『증보탐라지』가 저술되었는데, 천리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증보탐라지』는 17세기 이원진의 『탐라지』, 19세기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지지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관찬의 읍지도 전하고 있는데,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읍지』와 『제주대정정의읍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읍지는 이원진의 『탐라지』보다 훨씬 규칙에 입각하여 제주의 지역특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줄어들었으며 일부 항목은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앙에서 하달된 항목에 준해 작성되었기 때문이며, 『탐라지』에 있던 방호소·수전소가 진보, 공헌이 진공으로 바뀌고, 과원·향약·의약 등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19세기에는 이원조 목사가 저술한 『탐라지초본』(1843년경)과 동경대 소장의 『탐라지』가 있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 초기부터 이원조 목사 시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났던 지리지의 주요 항목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시대적 경향과는 관계없이 제주도와 관계되는 것은 전부 수록한다는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에 동경대 소장의 『탐라지』는 이전 시기 이원진의 『탐라지』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고 그 이후의 추가된 사항만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1954년 담수계(淡水契)라는 모임에 의해 편집 간행된 『증보탐라지』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지리지 체제와 다르게 저술되어 있다. 상당 부분의 내용을 이전 시기의 지지에서 채록하였으나 전체의 항목이 당시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항목을 보면, 지리·연혁·기상·풍속·구획·관공서·교통·교육·종교·산업·언론기관·사회단체·산업기관·금융기관·인물·관풍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항목 구성이 전통적인 지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실제 내용상에 있어서도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의 변화된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지역의 변화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제주의 여행기, 풍토기, 일기, 역사서 등이 다양하게 남아 있는데, 김정희의 『제주풍토록』(1521년경), 임제의 『남명소승』(1578년경), 김상헌의 『남사록』(1601년경), 이건의 『제주풍토기』(1628~1635년), 이익태의 『지영록』(1696년경), 김성구의 『남천록』(1679년경), 이증의 『남사일록』(1680년경), 이원조의 『탐라록』(1843년경), 김윤식의 『속음청사』(1901년경), 김석익의 『탐라기년』(1918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의 대표적인 지지에서 표현된 한라산에 대한 기술을 인문과 자연의 몇 유형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지지에 기술된 한라산 인식

한라산의 지명과 상징적 의미

한라산의 지명은 주로 산의 형상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한라산의 지명과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한라산(漢拏山)은 고을의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한라(漢拏)라고 말하는 것은 운한(雲漢 은하수)을 끌어당길 만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무악(頭無岳)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圓山)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주도를 진호하는 진산으로 한라산을 인식하고, 화산폭발로 형성된 순상 화산이라는 지형적 특색으로 인해 한라, 두무악, 원산으로 불린 것인데, 이러한 서술은 이후 지지에서조차 인용된다. 이원진의 『탐라지』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한라라고 한 것은 하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무악이라고도 하는데 봉우리가 평평하기 때문이다. 원산이라고도 하는데 활 모양으로 구부러져 가운데가 높고 사방 주위는 차차 낮아진 형상으로 둥글기 때문이다. 부악(釜岳)이라고도 하는데 물을 저장하는 그릇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한라산 인식과 더불어 분화구인 백록담의 형상으로부터 부악이라는 지명을 추가하였다. 한라산의 상봉인 화산체에 백록담이라는 커다란 분화구가 솟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 더불어 신선사상과 관련된 한라산 지명을 들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은 한라산을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이라 한 것이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이나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한라산을 영주산이라 하고 있다. 삼신산은 중국의 사서인 『사기』에 나오는데, 중국의 동쪽 발해에 있는 신선이 사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말한다. 이 삼신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금강산은 봉래산, 지리산은 방장산, 한라산은 영주산이라 불리어 왔다.

신선사상과 관련된 한라산의 지명으로는 동무소협(東巫小峽)을 들 수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고기」에 이르기를 한라산의 한 이름은 원산, 곧 원교산(圓嶠山)이고 그 동쪽이 곧 동무소협인데, 신선이 사는 곳이다. 그 동북쪽에 영주산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탐라를 일컬어 동영주(東瀛洲)라고 한다.”고 하여 한라산이 신선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에 저술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은상의 「한라산등반기」에도 원산을

오신산 설화에 나오는 원교산을 말하는 것이라 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신선사상과 관련된 한라산의 지명으로 ‘소천태산(小天台山)’이라는 이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에는 숨겨진 경치와 신비스런 곳이 금강산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천태산은 하늘과 땅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천중산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오악 사상과 관련된 산이다. 신선사상을 반영하는 다른 지명으로는 방암이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형상이 네모반듯하여 사람이 다듬어 만든 것 같고, 바위 아래에 향부자가 군락을 이루어 향기가 온 산에 가득하고 관현악을 듣는 것 같이 황홀해서 세속에서 전하기를 신선이 항상 노는 곳이다.”고 했다.

이러한 신선사상과 관련하여 한라산은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김정의 『제주풍토록』에서는, “한라산 정상에서 남극의 노인성을 굽어 본다.”라고 했는데, 오직 한라산과 중국의 남악인 형산(衡山)에서만 이 별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는 춘분과 추분에 날씨가 활짝 개이면 반쯤 볼 수 있다 하였는데, 절제사 심연원(沈連源)과 토정 이지함(李之暉)이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성을 보았던 이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는 한라산에서 노인성을 볼 수 없었는데 속세의 인연이 남아 있는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밤에 스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노인성에 미치자 스님이 말하기를 “이 곳에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늦가을과 이른 겨울에 노인성이 새벽 밝아 올 무렵 남극 쪽에서 겨우 몇 길쯤 나왔다가 진다고 하는데, 유다른 별이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노인성에 대한 전설은 한라산의 신선사상과 결부되어 상징적 차원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굳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라산에 대한 상징적 의미 부여는 전통적인 풍수사상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했다. 풍수에서는 원래 산을 용으로 보기 때문에 물을 만나면 나아가지 못하고 멈춘다고 되어 있다. 남쪽의 명산 한라산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한라산과 육지의 기맥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는 원래 기맥이 있던 것이 바람과 파도에 의해 무너지고 뚫어진 것으로 보았다. 벽해가 상전이 되는 이치에 비유한 것이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도 이와 비슷한 풍수적 인식을 볼 수 있다. 그는 유명한 풍수사인 남사고(南師古)의 말을 인용하여 한라산도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기맥이 바다 속으로 이어져 솟아난 것으로 인식하였다.

최익현의 『유한라산기』에 의하면, “백두산에 시작하여 남으로 달려 4천리에 영암의 월출산이 되고 또 남으로 달려 해남의 달마산이 되고, 달마산이 바다 건너 500리를 건너뛰어 추자도가 되고 또 500리를 건너뛰어 한라산이 되었는데, 이 산은 서쪽 대정에서 일어나 동쪽으로 정익에서 그치고 중앙에 솟아 절정이 되었다.”고 하여 백두산의 맥이 한라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한라산에 대한 풍수적 인식은 전체 한라산의 형상에 대해서도 독특한 해석을 덧붙였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는 “산이 높고 정수리가 움푹 들어갔으며 지면이 오목하고 발쪽(바닷가에 접한 쪽)이 들려졌는데, 이 한라산은 한가운데가 우뚝 솟아 있고 여러 오름들이 별처럼 여기저기 벌리어 있으니, 온 섬을 들어 이름을 붙인다면 연잎 위의 이슬 구슬의 형국이라 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한라산의 서쪽이 머리가 되고 동쪽이 발이 된다고 보았다.

최익현의 『유한라산기』에서는 한라산의 형국을 보다 세밀하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산의 형국이 동은 말, 서는 곡식, 남은 부처, 북은 사람의 형상이라 했다. 이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세가 형세를 따라 마치 달리는 것은 말과 같고, 절벽이 죽 늘어서서 두 손을 마주잡고 읊하는 듯한 것은 부처와 같고, 들판에 흠어지고 널려 있는 것은 곡식과 같고, 북쪽을 향해 감싸 안은 것은 사람을 닮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말은 동쪽에서 생산되고 불당은 남쪽에 모였고 곡식은 서쪽이 잘 되고 인걸은 북쪽에서 많이 난다고 했다.

이러한 형국의 해석은 다분히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건강부회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지역의 형상과 이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한라산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간의 독특한 풍토적 차이가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신선사상, 풍수사상 등이 결부되어 명산으로 인식된 한라산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산천 제에서는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명산대천은 사전(祀典)에 올려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라산은 사전에 등재되지 못했던 것이다. 『남환박물』을 저술한 이형상 목사도 이와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에 한라산을 소사에 등재시켜 제사를 지내도록 요청하였다. 즉, “한라산은 해외의 명산으로 중국에서도 이름이 높다. 치악산이나 감악산과 같은 소소한 산도 사전에 올라있는데 한라산이 등재되지 못한 것은 예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조선의 전례(典禮)는 오례의를 전용하였는데, 오례의가 편찬·완성된 것은 성화 연간(1497년 성종 5)이므로 그 때 제주도가 잠시 순종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여 완전히 내복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여 사전에 누락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형상 목사의 이러한 요청은 이후 조정에서 받아들여 치악산, 계룡산 등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산에 준하여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한라산의 지형과 지세

한라산은 순상화산으로서 정상부에서 사면이 완만하게 이어져 섬 전체가 하나의 산으로 보인다. 멀리서 보면 험준하지 않은 온순한 산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산 안으로 들어오면 험준한 기암절벽과 계곡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의 형세를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산의 전체는 험준하지 않은 것 같고 바다 가운데의 섬이어서 높게 솟아있지 않은 것 같다. 마치 원야 속에 우뚝하게 선 뒀와 같아서 특별히 험난할 것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나아가 기어 오르면서 그 속을 다녀본다면 높고 날카로운 바위와 낭떠러지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골짜기와 동학은 곤륜산의 둔덕과 판동의 골짜기와 유사하여 세속을 떠난 정결하고 기이한 맛이 많다. …중략… 산의 능선이 서로 얽혀 달리며 몇 번이나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끝내 돌아보며 합쳐진다. 골짜기가 쪼개어진 곳은 바닥이 파여 내려가서 그윽하고 길며 또 좁았다가 넓어진다. 높고 낮은 것이 뒤섞이고 깊고 얕은 것이 아득히 어지럽게 하늘과 해를 가리었으니 사방을 분간할 수 없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도 “그 형국을 바라보니 처음에는 버팀 다리가 없이 뭉쳐서 온 산이 모두 첩석(疊石)이었는데, 세월이 오래면서 하천의 바닥과 산의 골격이 자연히 노출되어 언덕이 되고 골짜기 모양이 되니 모양새 맛이 하나같지 않고 기괴한 암석과 깊숙한 낭떠러지도 마찬

가지다.”라 하여 단순하지 않은 한라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한라산의 지형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오름에 대한 기술도 보인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오름에 대해, “표면 지세는 완만히 구부러져 있는데 산봉우리는 뾰족함이 없고 정상은 깎이여 고인 못이 많으니 평지가 솟아올라 산이 된 것 같고, 산맥은 사방으로 뻗어서 범이 달리고 거북이가 웅크린 모습처럼 보인다.”고 묘사하였다. 화산 폭발시 용암의 일부가 산록의 균열을 따라 분출하면서 형성된 작은 화산인 오름들을 예리하게 관찰한 것이 돋보인다. 김정의 『풍토록』에 의하면, “비록 구름이 있되 모두 외따로 떨어져 우뚝하나 머리와 둘러 험한 형세는 없고, 오직 거악이 하늘 가운데 우뚝 솟아서 눈에 거리길 따름이다.”고 하여 오름들 사이로 백록담이 솟아 있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하얀 사슴들이 물을 먹는 곳이라고 하여 불려진 백록담은 여러 문헌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한라산 정상부의 봉우리 형세가 절벽과 같이 서 있어서 보기에 용출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화산 폭발로 형성된 순상화산의 이미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또한 백록담의 구체적인 형상을 기술하였는데, “구덩이 같이 함몰되어 못이 되었고, 둘레는 7, 8리 가량 된다. 물은 유리와 같고 깊이는 측정할 수 없다. 못 가에는 하얀 모래와 풀들이 있다. 그 높고 큰 형상과 돌이 쌓인 모양이 마치 무등산과 같다.”고 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정상은 함몰하여 내려앉은 것이 꼭 솔 속과 같다. 동쪽 가에는 높고 낮은 바윗돌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사면에는 향기로운 넝쿨풀로 온통 뒤덮여 있는데, 가운데에 두 개의 못이 있다. 얕은 곳은 종아리가 빠지고 깊은 곳은 무릎까지 빠진다. 대개 근원이 없는 물이 여름에 오랜 비로 인하여 물이 얕은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못을 이룬 것이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임제의 『남명소승』에서는 물 깊이를 측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실제 경험을 해 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이증의 『남사일록』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백록담의 깊은 곳이 겨우 한 길이고 여름철에는 빗물이 새어 나갈 곳이 없으니 모여서 못이 되지만 가뭄에는 바짝 마른다.”고 했다. 백록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김성구의 『남천록』에도 백록담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남사록』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기술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또한 백록담이라는 못에 대해서도 어떤 이는 하나, 어떤 이는 두 개의 못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못에 물이 많이 고일 때는 하나의 못으로 되었다가 가뭄이 들어 물이 고갈되면 못이 두 개로 분리되기 때문이 생겨난 말들이다.

백록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묘사는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상봉은 하나의 가마솥과 같다. 큰 바다 속에 높이 버티어 솟았다. 사방은 봉만(峰巒)으로 둘러싸여 솔 같기도 하고 성곽 같기도 하다. 둘레는 10여 리나 되고 깊이는 8백 척이 되는데 아래에 백록담이 있다. 직경은 400보이고 수심은 수 길에 불과하다. 물이 불어도 항상 차지 아니하는데, 원천(源泉)이 없는 물이 고여 못이 된 것이다. 비가 많아서 양이 지나치면 북변 절벽으로 스며들어 새어나가는 듯하다. 고기도 없고 풀도 없으며 못가에는 모두 깨끗한 모래뿐이다. 다만 못 곁에 조개껍질이 있는데 괴이하다. 공조(貢鳥)가 물어다 놓은 것이 아닐까 한다.

이처럼 『남환박물』에서는 백록담 분화구의 형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분화구 전체의 둘레, 분화구의 깊이, 백록담이란 못의 직경과 수심 등에 대

한 수치를 세밀한 관찰에 의해 얻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못 주변에 조개껍질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궁구해 보았지만 공조(貢鳥)라는 상상 속의 새가 물어다 놓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당시 과학의 수준으로는 해저 지형에서 화산 폭발로 섬이 형성된 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남환박물』에서는 한라산 산정부를 상봉(上峰)이라 하고 상봉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혈망봉이라 했다. 혈망봉은 봉우리에 하나의 구멍이 있어서 이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지도상에 이러한 지명이 표시되지 않아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혈망봉과 더불어 한라산 정상부에 있는 또 하나의 경관으로는 방암(方巖)을 들 수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형상이 네모반듯하여 사람이 다듬어 만든 것 같으며, 바위 아래에 향부자가 균락을 이루어 향기가 온 산에 가득하고 관현악을 듣는 것 같이 황홀하여 세속에서 전하기를 신선이 항상 노는 곳이라 한다.”고 쓰여 있다. 한라산 분화구 정상에 있는 평평한 바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백록담과 더불어 한라산의 중요한 자연경관으로 지지에 기술되는 것은 빼어난 경치를 지닌 영실이다. 갖가지 기묘한 형상의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다. 이 곳의 기암절벽은 그 형상 때문에 오백장군, 오백나한, 천불봉 등으로 불렸다.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영실을 오백장군동이라 했는데, 층을 이룬 바위들이 옥과 같은 병풍을 만들고 그 사이로 세 갈래의 폭포가 쏟아져 섬 중에서 제일의 동천으로 평했다. 김상헌은 『남사록』에서 영실의 기암절벽은 부처들이 마치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서 천불봉이라 했는데, 오백장군이라는 말은 임제가 가장 먼저 붙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그는 한쪽면에 있는 설산을 금강산의 중향성(衆香城)에 비유했다.

영실에 대한 보다 세밀한 묘사는 『지영록』의 영주십경도에서 볼 수 있다. 기록에는, “기암괴석이 나열되어 있는데 장군이 칼을 찬 것, 미녀가 쪽을 진 것, 종이 절을 하는 것, 신선이 춤을 추는 것, 호랑이가 걸터앉은 것, 봉황이 날아오르는 것 등 각종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오백장군굴, 천불봉, 또는 행도굴이라 한다. 한라산이 석산이므로 산기슭도 장엄하지만, 유독 이 한쪽면의 영봉은 옥을 배열한 듯 마치 풍악의 모양을 닮았고, 또한 성벽과도 같아 이채롭다.”고 묘사되어 있다. 영실기암절벽의 수려함이 마치 금강산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백록담, 영실 등의 주요 자연경관과 더불어 주변 오름들의 특성에 대한 기술도 간혹 보인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장울악은 고을의 동남쪽 45리에 있는데, 수장울·화장울·음장울·초장울 네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평평하고 넓은 것은 수장울로서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는 못이 있어 지름이 50보나 되며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 그 옆에는 바다의 조개껍질이 쌓여 있는데 바다새가 물어다 놓은 것이다.”고 한다. 이러한 장울악에 대한 인식은 후대의 지지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종종 인용되었다.

한라산의 기후와 토양

한라산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기후가 다르다. 또한 섬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지역간에도 차이가 있다. 해안지대와 같은 평지에 비해 일기도 변화무쌍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후에 대한 지지의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초기의 대표적인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5월에도 눈이 있고 털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여 평지보다 추운 기후적 특성을

명시하고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 의하면, “매해 봄과 여름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항상 비가 내리고 갠 날이 적는데 산남이 더욱 심하며 가을과 겨울에 이르러 개게 된다. 또 폭풍이 많고 눈 깊이가 10척이 넘는데 산북이 더욱 심하다.”고 하여 산남과 산북의 기후적 특성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남동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여름에는 산남에 비가 많이 내리고,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겨울에는 산북이 춥고 눈도 많이 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임제의 『남명소승』에도 한라산 북쪽은 항상 북풍이 강하게 부는 반면 산 남쪽은 북풍이 없어서 땅이 한층 따뜻하고 장기(瘴氣)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라산이 북서풍을 차단하여 산남이 겨울에 훨씬 따뜻한 반면,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남동풍으로 인해 북쪽보다 습도가 높아 습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기가 더 많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기후의 지역차와 더불어 한라산의 변화무쌍한 일기 변화를 기술하기도 했다. 이원조의 『탐라록』에는 “산을 유람하려면 점을 쳐야 하는데 점을 치지 않으면 구름 기운이 못 부리를 덮어 버려 심지어 보이지 않기도 한다. 비록 점을 쳐도 왕왕 골짜기의 안개가 솟아 올라 잠깐 사이에 산이 가려져 버린다.”고 하여 일기변화가 심한 한라산의 기후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임제의 『남명소승』에서도 “사람들이 이 곳에 놀러 오면 연일 소나기 비가 내리는데 오늘과 같이 맑게 개인 날은 드물다.”고 하여 청명일수가 적은 한라산의 기후를 표현하고 있다.

한라산의 토양에 대해서는 극히 단편적인 기록만이 전하고 있다.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산 위의 돌들은 모두 적흑색인데 물에 담그면 뜨니 괴이하다.”고 하여 화산 쇄설물인 부석(浮石)의 특성을 몸소 실험해서 체득했다. 물에 뜨는 돌은 용암이 폭발 분출할 때 압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부피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가스가 빠져나가 형성되는 다공질 쇄설물로 제주에서는 ‘송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는 직접 시험해 보았더니 물에 가라앉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모든 송이가 물에 뜨는 것은 아니고 무겁고 비중이 큰 송이는 물에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도 “흙색은 검붉으니 거의 불 속에서 구워진 벽과 같다. 『남사록』에서는 겁회(劫灰)에 비교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다. 아마도 극한과 극열로 구름이 증발하고 안개가 끓어서 토맥이 자연히 그 성질을 잃은 것이다.”고 하여 토양의 성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상헌이 주장한 겁회는 세계가 파멸할 때에 일어나는 큰 불의 재를 말한다. 김상헌이나 이형상 모두 뜨거운 열이 가해져 형성된 토양이라는 점에서는 형성원인에 대한 파악이 서로 비슷한데, 당시 화산암 토양에 대한 이 정도의 이해는 탁월한 식견이라 할 수 있다.

한라산의 생물

생물에 대한 지지의 기술은 동물보다는 식물에 치우쳐 있다. 다양한 식물상이 분포해 있는 환경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식물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형상의 『남환박물』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한라산의 각 지역에 따른 식생의 분포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먼저 한라산에 우거진 숲(곶)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큰 것은 50, 60 리이고 작아도 10여 리 이상이다. 교목이 하늘 높이 솟아서 햇빛을 가리고 바람을 막으며 넝쿨과 등과 칩들이 감기고 얽히어 널리 퍼져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식물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4월 15일에 한라산 밑에 가니 영산홍이 펼쳐져 붉은 꽃이 만발하였다. 가는 길에 소나무와 대숲이 우거져 있고, 계곡에는 푸른 풀더미와 잡목이 하늘을 가렸다. 이들은 동춘백, 산유자, 이년목, 영릉향, 녹각, 소나무, 비자, 측백, 황백, 적률, 가시울, 용목, 가죽나무, 뽕나무, 단풍나무, 칠나무, 후박나무 등이다. 가끔 인적이 미치지 못한 언덕에는 반송과 가는 잔디가 산뜻하다. 간간이 나무가 서 있는데 5, 6길이 되는 향나무이고 땅에 깔리어 있는 것은 한 자 정도 되는 면죽(綿竹)이다. 장대와 같은 전나무도 네댓 아름이나 된다. 흑 만향과 철쭉이 바위틈에 둘러여 이어져 있는데 맑고 깨끗하여 반분에 심은 것과 같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가는 대(조릿대)들이 뻗뻗하고 무성하여 흙땅을 한치라도 볼 수 없는데 이들은 길어야 한 자 정도 된다고 했다. 존자암에서 산정부로 가는 길에는 소나무와 이깔나무, 박달나무가 그늘을 이루어 무성하다. 중봉(中峰) 이상에는 소나무가 없고 오직 단향(檀香)과 철쭉 밑에 눈과 같은 흰 모래를 볼 수 있을 뿐이다.”고 하여 고도별 식생의 분포를 세밀히 관찰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해발 1,700m에 이르는 교목삼림지대와 해발 1,700m 이상 관목림이 형성된 고산지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고도별 식생의 분포를 좀더 세밀하게 기술한 것은 근대적 지지의 성격이 강한 1954년의 『증보탐라지』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한라산 정상에서 4km 내외는 진백지대(眞柏地帶), 이 아래로는 측지대(裊地帶) 수십 만평, 그 아래 4km 가량은 본도 땃목의 재료로 쓰이는 구향목지대(구상나무), 그 아래 8km까지는 졸참나무, 앵두나무, 단풍나무 등의 거목이 울창한 대삼림지대인데, 동남서의 삼면은 버섯재배지대이고, 이 아래로는 과거의 목장지대로 기술되어 있다. 고도에 따른 식생의 분포가 각 지대별로 보다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원조의 『탐라록』에는 “점차 수풀 사이로 들어가자 옥구슬같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있었다. 겨우살이, 금령, 소리쟁이, 광나무 열매들은 모두 육지에서 희귀한 것들이다. 숲이 끝나자 온 땅에 고죽(苦竹, 조릿대)이 가득 차 있었다. 땅을 덮고 있는 넝쿨에는 영주실이라는 검은 열매가 있었다. 서남쪽 대정현 경계로 내려오는데 깎아지른 절벽에는 향나무들이 덮여 있었다. 굵은 아름드리 밑둥 줄기들이 한쪽으로 쏠리어 굽어져 있었다. 위는 말라 있었고 아래로는 푸른 색깔이었다. 겨울과 봄에 눈에 짓눌리어서 생기가 퍼져 있지 않았다. 그 사이로 철쭉들이 많았는데, 키가 1척이 안되고 가지가 많아 땅을 덮고 있으므로 마치 방전(方氈)과 같았다.”고 기술되어 당시 한라산의 식생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김성구의 『남천록』에는 “총죽이 있고 자단 향목과 뒤섞이어 절벽 아래까지 뻗어 있다. 진귀한 나무로는 영릉향, 산다, 산유, 노가리, 송목, 비자, 측백, 황백, 동백, 칠, 적률, 가시울, 도토리, 이년목 등이 있다. 여러 식물이 한데 어우러져 무성하고 가지가 얽혀서 그늘을 이루었는데 사철 푸르고 인적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식물들을 주로 제시해 놓았다.

일부의 기록에는 한라산 산정부의 식생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도 한데, 최익현의 『유한라산기』에는 상봉에는 초목이 나지 않고 오직 푸른 이끼와 덩굴만이 바위에 깔려 있다고 되어 있다. 화산쇄설물로 덮여 있는 한라산 정상부의 식생을 묘사한 것이다.

한라산에 서식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다. 한라산에는 예로부터 사나운 짐승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직 멧돼지와 사슴 정도가 주요 산짐승으로 인식되었다. 서식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이형상의 『남한박물』에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기록에는 날짐승으로 매·꿩·까마귀·접동새·제비·참새·갈매기·백로·두루미·두견새·앵무새·기러기·올빼미·부엉이가 있고 황새와 까치는 없다고 하며, 짐승으로는 살췍이·오소리·돼지·사슴이 있고, 호랑이·표

범·곰·큰곰·승냥이·이리·여우·토끼 등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현재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 노루는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사냥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탐라순력도』의 「교래대렵」을 보면, 이 날 사냥하여 포획한 동물로 사슴 177마리, 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꿩 22마리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노루도 사슴과 더불어 한라산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슴에 대해서는 백록이 지나는 상징성 때문에 다른 동물에 비해 약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여름 밤이면 골짜기에 사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데 사슴 무리가 천백이나 되지만, 흰 사슴은 한라산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였다. 전 절제사가 포위하여 잡을 때 한 쌍을 잡았지만 죽었다고 한다.”고 하여 백록이 매우 희귀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목사 양사영과 목사 이경록 재임 시에 사냥꾼이 하얀 사슴을 잡은 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식물과 동물 이외에 버섯류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산 위에는 지초(芝草)가 덩굴로 나서 땅에 붙어 있다. 줄기에는 세모(細毛)가 있는데 색은 청태(靑苔)와 같다. 그 뿌리는 마디에 따라 생기는데, 큰 것은 비녀가락만 하고 가는 것은 실오라기와 같다. 맛은 달고 향기가 있는데, 비록 영지는 아니라도 영지의 종류일 것이다.”라 하여 영지버섯과 유사한 버섯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라산의 인문경관

한라산의 중산간지대 이상의 지역은 인간의 거주가 드문 지역이었기 때문에 잔존하는 인문경관도 많지 않다. 인문경관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목마장이 대표적이고 화전을 행하는 화전촌락이 일부 남아 있다. 목마장과 화전촌은 지도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제외한 인문경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라산에 존재했던 인문경관 중에서 지지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존자암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한라산의 서쪽에 있고 골짜기의 돌이 마치 중이 도를 닦는 모습이라서 수행동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원진의 『탐라지』(1653)에는 한라산 영실에 있던 것이 서쪽 기슭 바깥 10리쯤 되는 대정현 구역으로 옮겨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1601년경 김상헌이 한라산을 오를 때에는 암자에 스님도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이 9칸이고 지붕과 벽은 기와나 흙 대신 판자를 썼다고 한다. 당시 기와를 구하기가 힘들고 산중에 있는 흙은 점성이 없어서 바르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절의 지세도 풍수서에 맞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남사록』에서 말하고 있는 존자암은 영실에서 서쪽으로 옮겨진 새로운 절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발굴 복원된 존자암이 바로 그것인데 절의 입지도 다분히 풍수지리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존자암은 처음의 자리에서 16세기경에 서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헌의 뒤를 이어 1609년 한라산을 올랐던 판관 김치의 『등한라산기』에도 “암자가 판자집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8, 9칸 정도로 띠로 덮여 있었다.”고 하여 『남사록』의 기록과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79년경의 『남천록』의 기록에는 암자는 퇴락한 지 오래고 터만 남아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이미 폐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96년경의 『지영록』에도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부서진 지붕과 몇 개의 기둥뿐이었고 임시로 지은 집이 더 있었는데 등산했을 때 점심을 해먹는 곳이다.”라 하여 더 이상 사찰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었다. 존자암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인문경관은 수행동이다. 원래의 존자암이 있던 곳으로 이 곳에는 수행굴이라는 석굴이 있었다. 『남사록』에는 “굴 속은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고 옛날 고

승 휴량(休糧)이 들어가 살던 곳이라 한다. 근처에 칠성대와 좌선암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1609년 김치의 한라산 등반기에도 석굴에 부서진 온돌만이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당시 거주하는 스님이 없고 혈린 온돌 몇 칸만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존자암이 서쪽으로 이전된 후는 수행 공간으로 이용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존자암과 수행굴 이외에도 불교와 관련된 인문경관으로 두타사가 있었다. 이 사찰에 대한 기록은 임제의 『남명소승』에 나오는데, 한라산의 상봉을 따라 내려와 남쪽으로 돌아가면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두 계곡 사이에 있어서 쌍계암이라고도 한다.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도 천불봉과 혈망봉의 봉우리 밑에 있는 못에 두타사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현재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한라산에는 군사시설과 관련된 인문경관도 기록에 보이는데, 지금의 왕관암에 있었다고 하는 연대가 그것이다. 『남환박물』에 의하면, “여기에 하나의 봉수대가 있어서 해남의 백량(白梁)으로 완급을 전달했으나 해무가 항상 자욱하므로 지금은 험파하였다.”고 한다. 최익현의 『유한라산기』에도 “서쪽으로 가니 깎아지른 절벽이 수천 길인데 이른바 삼한 때의 봉수 터라하나 증험할 수는 없다.”하여 과거 연대가 있었던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언제 설치되어 운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삼한시대보다는 제주가 중앙의 행정제도로 포섭되는 고려 중기 이후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한라산의 인문경관으로 중시되었던 것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무엇보다 한라산과 관련된 제사는 산신제다.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래된 전통으로 고려시대에도 한라산신을 ‘제민(濟民)’이라 봉하고 춘추로 치제하여 국태민안을 빌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때 산천사전제(山川祀典制)가 확립되는데, 한라산은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는 소사(小祀)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의 사전제가 고려시대의 것을 답습하였기 때문에 한라산이 누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산신제는 거의 없었고 비정기적으로 일부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도, “한라산은 해외에 있는 명산이지만 사전에 실려 있지 않아서 상시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로 인해 김상헌에게 향축을 내려 보내 별도로 제사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보더라도 조선시대 17세기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인 한라산 산신제를 거행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민간에서 산신제가 활발하게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한라호국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광양당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의 기록에 의하면, “한라산신의 아우가 살아서 성덕이 있었고 죽어 신이 되었는데, 고려 예종 때 송나라 술사 호종조(또는 호종단)가 그 나라의 왕명을 받고 거짓 고려에 귀화하여 고려 명산을 돌아다니며 혈을 자르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혈까지 자르고 배를 타고 돌아가다가, 신이 매로 변하여 돛대 위를 나니 별안간 폭풍이 불어 호종조의 배를 쳐부수고 비양도 바위 사이로 몰아넣어 죽게 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그 영특함을 표창하여 식읍을 하사하고, 광양왕으로 봉하여 해마다 향과 폐백을 내리어 제사 지내게 하였으며, 조선왕조에 와서도 제주목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702년(숙종 28) 이형상 목사는 이를 음사(淫祀)라 하여 폐지시켰다.

이형상 목사는 민간에서 행해지던 산신제를 혁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한라산 산신제를 지내도록 조정에 요청하였다. 조정에서는 한라산이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등재되지 않아서 산신제가 행해지지 않는 문제를 인식하고는 다른 명산대천의 예에 따라 봄, 가을(2월과 8월)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비로소 한라산 산신제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행되게 된 것

이다. 영조 연간의 『증보탐라지』에 의하면, “산신제를 처음에는 백록담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눈이 많이 오면 올라갈 수 없어 산 중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이후 소림과원 안에 사묘를 건립했다.”고 하는데, 소림사(小林祠)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제주대학교 부근의 산천단에 있었는데, 현재는 제단만 남아 있고 사묘는 없어져 지명만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원조 목사의 『탐라지초본』(1843년경)에는 “원래 한라산신제를 한라산 정상에서 지냈으나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 1470년 이약동 목사가 지금의 장소로 옮겨 제단을 설치하고 산신제를 지내게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은 1954년의 『증보탐라지』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서 최근 간행되는 여러 서적에서도 무비판적으로 전제되고 있다. 1702년 지금의 산천단 자리에 이형상 목사가 소림사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병충해를 관장하는 포신(瞎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포신묘가 있었다. 따라서 『탐라지초본』의 기록은 좀더 면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백록담의 북쪽에 기우단이 있었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이는 산천단에서 거행하는 한라산신제와는 다른 것으로 날이 가물 때 비정기적으로 지냈던 제사다. 김성구의 『남천록』에는 “백록담의 북쪽 모퉁이에 단이 있는데 본주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기우제뿐만 아니라 한라산 정상에서 행해졌던 산신제도 이 제단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한라산의 인문경관으로 얼음 채취와 관련된 내용을 들 수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따르면, 한라산의 바위굴 안에는 얼음이 여름에도 녹지 않아 이를 잘라와 사용하고 별도로 창고에 보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건의 『제주풍토기』에서도 “한라산 상봉에는 삼복 더위에도 얼음과 눈이 있으므로 매년 여름철에는 장정을 징발하여 돌아가면서 산에 올라가 얼음을 캐어 와 관가의 공물로 쓰게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강정효의 『한라산』에서는 관음사 위쪽의 구린굴이 얼음을 보관했던 장소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영조 때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보탐라지』에는 “어승생악 동쪽 바위 계곡 사이의 빙담(氷潭)에는 여름이 지나도 얼음이 녹지 않으므로 고을 사람들은 얼음을 저장하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서 취용했다.”고 하여 구체적인 장소를 기록하였다. 또한 1709년의 『탐라지도병서』의 기록에서도 빙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빙담은 어승생악 남쪽 계곡 아래에 있는데, 계곡의 돌들이 수백 보에 펼쳐 있고 맑은 물줄기가 급하게 흘러간다. 그 위에 폭포와 못이 하나가 있고 좌우로는 암석과 수목이 섞여 있어서 앗을 만하다.”고 되어 있다. 빙담의 구체적인 형상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제3장

한라산지의 개념과 지리적 함의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한라산(해발 1,950m)은 제주도민들의 정신세계와 일상 생활 그리고 전통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산이다. 예로부터 제주도민들은 의식주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산을 백록담을 정점으로 하는 한라산지(漢拏山地)에서 구했으며, 정해진 일생이 다하면 한라산지로 귀향하였다. 따라서 한라산지는 제주도민들의 생명이 탄생되는 무대요,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주도민들은 한라산지가 주는 자연적 혜택에 의존하여 농업과 목축생활, 임산물 채취 등을 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라산지는 신생대 제4기에 본격적으로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형태면에서 볼 때, 해안에서 한라산지를 바라보면 전체적으로 방패 모양을 하고 있는 순상화산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정상부인 백록담 부분은 마치 종을 얹어 놓은 것처럼 생긴 종상화산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한라산지는 넓은 순상화산체 위에 종상화산체가 함께 발달하고 있는 지형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한라산지에서는 위치에 따라 편 현상(지형조건)의 영향을 받아 공기의 온도가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며 더욱이 지형성 강수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한라산지는 다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한라산지는 제주도에 비와 눈을 내리게 하고 다시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얻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이 곳의 풍부한 목초 지대는 제주도민들에게 목축업에 유용한 목축지(牧畜地)뿐만 아니라 화전 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라산지는 다양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소라는 지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한라산지라는 명칭은 지리학적인 조어(造語)로 제주도민들에게는 다분히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그러나 육지부(한반도)에서 태백산지와 지리산지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에서도 한라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라산지의 개념정의를 위하여 먼저 산지가 갖는 보편적인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산지(mountains)란 평지·대지·구릉지에 비해 기복이 크고 급경사 부분이 뚜렷하면서도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지는 채집경제 시대의 인류에게는 중요한 거주지였으며, 해발고도가 높아 냉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산지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어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한라산지 역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연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도민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한라산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유용성을 인식한 도민들과 육지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한라산지의 토지를 점유하여 농경지와 주거지로 개척하였다. 이러한 한라산지는 지리적으로 볼 때 대체로 한라산 산록부(山麓部, 해발 200~600m)와 산정부(山頂部, 해발 600m 이상)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산록부는 중산간지대에 해당하는 개념어로 주민생활의 무대인 촌락과 교통로 등이 위치하는 곳이다. 또한 이 곳에는 목축생활의 토대인 자연초지와 산지농업의 토대인 농경지가 발달하고 있다. 산정부는 산악지대와 일치하는 개념어로 이 곳에는 한라산의 중심화구인 백록담이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고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다. 특히 해발 600m

이상의 산정부에는 일부 환경사면이 발달하여 일찍이 제주도민들은 여름 농사가 끝나면 우마를 이끌고 이 곳으로 올라와 방목을 하기도 했다. 이를 제주도민들은 '상산(上山) 올리기'라고 했다. 해발고도가 높은 이 곳은 진드기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방목지로 적당했다.

한라산지 곳곳에는 다양한 '휴먼 임팩트(human impact)'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한라산지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도민들이 한라산지의 특정 장소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여기에는 삼림환경을 이용한 숲 굽기와 버섯 재배, 화전농업 그리고 자연초지에 남겨 놓은 목축 시설들(관리사, 급수통), 주민생활의 근거지인 촌락 및 마을간 교통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 한라산지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정책에 영향을 받아 골프장, 승마장, 펜션(pension) 등 현대적 휴먼 임팩트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한라산지는 이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 즉 전통적으로 목축업과 화전농업의 흔적 및 현대적 관광기능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한라산지에 새겨진 대표적인 휴먼 임팩트는 촌락(마을)과 교통로(도로)다. 이 중 촌락에는 한라산지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생활상(의식주)과 그 변화 모습이 응집되어 있다. 따라서 한라산지에 성립된 촌락에 대한 검토는 한라산지에 들어온 이주민 집단이 어떻게 한라산지의 자연환경을 인식했는지를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라산지에서 촌락이 형성되는 과정과 토지이용 모습, 그리고 경관변화를 읽어냄으로써 제주도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라산지의 환경에 적응했으며 그들의 공간적 점유과정, 즉 삶의 터전과 활동 범위의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한라산지가 시작되는 기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조선초기 해발 150~250m 일대에 형성되어 현재도 일부가 남아 있는 하жат성으로부터 보고자 한다.¹⁾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공간 범위는 하жат성부터 시작하여 해발 600m까지인 한라산 산록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은 평지와 산지의 접촉부분으로 촌락과 교통로 및 목초지와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주민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촌락들을 혈관처럼 연결하고 있는 교통로는 마을간 또는 지역 간을 유기적으로 이어 주는 통로이자 물자와 인구이동을 촉진하는 동맥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한라산 산록대에 입지한 촌락과 교통로를 대상으로 촌락의 성립 배경과 입지 요인 및 경관 변화 양상, 나아가 촌락의 성립과 변천에 영향을 미친 교통로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촌락의 분포와 성립 배경

조선시대 제주도에 왔던 임제(林悌, 1578)와 김상헌(金尙憲, 1601)은 한라산의 비경에 경탄한 나머지 한라산을 ‘신선들이 집 짓고 사는 마을’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 다양한 기후 현상과 지형환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한라산 산악지대가 마치 신선들이 사는 세계와 비슷할 것이라고 상상한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임제와 김상헌이 반할 정도로 한라산은 그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육지부 사람들에게는 신선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라산 산록대 역시 제주도민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곳이었다. 따라서 용천수가 존재하고 있는 해안에 터를 잡아 살던 선주민들도 점차 한라산지가 주는 자연적 혜택을 선점하기 위해 이 곳으로 이주하면서 주거공간이 확대되어 나갔다. 특히 목축과 화전 농업을 하려는 이주민 집단들은 한라산 산록대에 무리를 지어 정착하면서 소규모 촌락들을 만들어 나갔다.

이처럼 한라산 산록대에 촌락이 성립될 수 있었던 지리적 배경으로 이 곳은 첫째, 마을 뒤의 산지에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연료와 임산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둘째, 마을 앞에서는 망망대해 태평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주민들의 정서순화에 유리한 위치이며 셋째, 화산 활동의 결과 형성된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완경사지(용암평원)를 이용한 목축과 농경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산록대의 지리적 매력을 일찍부터 터득한 도민들에 의해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한 결과, 현재는 30여 개의 마을이 촌락유지에 필요한 적정 인구를 수용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한라산 산록대에 입지한 촌락들은 지리적으로 볼 때 산촌(山村) 또는 산지촌(山地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라산지에 입지한 대부분의 촌락들은 산간지(山間地)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임산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강원도 태백산지에 형성된 산지촌과 유사한 성격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한라산 산록대에 터를 잡은 촌락의 경우 태백산지의 산지촌에 비해 해발고도가 낮은 완경사면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해발 200~400m 일대에 분포한 촌락이 산지촌 또는 산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여러 촌락을 아우르는 뜻인 ‘한라산지 촌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학술적 연구결과 도출된 것이라기보다는 한라산 산록대에 입지하여 농목업을 행하는 촌락들을 설명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 한라산지에 입지한 촌락들은 장소에 따라 다소 생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촌락의 성립 배경과 입지 환경 면에서 지역차를 보여주고 있다.

촌락 분포의 지역차

한라산지 촌락들은 해발 200~400m 일대의 산록대를 중심으로 약 30여 개 정도 분포하고 있다. 이들 촌락들은 대체로 산남지역(서귀포시~남군)보다 산북지역(제주시~북군)에 많이 분포하여 지역차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1>. 또한 동일한 산북지역 내에서도 지역차가 나타나 제주시보다 북제주군에 촌락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아울러 북제주군 내에서도 동부지역보다 서부지역에 촌락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제주군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완경사지가 넓게 분포하여 농경지 확보가 유리하고 토질이 비옥하다는 환경 조건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성립된 화전동(火田洞)이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에 많았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해발고도 면에서 한라산지 촌락들은 해발 200~300m일대에 75% 그리고 300~400m일대에 21%가 분포하고 있어 제주도 한라산지의 경우 해발 200~400m일대에 대부분의 촌락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라산지에 입지한 촌락들의 총면적은 산록대(중산간지대) 전체면적의 0.2%에 해당하는 0.96 km²이다. 이 중 북제주군 산록대 촌락의 총면적은 한라산지 촌락 총면적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도 촌락면적의 지역차가 나타나 서부지역 산록대에는 북제주군 산록대 촌락 총면적의 44.8%에 해당하는 촌락들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동부지역 산록대의 촌락면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넓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한라산 산록대에 입지한 촌락에는 1997년의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2,200여 가구에 약 7,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수치들은 각각 제주도 전체 총가구의 2.6% 정도 및 총 인구의 1.5% 정도에 해당한다.

촌락의 성립 배경

한라산 산록대에 촌락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3C 말(고려 말) 제주도 동부지역 산록대에 위치한 수산평(首山坪) [성산읍 수산리]에 몽골(원)이 ‘탐라목장(耽羅牧場)’을 설치하면서 이의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목장 인근에 터를 잡아 촌락을 만들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 말부터는 한라산지에 촌락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산읍 수산리가 최초의 한라산지 촌락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과 같은 한라산지 촌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19C 말부터 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부터 한라산지에 설치되었던 국영목장에서 화전경작이 허용되어 일부 해안지역 주민들과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화전민들에 의해 소규모 촌락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한 것과 관련된다. 실례로 《대정군지도》(1899)를 보면, 당시 국영목장이었던 7소장 목장과 8소장 목장 아래(남쪽)에는 광평리, 상천리, 영남리 등과 같은 화전촌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라산지 촌락들은 성립시기와 기능면에서 볼 때, 대체로 목축 촌락, 원(院) 촌락, 화전 촌락, 개척 촌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촌락들의 성립 배경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한라산목장의 산물, 목축 촌락

조선시대 한라산지에 성립된 촌락들은 대부분 목축 촌락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화산활동의 산물인 용암평원과 자연초지로 대표되는 생태환경 속에서 목축을 생업으로 했던 ‘테우리’(牧子)들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만든 촌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축 촌락이 처음 형성된 시기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13C 말로 소급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몽골(원)이 제주도 동부지역 성산읍 수산리 수산평 일대에 설치한 탐라목장 [동아막]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한 목호(牧胡)들의 집단 거주지가 목장부근에 형성되면서 목축 촌락이 성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목축 촌락은 15C 초 한라산 산록대에 한라산목장(조선후기로 가면 십소장[十所場]과 산마장[山馬場]으로 대표됨)이 설치된 후 이들 목마장을 관리하기 위해 테우리들과 일반 농민들

이 목마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한라산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성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라산목장이 설치되기 전에도 한라산지에는 이미 촌락이 형성되었음을 다음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改築濟州漢拏山牧場周圍一百六十五里移民戶三百四十四…”(『世宗實錄』 권 47, 세종 12년(1430) 2월 경진). (“제주의 한라산목장을 다시 보수하였더니 주위가 165리였으며, 주민들의 가옥 344호를 이주시켰다.”)

즉, 한라산목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장예정지 내에 있었던 약 300여 민호를 목장 밖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내용을 통해 목장예정지 내에 이미 촌락들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한라산지 촌락들의 위치는 『탐라순력도』(1702), 『대동여지도』(1861), 『제주지도』(1899)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특히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에는 산장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위한 객사(客舍) 1동과 일반 가옥 12동으로 이루어진 교래리 마을이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서 산장(山場)이란 제주도 동북부 산지에 설치된 국영목장으로, 크게 침장(針場)·상장(上場)·녹산장(鹿山場)으로 구분되었다. 교래리 마을은 침장의 말들을 관리했던 마감, 테우리(목자) 등의 거주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동여지도』(1861)의 대흘촌(조천읍 대흘리)과 빈래촌(조천읍 교래리), 『제주지도』(1899)의 원동과 고평동 등은 목장과 인접하여 위치한 마을이기 때문에 모두 목축 촌락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 한림읍 금악리, 조천읍 선흘2리, 구좌읍 덕천리와 송당리, 제주시 해안동은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마사육을 생계기반으로 하는 목축민들의 비율이 높은 마을이다. 이 중 한림읍 금악리와 제주시 해안동은 광활한 목장에서 낙농업을 하고 있는 목축 촌락이다. 특히 한림읍 금악리 금오름 일대에는 1960년대부터 한림지역에서 천주교 선교활동을 했던 아일랜드 출신 맥그린치(J.P. McGlinchey) 신부가 이시돌(Lsidore) 목장을 만들어 축산기술을 전파하면서 이 일대 목축촌락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진 3-1>. 이시돌 목장을 만든 주체들은 목장 내에 목장 관리인과 근로자들이 거주할 아일랜드식 ‘삼안식(三安式) 주택’을 만들어 사용했다<사진 3-2>.

관리들의 임시 숙소, 원(院) 촌락

원(院) 촌락은 육상교통 또는 수상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입지했던 촌락이다. 여기서 원이란 조선시대에 지방으로 출장가는 관리들을 위해 민가가 드문 도로변에 설치한 숙식 시설을 말한다. 제주도의 원 촌락은 모두 조선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당시 제주목과 대정현, 정의현을 연결하는 관도(官道) 변에 원이 설치되면서 이와 함께 일반 주민들의 가옥이 함께 세워져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제주지도』(1899)에 제주목과 대정현을 연결하는 관도(현재 서부관광도로) 변 즉, 6소장(애월읍 중산간~한림읍 중산간에 설치된 국영목장의 하나)이 시작되는 지점 부근에 원동(西院)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 애월읍 소길리와 상가리에 속하며 특히 1948년에 발생했던 제주 4·3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16가구에 60여명의 주민들이 목축과 함께 모밀(메밀)·산디(밭벼)·피·콩·감자·고구마 등을 재배하며 살았으나 4·3의 회오리 속에 마을 전체가 폐동되고 말았다. 현재는 원동 터였음을 알리는 표지석이 쓸쓸하게 남아 있다<사진 3-3>.

「이 곳은 태종 16년에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삼읍이 정립할 때 원이란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당시 출장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숙식소(宿食所)를 두게 하였고, 이에 따라 5~6 채의 인가가 형성되어 농경과 목축에 종사하던 지역민들이 이 곳을 지날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갈증을 풀었다. 이 마을은 8·15 해방 때까지 남아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겐 사막의 오아시스이기도 했으나 4·3 이후 사라지고 해가 바뀔수록 도민의 생각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 인가가 있던 이 마을에 정성을 새겨 이 돌을 세운다(1990년 8월 14일 김화숙(金和淑).)」

한편, 『제주삼읍지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지영록』에 의하면, 17C 말 제주목과 정의현을 연결하는 관도(현재 동부관광도로) 변, 즉 2소장(조천읍 중산간에 설치된 국영목장의 하나) 내 것구리오름 부근에도 원동(東院)(현재 조천읍 대흘리 지경)이 있었다. 이 곳은 겨울철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것구리오름(해발 428.3m, 일명 피꼬리오름, 원오름)과 주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줄 샘(원물)이 있어 원촌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사진 3-4>. 특히 이 원동은 조선시대 국영목장인 1소장과 2소장의 중간부분에 입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장에서 방목 중인 말들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오는 점마별감(點馬別監)의 임시 거처와 우마들의 수용 시설이 있었음을 『지영록(知瀛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一所別屯兩場九字馬一千一百六十餘匹 黑牛二百八十餘首翊日午前關點後移來寶門”(일소와 별둔 양장(兩場)의 구자(九字) 낙인찍은 말이 1천1백6십여 필, 흑우(黑牛)가 2백 80여 마리였고, 다음 날 오전에 열점(關點 : 낙인찍은 것을 살핌)을 한 후에 보문으로 옮겼다.)

이에 따르면, 원동은 ‘보문(寶門-보문사라는 절 이름에서 유래)’으로도 불렸다. 그리고 진상하기 위해 선정한 우마들을 제주목 관아로 이동시키기 위해 1소장과 별둔장(소를 키웠던 황태장이라는 목장으로 추정됨 - 필자주)에서 낙인을 찍은 후 이 곳으로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이 원동에는 이들 우마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원동 터는 농경지화 되어버렸으며<사진 3-5>, 절터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유물 파편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들 원동과는 달리 촌락규모로 성장하지 못하고 단순히 원 시설만 촌락 내부에 남아 촌락의 한 구성요소가 되었던 사례도 있다. 대정현 관도(현재 중산간 도로) 변에 중문원과 정의현 관도 변에 있었던 의귀원이 대표적이다.

불을 놓아 만든 화전 촌락

화전 촌락은 해안지대와 산록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들과 한반도에서 유입된 화전민들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들은 삼림이 무성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가 소홀했던 한라산 산록대 외 자연초지 또는 이보다 더 위쪽에 위치한 삼림지를 불태운 다음, 이 곳에서 화전농을 하면서 화전 촌락을 만들었다. 1919년 당시 제주도 화전의 총면적은 2,004단보(1단보 : 300평)였으며, 1926년 당시 제주도의 화전민은 1,127호, 4,240인으로 이 수치는 충청북도보다 오히려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화전 촌락들은 육지부의 경우 첫째, 정치적 불안정기에 은신하려고 입산하거나 둘째,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피하기 위해 셋째, 무주공산에 임의로 화입하여 경작하여도 관의 제재가 없었을 뿐더러 과세부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넷째, 새로운 화전은 대개 평지의 숙전보다 비옥하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라산 산록대의 화전 촌락 역시 이와 유사한 배경에서 성립되었다. 다만 제주도의 화전 촌락은 일시적인 도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급자족형, 정착형 화전촌이라는 성격을 보여 주었다.

19C경부터 그 동안 농경이 금지되었던 목장지대 내의 삼림지에서 화전이 허용된 결과 화전촌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당시 정부는 1895년경부터 공마제도를 폐지하면서 국영목장을 방치하기보다는 목장 내에서의 화전경작을 허용하는 대신에 화전민들로부터 화전세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목장토를 이용한 화전경작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화전민과 화전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전민에게 부과되었던 화전세 징수 과정에 관리들의 가렴주구가 심해지면서 이들과 화전민간의 마찰이 빈발하여 마침내 1898년에는 화전민 방성칠(房星七)이 주동이 되어 민란(방성칠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화전민의 저항은 화전민의 양적 팽창과 화전농이 번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성립되었던 화전촌으로는 조천읍 교래리의 감발래·고영동과 애월읍 광령리 유신동과 봉성리 화전동<사진 3-6>, 안덕면 동광리 마전동과 상천리, 서귀포시 동홍동의 연자동, 남원읍 신례리의 수악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화전 촌락의 지리적 위치는 1899년에 제작된 『제주지도』에 일부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모두 9개의 화전동이 기록되고 있으며 대부분 상жат성 이상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 3-2>. 이들 화전 촌락의 위치를 1:25,000 지형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해발 500~600m 일대에 성립되어 있어 화전 촌락은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던 마을임을 알 수 있다.

현재 1:25,000 지형도에서 확인한 당시 화전촌의 대략적 위치는 <표 3-1>과 같다. 이 중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주시 오라동의 능화오름(975.5m)과 제주시 해안동의 죽은두레왓(1339.2m)을 연결하는 해발 600~1200m 일대에 위치한 화전동은 제주도의 화전 촌락 중 가장 높은 해발고도에 입지한 촌락이며, 현재까지도 능화오름과 탐라계곡 북서쪽에는 화전 촌락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능화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조천읍 교래리 제주경주마육성목장과 제동목장을 연결하는 넓은 용암평원 지대에 설치되었던 상장(上場) 목장에서 화전경작이 이루어지면서 화전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전 촌락들은 생활 공간을 한라산지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화전 촌락은 제주도의 상한(上限) 촌락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리적 의의가 있다.

제주 4·3의 상처, 복구 촌락

복구 촌락은 대부분 1950~1960년대에 걸쳐 성립되었다. 이것은 1948년에 발생했던 제주 4·3 사건에 의해 황폐화된 촌락들이 복구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된 이후, 해안지대로 소개되었던 중산간 주민들을 원래의 마을로 복귀시키는 정부의 '원주지 복귀사업'에 따라 신설 또는 재구조화된 촌락이라고 할 수 있다.

복구 촌락에는 이재민 복귀주택이 세워졌다. <사진 3-7>은 4·3 이재민 복귀주택의 모습이다. 이러한 이재민 복귀주택들이 세워진 지역은 구좌읍 송당리·상덕천리·하덕천리, 조천읍 선흘리·대흘리, 제주시 봉개동, 애월읍 금덕리, 한림읍 금악리 등 주로 산북지역에 집중되었다. 이 곳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식량과 주택, 개간농지, 가축, 농사자금을 지원받았다. 초기 복귀주택들의 외벽은 현무암으로 쌓고, 목조양식의 트러스에 함석지붕이었다. 이후 슬레이트 집으로 개량되었으며 내부 공간구성은 상방을 중심으로 방과 부엌이 있는 제주도 전통가옥의 평면구조와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복구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른바 ‘잃어버린 마을’이 발생하였다. 2003년 제주도의 조사결과 잃어버린 마을로 84곳(제주시 31, 서귀포시 4, 북제주군 35, 남제주군 14)이 확인되었다. 애월읍 소길리 원동·안덕면 동광리 무동이왓·구좌읍 덕천리 화전동 등은 대표적인 잃어버린 마을이다.

새로운 출발지, 개척 촌락

개척 촌락은 1950~1970년대에 걸쳐 형성된 촌락이다. 특히 6·25전쟁 이후 유입된 피난민들과 미개척지로 진출하려는 의욕적인 청년들에 의해 성립되었다. 특히 피난민들의 일부가(주로 기독교 신자) 정부 지원을 받아 현재의 서귀포시 상효동에 만든 법호촌(法護村)은 개척 촌락의 효시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토지를 개척하려는 제주도의 청년들은 1960년 이후 한라산지 내륙지역에 대한 개척을 시도하였다. 실례로 1967년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정부의 ‘농가소득증대 특별사업 지원 정책’에 따라 애월읍 유수암리와 제주시 해안동에 개척단지, 안덕면 동광리·애월읍 고성2리·조천읍 선흘2리에 양잠단지가 조성되면서 개척촌락이 성립되었다.

이 중에서 애월읍 고성2리 양잠단지 개척 촌락은 누에고치 생산을 위해 1967년 12월부터 1968년 봄까지 120ha 면적에 40세대가 입주하여 형성된 마을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견사 덤핑 판매로 인해 누에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용자금 상황에 허덕이던 주민들이 이주해버려 양잠단지 개척촌락은 쇠퇴해버리고 말았다<사진 3-8>. 최근에 이 마을 입구를 통과하는 서부관광도로가 확장되어 제주도의 제1중심지인 제주시와의 접근도가 향상됨에 따라 전원주택들이 입지하기 시작했으며 과거 뽕밭으로 이용되었던 토지에는 약용작물(오가피)과 채소가 재배되고 있다.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개척단지는 당시 개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9명으로 조직된 척우청년회(拓友靑年會 : 단결 미래 개척의 기수 척우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개척 촌락이다<사진 3-9>. 마을 중심에 광장을 만들고 이 광장을 따라 가옥을 환형(環形)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며, 2005년 초에는 이 광장에서 장승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이 광장에는 확정기를 단 마을 사무소만이 빈 집으로 남아 있다.

제주시 해안동 개척단지는 제주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시내 인근에 형성된 개척 촌락으로, 이 곳에 발달해 있는 광활한 목장지대를 활용하여 목축업을 전문화하려는 취지에서 1969년부터 목축에 종사하려는 주민들이 모여 만들었다. <사진 3-10>은 제주시 해안동 개척단지 입주식 장면으로 ‘감귤제주’와 ‘중산간 개발’이라는 구호가 이채롭다.

지역별 설촌 유래와 특색

한라산지에 형성된 촌락들을 대상으로 각 마을의 설촌 유래와 지역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마을에서 발간한 『향토지』와 「제주의 마을」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설

명의 편의를 위해 한라산지의 촌락들을 크게 산북지역과 산남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산북지역에는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구좌읍의 한라산지 마을들, 산남지역에는 안덕면과 서귀포시 한라산지 마을들이 포함된다.

산북지역의 한라산지 촌락

제주시 한라산지 지역 이 곳에 입지한 제주시 해안동은 약 500여 년 전에 이씨가 '주루레'터에, 그리고 송씨가 '새가름터'에 입주하면서 설촌되었다고 전하며 현재 감귤재배와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이다. 특히 해안동 축산단지 마을은 현재 120여 가구에 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본래 이 곳에는 1955년경에 땅이 넓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약 15세대 정도가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1969년도부터는 축산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마을이 만들어졌다. 해발 200m 일대에 자리 잡은 전원 농촌으로 젓소 사육을 통해 낙농업을 하고 있다. 마을 주위에는 넓은 목장지가 발달해 있고, 마을 서쪽에는 무수천을 끼고 있으며 남쪽에는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다.

아라1동 산천단 마을은 남쪽에 한라산과 세미오름(삼의양오름, 574.3m), 제주산업정보대학이 한칸만 있으며 북쪽에는 제주대학교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11번 국도(5·16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현재 산천단 마을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룸들과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밖에 공무원교육원과 직업훈련원이 입지해있다. 11번 국도를 따라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산천단 곰솔과 조선 성종 때부터 한라산신제를 지내오던 제단(산천단)이 자리하고 있다.

월평동은 진주 강 씨, 평산 신 씨, 김해 김 씨 등에 의해 1600년대 초부터 설촌된 마을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영평동과 용강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다라콧'으로 불리기도 했다. 4·3에 의해 큰 피해를 당한 후 1954년 말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4·3 복구용 건축자재를 지원받아 마을을 복구하였다. 해발 400m 부근의 월평목장에는 1962년부터 1963년까지 축산 농가 20세대 40명이 입주하였으나 현재는 1세대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이다.

봉개동의 명도암(明道庵) 마을은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18C경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마을이름은 이곳에 정착한 김진용(金晉鎔)의 호인 '명도암'을 따서 붙인 것이다. 현재 이 곳에는 유스호스텔 및 마을 공동목장, 관광목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4·3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용강동은 '웃무드내'라고 불렸던 마을로, 상무등천리·상무등천촌 등으로 표기하여 왔으나 광무 8년(1904)의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용강이라고 하였다. 1914년 제주면, 1931년 제주읍에 속했다가 1955년에는 제주시 관할구역이 되었다. 1962년 1월 동제실시에 따라 봉개동 관할이 되었다. '망동산', '정자동산', '무드내' 등 여러 개의 동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주민들은 대부분 감귤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림읍과 애월읍 한라산지 한림읍의 한라산지 마을인 금악리는 금오름, 정물오름, 누운오름, 세미소오름 등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다. 해발 230m 일대에 위치한 축산마을이며, 약 400여 년 전에 진주 강 씨와 남양 흥 씨에 의해 설촌된 것으로 전해진다. 설촌 당시에는 마을이름이 수류촌(水流村)이었다. 4·3이 발생하자 1948년 11월 18, 20일 사이에 소개령과 함께 마을이 큰 피해를 당했다. 그 후 주민들은 1950년 5월에 1차 복귀지인 고림동(현재 명월 상동)

으로 올라와 3년간 함바집(집단거주 임시주택)을 짓고 임시로 거주하다가 1953년 8월부터 비로소 현재의 위치에서 마을이 재건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재건 국민운동이 전개되면서 1962년에 복귀주택 12동, 1963년에 12동이 건축되었다. 이 마을은 인구 규모에 비해 토지 면적이 넓어 1000평 이상의 큰 토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한라산지 촌락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금악리 이시돌 목장은 1961년 10월부터 아일랜드 출신 한림 천주교회 맥그린치 신부가 이 곳의 광활한 초지에서 면양을 사육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목장이다. 조선시대 6소장 터에 자리잡은 목장으로, 천주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시돌 목장은 종교 전파와 주민의 경제생활을 연계하면서 운영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150여 명의 노동력을 이용할 정도로 규모가 컸었다. 현재 소·돼지·면양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 비해 운영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목장 수익금으로 목장 내에 양로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연수원인 '젊음의 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인성 수련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애월읍 어음2리는 100여 가구에 3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 마을에 비해 농작물 출하가 늦은 것이 특징이다. 국가지정 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된 빌레못굴로 유명한 마을이다. 이 마을의 설촌은 1500년대 초에 흥문관 교리였던 정자 박후신(正子 朴厚信)이 유배되어 이 곳에 정착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시는 정착자의 호를 따서 마을 이름을 정자촌(正字村)이라고 하였다. 그 후 진주 강 씨, 안 씨·양 씨·김 씨 등의 선조가 정착하였다.

광령2리는 320여 세대에 7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제주시와의 접근도가 향상되면서 전원주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애월읍에서 손꼽히는 감귤주산지다. 광령2리 유신동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18C 후반 경에 설촌된 것으로 보인다.

고성2리 양잠단지 마을은 1967년경 누에생산을 위해 이주해온 사람들에 의해 설촌된 개척 마을로, 서부관광도로의 확장으로 제주시와 가까워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정주 여건이 확충되면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1월 1일부로 양잠단지가 고성2리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볼 때 이 마을은 애월읍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발 200m 이상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양잠 대신에 감귤농사를 많이 하고 있다.

유수암리는 270여 가구에 8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해발 200~250m에 위치한 마을로, 유수암리 본동, 거문덕이, 개척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강 씨·이 씨·변 씨 집성촌이며 주소득원은 감귤이다. 거문덕이는 금덕봉(401.5m)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탐라지』에 의하면, 이 곳에는 민가 103호에 남 282명, 여 328명, 합계 610명이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에는 마을 규모가 컸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봉성리는 400여 가구에 1,3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 구물동·신명동·중화동·서성동·동개동·화전동 등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감귤과 양배추 등이 많이 재배되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특히 봉성리 새별오름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들불축제가 열리고 있다. 1600년경부터 설촌된 마을이며, 1895년경에는 어도리로 불리다가 1953년에 봉성리로 개명되었다. 봉성리 화전동은 솔도동·공초동이 합하여 된 마을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화전 마을이었으며 분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교되었다.

조천읍과 구좌읍 한라산지 조천읍 한라산지에 입지한 교래리는 제주도의 대표적 상품인 삼다수가 생산되는 마을로, 해발 420m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는 산굼부리(천연기념물 제263호)·테마파크·토종음식점들이 집중되어 관광산촌(녹색농촌관광시범마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

라산에서 흘러내리는 크고 작은 하천들이 많아 다리를 건너 마을을 왕래하였는데, 이 때문에 마을이름이 ‘두리’라고 불렸으며, 한자표기로는 교래(橋來)라고 했다. 1702년의 『탐라순력도』에 마을이름과 함께 객사 및 초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17C말경에는 이미 설촌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면적이 넓어 여러 곳에 화전민들이 거주하며 설촌되었다가 폐촌된 촌락들이 있다. 길영동·고영동·감발레가 대표적인 화전촌이었다. 교래리 대원목장 터에는 6·25전쟁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만든 법전촌(법호촌)도 있었다. 중산간의 다른 마을처럼 교래리 역시 4·3으로 거의 폐허가 되어 주민들은 제주시·신촌·조천·함덕 등지로 이주했다.

선흘2리는 170여 세대에 4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산채류와 특용작물이 유명하고 광활한 초지를 이용한 축산업이 발달하여 목가적인 전원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동부관광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농촌민박 운영마을이다.

선흘2리 선인동의 옛 이름은 ‘내생이’며, 350여 년 전 김해 김 씨를 중심으로 문 씨·허 씨 등이 설촌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양잠 1차단지(선진동)는 400여 년 전 정예수가 개척하여 살았던 ‘정예수굴’ 지경에 만들어졌다. 현재는 도라지 등을 재배하는 농가 17여 호가 남아있으며 이 곳에는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양잠 2차단지(선화동) 15호는 거문오름 앞에 조성되었다. 선흘2리 목선동에는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목장이 토지를 구입한 후 양돈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구좌읍 덕천리는 상덕천·하덕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덕천은 제주 고 씨가 15대, 하덕천은 조 씨가 12대를 이어온 것으로 볼 때 덕천리 마을은 약 450년 전에 설촌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덕천은 20세대, 하덕천은 6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송당리는 약 900여 년 전에 설촌된 마을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인 송당리본향당(금백조신당) 당국이 계승되고 있는 문화와 민속이 살아 있는 마을이다. 신화·전설의 고장이며, 많은 오름들이 분포되어 있고 광활한 초원에 천혜의 목장이 발달해 있다. 송당리 대천동은 옛부터 ‘들개기목’이라 하였으며, 큰 하천이 있어 대천동이라고 했다. 송당리 상동은 조선시대 1소장목장을 운영했던 관리들의 임시 거처인 직사(直舍)가 있었기 때문에 ‘직세마을’이라고도 한다. 조천읍과 구좌읍의 한라산지 마을들은 오름을 배경으로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사진 3-11>.

산남지역의 한라산지 촌락

안덕면 한라산지 이 곳에 입지한 상천리는 풍수해를 피해 해안 마을에 살던 조 씨·김 씨·박 씨 등이 올라와 화전을 일구면서 설촌했다고 한다. 농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유입되어 마을이 점차 커지자 인접한 창천리에서 합리(舍里)하려고 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치단결하여 합리를 반대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마을이름을 ‘백록리’로 정하였다. 이후 다시 인근의 하창리에서도 마을을 합치려고 하자 이번에는 ‘창고내’ 위쪽에 있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상천리로 바꾸어 현재까지 독립된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광평리는 제주도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로, 넓은 농경지와 목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성립된 화전 마을로 시작되었으며 한때 동광리에 속해 있었다. 이 마을은 약 200여 년 전 마을 동쪽 ‘조가위’에 조 씨가 살기 시작하면서 설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마통동’·‘감나물’·‘모살목’ 등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70여 세대를 이루었는데, 4·3때 완전 폐동되었다가 1963년에 일부가 재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쪽으로는 북제주군 애월읍과, 남쪽으로는 남제주군 상천리와, 서쪽으로는 동광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귀포시와 연결하는 제2산록도로 북쪽에 마을이 위치하여 있고, 마을 전체가 해발 500m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동광리는 약 360 여 년 전 만수동에 임(任) 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룬 후 1670년대에는 마전동이 설촌되면서 마을이 둘로 나뉘었다. 동광리 원수악 앞에 '원물'이라는 샘이 있고 개간할 수 있는 토지가 넓어 화전농을 하기에는 적당한 지대에서 해안 마을 주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마을 규모가 확대되었다. 1800년대 후반에는 화전이 성행하면서 '무동이왓'에도 촌락이 형성되었다. 이 곳은 동광리 48번지 석교동 동쪽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폐동된 상태이다.

한때 동광리는 자단리에 속했다가 1839년경에 동광리로 개칭됐다. 4·3 사건 때 큰 피해를 입고 해변마을로 분산, 이주해 있다가 1953년경부터 재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변에 새로운 취락지인 '문화마을'이 만들어졌다.

현재 동광리에는 강(姜)·이(李) 씨, 광평리에는 양(梁)·강(姜) 씨, 상천리에는 박(朴)·김(金) 씨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남제주군청 자료, 2005).

서귀포시 한라산지 이 곳에 입지한 상호동의 법호촌(法護村)은 제주도 사법보호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마을이다. 즉, 1955년에 6·25전쟁 피난민 중 기독교 신자로 구성된 귀농 정착 개척단이 이 곳에 입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정착 당시에는 신앙생활로 뭉쳐졌다고 해서 '가나안촌'으로 호칭되다가 후에 생활보호의 의미를 포함하여 법호촌으로 불리었다. 법호촌이 입지한 터에는 본래 현재의 상동에 화전민 6세대, 하동에 4세대 등 10여 세대가 살았으며 이후 이들은 서귀포와 토평으로 이주해 버렸다. 마을 부근에 있는 돈네코는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물맛이'장소로 널리 알려져 국민관광 휴양지로 개발되고 있다.

색달동의 천서동(川西洞)은 하천 서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모라이악(510.7m) 남쪽의 해발 400m에 위치한 마을로, 1960년대에 형성되었다. 화전이 한창 성하던 때는 농사가 잘 되어 사람도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졌으며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현재 천서동에는 집터만 남아있을 뿐 거주하는 주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군남동은 우보악(301.8m) 서쪽 해발 200m에 입지한 마을로, 색달분교가 있었으나 폐교되었으며, 현재 이 곳 분교터에는 G호텔이 자리잡고 있다. 우보악에는 조선시대 8소장 목장에서 방목했던 말들을 점검했던 점마처(點馬處)가 있었다.

촌락의 입지 요인과 입지 변동

촌락의 입지 요인에 대한 분석은 특정 지역에 촌락이 터를 잡은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다. 한라산지에 입지한 촌락들은 교통로 및 토지와 결합도가 비교적 강한 편으로, 촌락이 어떤 장소를 선택하여 성립되었는가 하는 입지 문제에 대한 고찰은 한라산지 촌락이 나타내는 성격의 일면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전통사회 제주도의 촌락들은 대부분 용천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해안지대에 입지한 후 조선시대 유배인의 유입과 인구증가 및 농경지 확보라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점차 한라산지 내륙에도 입지하였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하천과 오름(측화산), 자연초지와 삼림, 꽃자왈, 그리고 용암평원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해안지대에 비해 냉량한 지역이 많아 낮은 온량지수와 적은 일사량을 보여주고 있다.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지형성 강수가 자주 발생하는 자연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라산 산록대에 형성된 30여 개의 촌락들을 대상으로<표 3-2> 촌락의 입지요인 및 입지변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촌락의 입지요인

촌락의 입지는 지형적 위치와 교통적 위치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지형 조건과 물[식수], 일사, 경지 조건들을 통해 촌락 입지를 보는 입장으로, 이 관점에서 본 한라산지 촌락의 입지 요인은 식수 확보와 관련된 하천, 바람을 막아주는 오름, 경제생활과 관련된 농경지 등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촌락이 입지하고 있는 특정 장소가 다른 지역과 어떤 경제·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는 입장이다. 이는 한라산 산록대가 해안지대 및 산악지대와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지형적 위치에서 촌락 입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식수 조건

지리학자 치졸(Chisholm, 1962)이 주장하는 것처럼 식수 조건은 촌락 입지를 결정하는 제1요인으로, 식수확보 문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촌락의 입지 및 확대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도의 촌락들 역시 대부분 용천수가 있어 식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안지대에 입지하였다. 그러나 용천수가 거의 없는 한라산 산록대에도 촌락이 입지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한라산지가 투수가 쉬운 지질조건으로 인해 용천수를 구하기 어려운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이 용천수에 버금가는 식수인 하천수를 구할 수 있는 하천 변에 촌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라산 산록대로 이주해온 주민들은 여름철 집중 강우로 하천유출이 일어날 때 하천에 만들어진 경사 급변점[소(沼·웅덩이)]에 고이는 하천수를 식수로 활용하면서 하천변에 촌락을 만들 수 있었다. 실례로, 창고천 변에 위치한 안덕면 광평리, 천미천 변에 위치한 조천읍 교래리와 표선면 성읍2리 마을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하천이 없어 하천수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촌락에서는 ‘츄항’을 집집마다 준비하여 식수를 확보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통(봉천수)을 만들어 식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라산지에 촌락을 만들었다. 여기서 ‘츄항’이란 비가 올 때 동백나무와 같은 상록 활엽수에서 흘

러내리는 빗물을 받아두는 ‘물항’으로, 여기에 저장된 물을 식수로 사용했던 것이다. 물통은 빗물(봉천수)을 받아두기 위한 시설로, 마을주민들이 동원되어 만든 사각형 형태의 물통이다. 현재 상수도가 보급됨에 따라 이 마을 물통의 물은 식수보다는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한라산지 주민들은 하천수와 ‘츄항’, 물통을 이용하여 식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펍수 지역인 한라산지에도 소규모 촌락들을 입지시킬 수 있었다.

농경지와 지형 조건

치죤(Chisholm, 1962)은 촌락 입지를 결정하는 제2요인으로 농경지 요인을 들었다. 한라산지 촌락들 역시 대부분 농경지 개척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때,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물적 토대인 농경지 조건은 촌락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준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경지는 특히 한라산지 동서부 해발 200m~400m 일대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곳은 자연 초지 개간과 화전 경작에 유리한 환경사지가 발달하고 있어 촌락 입지에 유리한 지역이다. 더욱이 이 곳의 토양은 대부분 화산회토로, 화산재(volcanic ash)가 덮여 만들어진 토양이다. 이러한 토양으로 덮인 땅을 제주도민들은 ‘뜨땅’이라고 부른다. 표층에 다량의 부토를 함유하고 있어 특유의 검은 색을 띠고 있다. 경운에 편하나 구조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기 때문에 한라산지가 펍수 지역이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화산회토에는 목초가 잘 자라기 때문에 화산회토 지대에는 목축 촌락들도 나타나고 있다. 애월읍 화전동·구좌읍 송당리·조천읍 교래리·한림읍 금악리·제주시 해안동 촌락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농경지 요인 외에 바람을 막아주고 가축 방목에 도움을 주는 오름을 배경으로 촌락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애월읍 화전동, 안덕면 광평리, 조천읍 교래리, 구좌읍 송당리 촌락은 공통적으로 마을 가까이에 오름이 위치하고 있다.

교통 조건도 한라산지 촌락의 입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라산지 촌락들의 가옥들은 대부분 도로변 또는 도로에 가능한 근접하여 입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안덕면 광평리, 조천읍 교래리, 구좌읍 송당마을이 대표적이다.

촌락의 입지 변동

1930년대 일본인 지리학자 마수다 이치지는 제주도 촌락에서 일어난 입지변동에 대해 크게 한라산 산록대[중산간지대]를 향한 구심적 이동과 해안지대를 향한 원심적 이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촌락의 입지 변동은 인구이동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실례를 보면, 일부 해안지대 주민들이 삼림지대로 이동하여 만든 화전 촌락과 1970년대에 성립된 개척 촌락들은 모두 구심적 이동에 의해 형성된 촌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화전을 하기 위해 해발고도가 높은 삼림지대를 향해 일어났던 구심적 이동의 경우 조선 말기까지 주로 산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한일합방 후 화전금지와 함께 중단되었다.

해안지대를 향해 일어난 원심적 이동은 일제강점기 해안 일주도로[신작로]의 개통과 함께 내륙지역에 위치했던 행정기관들이 해안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리고 4·3 사건에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이 중 4·3이라는 정치적 사건은 한라산 산록대 촌락의 입지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무장대와 토벌대의 치열한 교전으로 인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해안지역으로 소개되면서 입지변동이 크게 일어난 것이다. 1950년대 이후 중산간 마을 복구정책에 따라 과

거의 위치에서 마을이 복구되거나 아니면 다른 위치에서 마을들이 새롭게 성립되었다.

촌락의 경관 변화

일반적으로 경관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및 인공 풍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관은 크게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논의할 촌락 경관은 주민들이 지표상에 만들어 낸 문화 경관의 하나로, 여기에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 농업, 관광산업의 결과물들이 응집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라산 산록대의 촌락 경관들은 한라산지 자연환경의 성격과 촌락을 형성한 정주집단의 성격을 반영하여 다소 지역차를 보여주고 있다.

촌락 경관의 구성 요소

촌락 경관은 그것을 구성하는 주민의 특성과 생활양식의 차이 또는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사회적 조건 등을 반영한다. 이러한 촌락 경관은 토지구획상태·방풍림·도로망·경지와 가옥과의 관계·건물의 평면형과 입체형 그리고 촌락의 중심체인 마을회관,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자연환경, 경제활동의 종류, 사회·문화적 특징, 개발된 시기 등을 반영해 장소마다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라산지의 촌락경관은 첫째, 촌락형태 면에서 볼 때, 대부분 집촌(集村)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산촌(散村) 경관도 나타나고 있다. 즉, 한라산지 촌락에 거주하는 정주주체들은 촌락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제적 기초를 감안하여 적정 인구와 토지구모를 가지는 소규모 집촌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토지 개척을 통해 이루어진 과원지대에서는 산촌이 등장하고 있다. 실례로, 산남지역의 중산간 과원지대에서는 과수원 주인들이 넓은 과수원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한 관리사들이 모여 산촌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둘째, 한라산지 촌락 경관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소는 농가와 부속시설(창고), 도로, 농경지, 종교시설, 팽나무, 마을회관과 학교 등이다. 이들 중 여름철 휴식처로 이용되는 정자목인 팽나무(‘꼭낭’)는 마을마다 존재하고 있다. 또한 마을회관과 학교[분교]는 촌락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공공시설이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감소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라산지의 안덕면 상천리와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마을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분교마저 폐교되어<사진 3-12> 인근 마을의 학교에 통폐합되고 말았다.

셋째, 토지이용 면에서 볼 때, 한라산지 촌락들은 해안지역에 비해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냉량한 지역에 입지해 있으므로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감자와 배추를 재배하거나 초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실례로 안덕면 광평리 마을은 ‘산록감자’라는 상표로 감자를 생산함으로써 광평 마을의 토지 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 해안동은 대부분의 목초지에 젓소를 사육하는 낙농업이 활발하다.

토지구획 상태는 어떤 특정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그 곳에 입지한 마을의 역사적·사회적 기반을 알게 해준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생활과정에서 자기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지 촌락 주변에 있는 토지들의 구획상태는 한라산지가 해안지역 촌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고 기다란 토지구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덕면 광평리와 한림읍 금악리 마을이 대표적이며, 이에 따라 이들 마을에서는 조방적 농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대형 농기계를 구비해 놓고 있다.

넷째, 가옥은 촌락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가옥의 구조와 대지 내에서의 배치상태, 건축재료, 방풍림 등을 통해 주민의 거주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한라산지 촌락에서 볼 수 있었던 전통가옥, 특히 정제(부역) - 상방(마루) - 구들(방)로 분할되었던 전통적인 삼간형(三間型) 가옥들은 이미 허물어지거나 현대식으로 개량되고 있다.

흔히 '돌의 문화'로 표현될 정도로 돌이 많은 한라산지 촌락에서 도 전통가옥의 벽 재료는 역시 돌이었다. 돌은 비바람이 일으키는 풍화와 침식작용에도 매우 잘 견딜 수 있는 재료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건축 재료였다. 또한 주민들은 바람이 많은 환경에서 강풍에 대한 저항을 최소로 하기 위해 지붕 경사를 완만하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지붕 재료 역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새'(띠)였으나 1970년대 이후 함석과 슬레이트가 보급되면서 '새'는 이제 그 효용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다섯째, 종교시설은 신앙공간이므로 해안지역과 마찬가지로 산록대 촌락들에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보통 큰 나무나 바위가 있는 곳에 민간신앙인 본향당(本鄕堂)이 위치하고 있으며, 촌락 내 또는 촌락에서 다소 떨어진 지점에는 교회와 절이 입지하고 있다. 이밖에 신앙과 조상에 대한 의식에 관련된 경관 요소로는 길가의 묘지와 비석 그리고 '거옥대'(방사탑)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본향당과 거옥대는 전통적인 민간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관 요소로, 특히 본향당은 마을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존재하는 신앙공간이며 촌락의 형성과 분파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중요한 문화 요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곳에서는 일정한 날을 골라 가정의 안녕, 농목업의 번성, 치병을 기원했다. 현재는 외래종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가 마을 내에 정착하면서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방치되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거옥대는 마을 입구에 쌓은 돌탑으로 주로 마을 내로 들어오는 잡귀들을 막는 기능을 하였다. <사진 3-13>은 성읍2리 마을 '까마귀동산'에 만들어진 거옥대로, 득남을 기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밖에 촌락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묘지 경관이 출현한다. 집안이나(가족묘지) 동족집단을 단위로 한 묘(문중묘지)나, 마을단위의 묘(공동묘지)가 촌락 근처에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공동묘지는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것으로, 한라산지 촌락 지역의 경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여러 마을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름의 남동 사면을 이용하여 공동묘지를 만들고 있는 마을들이 많다.

촌락 경관의 변화

촌락 경관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얽힘으로써 유지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산록대에 입지한 촌락 역시 농목업이라는 경제기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하더라도 시대변천과 함께 외부자극에 대해 소극적으로 배척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한라산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촌락경관의 변화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개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즉,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 조천읍 대흘리 원동과 같이 인구감소로 인해 공가와 폐가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도로망 확충, 관광정책, 상품작물 재배 등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정책 등에 힘입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촌락경관 요소들이 창출됨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도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경관변화 양상을 편의상 인구감소와 지역개발 정책에 따른 경관변화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관 변화

한라산지 촌락지역은 해마다 인구 전입보다 인구 전출이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지지역이라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공공시설과 문화, 교육시설 부족과 함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라산지 촌락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구 감소의 여파는 촌락의 구조와 경관 변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 첫째, 마을 내 사회조직이 유명무실해지거나 붕괴되고 있다. 청년회 조직 자체가 소멸되었거나 이름만 남아 있으며 오히려 청년회보다는 노인회의 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을에 청년들이 남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의 역동적 실천을 통해 마을 발전을 유도해야 하지만 노년층이 다수를 보이는 인구 구조로 볼 때 마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인구수가 적은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문화시설과 공공시설(보건,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도시를 향한 인구전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한라산지 촌락 내에는 빈집과 폐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인구 감소로 인해 그나마 마을 내에 남아 있었던 기능시설마저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마을주민의 구심체이며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분교(分校)마저도 경제논리에 따라 통폐합되고 있다. 실례로, 한라산지 촌락지역에 위치했던 해안, 덕천, 상덕천, 선흘 분교장이 1980년대부터 1990년까지 통폐합되고 말았다<표 3-3>.

지역 개발 정책에 따른 경관 변화

한라산지 촌락지역에서도 지역 개발 정책에 영향을 받아 관광 산촌과 문화마을의 등장,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경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개별적 촌락들을 합한 지역적 스케일에서 지역 개발 정책에 따른 경관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산촌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화로 인해 촌락 경관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발 400m에 입지하고 있는 조천읍 교래리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촌락이 도시화나 관광화의 영향을 받는 경우 경관이 보다 극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녹색농촌관광시범마을인 교래리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산굼부리의 관광지화와 테마파크 미니월드의 개장, 남조로와 비자림로의 개통으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들이 등장함으로써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산골 오지였던 마을이 이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산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자본을 가진 타지 출신 주민들이 교래리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교래리 마을과 산굼부리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변을 따라 테마파크를 건설하거나 주차장을 완비한 중·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지 주민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지 주민들은 소자본을 결합하는 형태로 이들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전업적으로 농업을 하던 주민들도 관광화의 결과물을 분점하기 위해 음식점 운영에 동참하면서 교래리 마을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에는 토종 닭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많은 것이 경관상 특징이 되고 있다<사진 3-14>.

둘째,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문화마을이 등장하여 경관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문화마을은 농

어촌지역의 기존 마을을 정비해 신개념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과 소득증대를 연계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안덕면 동광리 마을에 조성된 문화마을의 경우, 1996년부터 총 47억여 원이 투자되어 현재는 기반 조성공사는 물론 택지분양까지 완료되었다. 이 문화마을은 서부관광도로에 인접해 있어 도로여건이 좋고 광장과 체육공원 등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또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에너지 및 대체에너지로 이용하는 그린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다. 태양열 공급은 마을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품작물 재배도 촌락경관을 변모시키고 있다. 조천읍 선흘2리 마을과 구좌읍 송당리 마을에서는 더덕과 도라지 등의 상품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주택신축 또는 주택개량에 투입하면서 경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넷째, 개척 촌락의 기능 변화를 들 수 있다. 최초의 개척 촌락이라고 하는 서귀포시 상호동 법호촌은 한라산제1횡단도로와 제2산록도로의 개통과 감귤원 조성에 영향을 받아 과원촌락으로 변모하고 있다. 제주시 해안동은 축산단지로 특성화되면서 낙농마을로 부흥하고 있다. 한때 뽕나무 재배를 통해 누에고치를 생산했던 애월읍 고성2리 양잠단지 개척 촌락은 최근에 서부관광도로가 확장되어 제주시와의 접근도가 향상됨에 따라 전원주택들이 입지하기 시작했으며 약용식물과 채소를 재배하여 제주시로 공급하는 근교농촌으로 변하고 있다.

한라산지의 교통로

교통이란 지역과 지역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람과 재화의 장소적 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통은 지리학의 기본개념인 지역 간 상호작용과 이동 그리고 지역 연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교통로와 교통수단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2002년 최영준의 연구에 의하면, 교통로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경제력·정치권력 등이 뒷받침될 수 있는 사회에서 만들어지며, 각종 정보교환과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1991년 한주성의 연구에 의하면, 교통망은 문화가 발달하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차츰 조밀하게 되며, 교통로의 밀도와 상태 등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또한 도로개발은 지역의 산업, 문화, 교통을 선도하므로 지역의 개발수준을 말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교통로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적 단위에서 볼 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동맥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로인 동시에 인구이동 및 문화전파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교통로는 일반적으로 육상교통로, 해상교통로, 항공교통로로 구분된다. 이 중 한라산지 교통로에 해당하는 육상교통로는 전통사회부터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농목업과 임산물 채취를 위해 마을 공동목장이나 '초기낭밭'(표고버섯 재배 밭) 등으로 가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교통로다. 이러한 교통로를 만드는 과정에는 자연환경 요인(지형, 기후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라산지 교통로 개설 역시 험한 지형 조건과 안개와 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거나(출력) 도로 건설 전문 노동력을 투입하여 오늘날과 같은 한라산지 교통로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한편, 교통수단은 교통로를 통행하는 수단으로, 여기에는 가장 원시적 교통수단인 도보와 축력(말, 소),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이 있다. 이들 교통수단의 이용 정도는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한라산지에 발달한 교통로를 왕래했던 교통수단으로는 축력과 우마차, 자동차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한라산지 현대 교통로를 대상으로 교통로들의 시대별 형성과정 및 주민들의 이용 모습, 나아가 한라산지 교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장된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일이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수많은 비포장도로들도 포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한라산지 교통로란 해발 200m 이상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교통로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라산지 교통로는 해안 농경민과 중산간 목축민, 화전민 그리고 해안지대와 산록지대를 방사상으로 연결하는 동맥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도로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림 3-3>과 같다.

교통로의 시대별 변천

조선시대 교통로

조선시대 제주도는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자급자족이 힘들었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역 간 교류가 많지 않아 교통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 대부분의 지표가 현무암으로 피복되어 있어 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도로 사정은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왔던 김정(金淨)이 『제주풍토기』에 “길에는 자갈이 매우 많아 인마조차 다니기 힘들다.”고 기록한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에 교통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시대로 볼 수 있다. 즉, 1416년(태종 16년)에 제주도를 제주목·대정현·정의현 등 3읍으로 구분하여 통치하려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주목에서 멀리 떨어진 산남지역을 동서로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목을 대정현, 정의현과 연결하는 교통로 건설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읍성~대정현성, 제주읍성~정의현성, 대정현성~정의현성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위치에 따라 각각 상대로(上大路)·대로(大路)·하대로(下大路)로 구분하여 이용되었다. 이밖에 각 읍치에 연결되는 소규모 중로(中路)·소로(小路) 등도 있었다.

이 도로들과 함께 소규모 농로들과 마을 안길들이 결합되면서 전근대적 교통망이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교통로는 제주목사의 순력로(巡歷路), 점마별감(點馬別監)의 목마장 점마로(點馬路)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도로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 한라산지에 있었던 교통로의 위치는 고지도를 통해 일부 알 수 있다<그림 3-4>. 먼저 『제주삼읍도총지도』(1770년대)에는 현재의 애월읍 중산간 지역인 이생촌과 유수암촌 부근에 도로 이름으로 상대로(上大路)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촌로들에 의해 ‘웃한길’로 불리며, 현재 서부관광도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삼읍전도』(1872)에 의하면, 교래리와 송당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직선으로 표기되고 있다. 오늘날 비자림로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 교통로는 산장과 일소장 등의 목장지대 경계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지도에는 해안 마을을 연결하는 하대로(下大路)가 표시되고 있다. 현재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일과리 그리고 성산읍 해안마을인 하천리~신천리~신산리를 연결하는 길을 하대로로 기록하고 있다.

『정의지도』(1899)에 의하면, 대정현과의 경계지점인 대정접계병목참(大靜接界竝木站)에서 출발하여 호근리~상효리~한남리~수망리~정의읍성~수산리~상도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대로(大路)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오늘날 중산간도로의 토대로 생각된다. 또한 이 지도에는 대로와 상대로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도에 나타난 상대로는 오늘날 동부관광도로의 토대가 되고 있다. 도로의 위치를 보면 대로가 상대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정군지도』(1899)에 의하면, 제주군과 대정군을 연결하는 상대로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지도상에 ‘제주지군상대로(濟州至郡上大路)’로 표기되고 있어 제주목과 대정현을 연결하는 도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지도에는 차귀(고산)의 ‘주접계산라참(州接界山羅站)’에서 시작하여 대정성~산방산~상예리~도순리를 지나 ‘정의계병목참(旌義界竝木站)’까지 연결하는 대로가 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지도를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 제주도의 도로는 위치에 따라 크게 상대로, 대로, 하대로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도로들은 모두 대로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우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도로였을 것이다. 상대로는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한라산지, 즉 조선시대 목마장 경계부를 통과하여 대정현~제주목, 정의현~제주목을 연결하는 도로였다. 오늘날 서부관광도로와 동부관광도로가 대체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로는 상대로와 하대로 사이에 위치한다. 중산간 마을들을 연결하는 도로였으며, 오늘날 중산간도로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하대로는 해안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였다.

일제강점기 교통로

일제는 1911년에 도로법을 공포하여 조선시대 교통로 명칭인 대로·중로·소로를 폐지한 대신에 도로를 1등·2등·3등·등외로 나누었다. 1938년에는 도로 등급을 국도·지방도·부도(府道)·읍면도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 제주도에서 개통된 교통로로는 해안 마을들을 연결하는 일주도로인 신작로, 제주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한라산횡단도로, 제주~표선 간 도로, 제주~대정 간 도로 그리고 군사적 목적과 함께 한라산의 임산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치마키 도로가 대표적이다.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도로들은 한라산 횡단도로와 하치마키 도로를 제외하고 모두 기존에 존재했던 도로들을 보수·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주도로는 기존의 해안마을들을 연결하는 소로들을 연결, 확장하여 만든 것으로 1915년경에 해안마을을 연결하는 약 181km가 도로 부지로 등기된 후 개설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도로 작업을 하기 위해 주민들은 반강제적으로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통과할 위치에 있는 토지를 반강제적으로 수용하여 도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제주도 해안을 한 바퀴 일주하는 도로였으며, 새롭게 확장하여 만든 도로라는 의미에서 신작로로 불렸다.

제주~서귀포 간 한라산횡단도로는 1932년부터 1934년까지 너비 6m, 길이 13.7km의 한라산 국유림 횡단공사를 추진하면서 만들었다. 현재 한라산제1횡단도로의 토대가 된 도로다. 비록 비포장도로였으나 이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제주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남북 간의 시간거리가 단축된 결과 이들 지역 간 주민 이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38년에는 기존에 있던 제주~표선 간 도로와 제주~대정 간 도로를 지방도로로 지정하여 물자 수송과 주민 이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했다. 또한 일제는 전쟁물자 확보 차원에서 중산간 주요 마을과 해안마을, 항구 등을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중산간 지대의 축산물과 산림자원 등을 반출하기 위해 중산간도로 및 삼림지대를 순환하는 환상선(環狀線)인 하치마키(머리에 두루는 띠라는 의미)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 도로는 주로 임산자원을 침탈하기 위해 만든 임도(林道)의 성격이 강하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500~700m 일대를 마치 머리띠 모양으로 한 바퀴 순환하는 도로(길이 약 110km, 너비 10m)였다. 현재 서귀포시 제2산록도로 위쪽(북쪽)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 3-15>.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교통로 개설 및 정비사업은 제주도의 근대화를 위한 작업이었다기보다 도로개설 과정에 도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했음은 물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강제몰수 해버렸으며 또한 항·포구와 연결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한라산 임산자원과 연근해 수산자원들이 보다 쉽게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치밀한 제주도 수탈계획에 입각하여 진행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교통로

해방 이후 정부는 1945년에 도로법을 개정하여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국도·지방도·부도·읍면도로 등으로 구성된 도로체계 대신에 국도·지방도·시군도 등으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5·16 군사정변 이전까지 기존의 도로를 보수하면서 활용하였다. 이후 1960년대는 제주도 도로 개설의 신기원을 이룬 시기로, 이른바 ‘길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했다. 특히 5·16 군사정부에 의해 제주도가 관광산업 육성지역으로 부각되고 또 전국에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축산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원활한 유통을 위한 물적 토대로서 기존 도로들에 대한 확대, 포장사업과 함께 새로운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확장된 한라산지 교통로를 순서대로 보면, 한라산제1횡단도로, 한라산제2횡단도로, 제1한라산관광도로[제1산록도로], 제2한라산관광도로[제2산록도로], 동부축산관광도로[비자림로], 남조로, 서성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도로건설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만든 도로다. 이 중 한라산제1횡단도로[5·16도로]는 1961년부터 1969년까지 1차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윽고 한라산 서부의 산록지대를 가로질러 제주시와 중문사이를 연결하는 한라산제2횡단도로[1100도로]가 1968년부터 1976년까지 포장되었다. 당시 한라산제1횡단도로 포장공사에는 1억 2천 3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이밖에 1974년부터 개설한 제1한라산관광도로[제1산록도로]와 1989년경에 시작한 제2한라산관광도로[제2산록도로] 및 남조로(남원~조천), 2000년부터 공사하여 최근에 일부 구간이 개통된 서성로(서귀포~성산)가 있다. 2005년 12월 현재 동부관광도로를 확대,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 해방이후 개설된 제주도의 교통로 상황은 <표 3-4>와 같다.

교통로의 입지와 특성

일반적으로 교통로의 입지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중 자연환경 인자로는 경사도·지형·지진·기온·강수량·위치·고도 등이 있으며, 인문환경 인자로는 인구·경제수준·소득·물동량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통로의 입지와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간선교통로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인자 중 위치·고도·지형·강수량 그리고 인문환경 인자 중 인구·경제수준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한라산제1횡단도로 [5·16도로]

인구와 경제수준 면에서 제주도의 제1중심지인 제주시는 인구규모가 30만 명 정도로 제주도 전체인구의 54%가 집중되어 있어 명실상부하게 제주도를 대표하는 행정, 교육,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주요 교통로들은 모두 제주시로 연결되고 있으며, 제주시 이외의 시군읍면에서는 제주시와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최단 노선의 교통로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시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경우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북지역의 중심지인 제주시와 산남지역의 중심지인 서귀포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기 위해 등장한 교통로가 바로 한라산제1횡단도로다. 이 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총연장 40.6km의 도로이며, 본래 1932년에 제주도민들을 동원하여 한라산 원시림을 벌채하기 위해 만든 임도로 처음 개설된 것이다. 비록 비포장도로로 출발하였지만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귀포와 남제주군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걸어서 한라산을 넘어 제주지역으로 왕래할 수 있었다.

한라산제1횡단도로는 제주시 관덕정에서 출발하여 한라산 정상 동쪽 해발 750m에 위치한 성판악 휴게소를 경유하여 종점인 서귀포 남제주군청사 앞까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1956년에는 산천단에서 성판악까지 포장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진행되었다. 당시 해군장교 출신인 김영관(金榮寬) 도지사는 한라산제1횡단도로 확장 사업을 제주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이 도로 건설은 난공사여서 박

정희 정권에서는 범죄자들로 조직된 국토건설단2)을 도로공사 현장에 투입할 정도였다<사진 3-16>.

너비 6m, 포장 폭 4m 규모로 포장공사를 시작하여 1969년 10월에 개통시켰다<사진 3-17>. 이리하여 한라산제1횡단도로는 제주도 최초의 포장도로가 되었다. 1963년 2월 5일 국도로 승격된 이후 1978년부터 1980년까지 확장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종전의 노폭 6m를 10m로, 포장 폭 4m를 7m로 확장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라산 원시림 보호를 주장하는 한국자연보존협회의 건의에 따라 원시림 터널(‘숲 터널’)인 제 1 논고교에서 제 2 논고교까지의 1km 구간은 확장하지 않고 노면만 포장하였다. 이 구간은 원시림을 뚫어 나가고 있어 관광객들의 절찬을 받고 있다.

한라산제1횡단도로 노선에는 산천단 곰솔·제주산업정보대학·제주컨트리클럽·성판악 휴게소·서귀포 돈네코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 도로가 통과하는 한라산지에는 지형경사가 급한 부분이 곳곳에 발달하고, 여름철에 발생하는 지형성 강수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발하며 안개뿐만 아니라 겨울철 많은 적설로 인해 자동차 통행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라산제1횡단도로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김영관 도지사의 공적비가 성판악 휴게소에 세워져 있어 한라산제1횡단도로의 역사를 웅변해주고 있다<사진 3-18>.

한라산제2횡단도로 [1100도로]

제주도의 산악도로는 대부분 주민들의 우마 방목(‘상산 올리기’)과 임산자원 채취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라산제2횡단도로는 대표적인 산악도로이며 제주시 오라로터리에서 출발하여 해발 1,100m고지 휴게소를 경유하여 서귀포시 중문동 일주도로에 이르는 총연장 35.1km의 도로이다.

한라산제1횡단도로와는 달리 기존에 건설된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구간을 새로 측량하면서 만들었다.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하며 날씨변화가 심한 지대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 1976년 4월에 비로소 완공되었다.

건설초기 도로 폭은 10m, 포장 너비는 7m의 2차선 도로였다. 이 도로는 해발 1,100m 지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도 가운데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로이며, 일명 ‘1100도로’ 라고 불리고 있다. 이 도로 주변에는 아흔아홉골·어승생악·영실·서귀포휴양림 등 경승지가 많아 관광도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행정구역별 도로연장을 보면, 제주시 16,000m, 북제주군 4,866m, 남제주군 1,613m이다. 이 1100도로에서 어리목 주차장을 연결하는 어리목진입로 1.2km와 영실휴게소를 연결하는 영실진입로 5.1km는 한라산 등반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1100도로가 통과하는 노선에는 경사 급변점들이 곳곳에 위치하여 한때 차량 전복사고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운전자의 조심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율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이 도로는 높은 해발고도에 입지한 결과 많은 강수량과 안개 발생으로 인해 통행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더욱이 서부관광도로가 확장되어 여객수송을 담당함에 따라 한라산제2횡단도로는 더 이상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1100도로 변 어리목 부근에 모노레일카를 설치하여 관광 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서부관광도로

제주시 용담동 751번지에서 출발하여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1642번지에 이르는 총연장 29

km의 도로이다. 제주도 도로의 효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산간 지대를 산업화한다는 목표로 재건설되었다. 처음에는 '서부산업도로'라고 명명되었으나 최근에 제주도로 들어온 관광객들을 보다 신속하게 중문 관광단지와 서귀포로 운송하기 위한 고속화도로로 개발되면서 도로이름도 '서부관광도로'로 개명되었다.

이 도로는 조선시대 제주목사와 대정현감 및 유배인들과 주민들이 왕래했던 관도로 출발하였다. 당시 이 도로의 노선은 관덕정을 기점으로 제주향교 앞~서문파출소~오리정(五里亭 : 조선시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5리마다 세운 정자에서 유래, 제주공항 위치에 해당)~월랑동~정촌동(노형동)~월산~광령~서원(西院, 애월읍 소길리)~동광리~보성리에 이르렀다. 이 도로 구간 중 한라산지의 교통로는 제주경마장에서부터 안덕면 동광 사거리까지로 볼 수 있다.

1938년 12월에 지방도로로 지정된 후 4·3사건으로 인해 일시 폐도가 되기도 했다. 행정구역별 연장은 제주시 7,400m, 북제주군 16,800m, 남제주군 14,800m 정도이다. 1982년부터는 포장 폭 7m 넓이로 2차선 포장공사에 착수하여 1986년에 완공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 6일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된 후 이 도로를 이용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왕래하는 관광객들과 직장인들의 출퇴근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워에는 차량이 밀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더욱이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2002 한일 월드컵에 대비하여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주도와 정부에서는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 초래 등을 감안하여 도로를 직선형으로 개량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차선 확장공사를 완공하였다. 그 결과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성 확보로 교통 불편 해소 및 교통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02년에 국도로 승격되어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다. 한라산 목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방해받아 한라산 생태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도로(eco-road) 건설과 같은 보완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부관광도로

동부관광도로는 제주시 건입동 594-2번지에서 출발하여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600-3번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35.4km의 도로이다. 서부관광도로처럼 조선시대 관리들과 주민들이 제주목과 정의현을 왕래하던 관도였다. 이 도로는 제주시 관덕정을 기점으로 동문통~동문파출소 북쪽 우석목거리[城址]-제일교회 앞~사라봉 입구~고매장~거로~봉개~동원(東院, 조천읍 대흘리)~대천동~성읍~표선까지 이어지고 있다.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너비 10m, 포장 폭 7m의 2차선 도로로 포장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2차로에 불과해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체증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더욱이 제주시와 성읍민속촌, 표선 제주민속촌박물관 등 남동부지역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02년부터는 서부관광도로와 같은 고속화도로를 만들기 위해 2011년 완공목표로 4차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2002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되어 제주시 구간은 제주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구간의 도로는 제주도가 각각 관리청이 되고 이 밖에 도로 개설·정비 등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다.

한라산관광도로 [산록도로]

이 도로는 한라산 남북쪽 해발 500~ 600m 일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로로, 산록도로(山麓道路)라고도 한다. 제1한라산관광도로 [제1산록도로, 지1117호]는 제주시 월평동 산3번지에서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에 이르는 총연장 20.8km의 도로이다. 제주도가 1974년 12월에 착공

하여 1975년 7월에 개설했으며, 1979년 4월에 지방도로로 지정되었다. 이 도로를 따라 관음사, 탐라교육원, 제주시 공설묘지, 한밭저수지, 아흔아홉골이 분포하고 있으며, 서부관광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2한라산관광도로[제2산록도로, 지1115호]는 북제주군 한경면 용당리에서 시작하여 서부관광도로에 위치한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서귀포시 색달동 P골프장과 하원동 탐라대학교를 경유하여 서귀포시 상호동 산180-4번지에 이르는 총연장 43.9km도로이다.

한라산지 교통로에 포함되는 제2한라산관광도로 구간은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산77번지에서 시작하여 서귀포시 상호동에 이르는 24km의 도로다. 1981년에 6월 17일에 지방도로로 지정되었다. 1989년 7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서부관광도로에서 탐라대학교가 위치한 한라산 제2횡단도로까지 12km를 너비 10m, 포장 폭 7m의 2차선으로 개설하였으며,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는 한라산제1횡단도로가 통과하는 서귀포시 상호동까지 연결되었다.

이 도로는 창고천, 중문천, 도순천, 약근천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안덕면과 서귀포시 중산간 지대를 연결하고 있다. 도로변에는 탐라대학교, 도순 마을 공동목장,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등이 위치하고 있다. 산남지방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도로로 전망이 좋고 신호등이 없는 도로다. 특히 동홍동 솔오름 아래 제2산록도로변에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한라산 정상과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하고 있다<사진 3-19>. 그리고 이 도로 북쪽에는 일제강점기에 한라산 임산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치마키 도로와 화전마을이었던 '연저골'터가 남아 있다.

동부축산관광도로 [비자림로]

동부축산관광도로는 구좌읍 평대리 일주도로에서 제주시 봉개동 지경 한라산제1횡단도로까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27.3km의 도로로 비자림로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 도로 구간 중 한라산지의 교통로는 조천읍 교래리에서 한라산제1횡단도로 사이에 해당하는 6.8km 노선이다. 이 구간의 도로는 정부가 1967년부터 광활한 목장지대 개발 계획에 따라 축산용 도로로 개설한 것이 시초다. 이후 1976년부터 1978년까지 도로를 포장하여 축산도로 뿐만 아니라 목장지대, 산굼부리, 성읍민속촌을 연결하는 관광도로로의 기능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제1횡단도로에서 교래리에 이르는 도로는 삼나무 숲을 관통하고 있어 2002년에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되기도 했다<사진 3-20>.

남조로와 서성로

남조로(지1118호)는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와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0.2km의 도로로, 1989년 착공하여 완공한 도로다. 제주시로 접근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 거리가 길었던 남동부지역(남원읍민)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된 도로다. 이 도로 구간 중 한라산지의 교통로는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에서 교래리를 거쳐 남원읍 수망리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 도로를 따라 펼쳐진 남원읍 수망리 지경의 자연초지에서 고사리 꺾기 대회가 이루어지고, 도로변에 유채꽃을 심어 유채꽃 잔치를 열기도 하였다.

한라산 지 교통로 중 가장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서성로(지1119호)는 서귀포와 성산포의 중산간 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33.9km의 도로로, 현재 한라산제1횡단도로(남서교 부근)와 남조로(수망리 부근)를 연결하는 연장 10.73km의 도로가 1차 완공되었다. 이 구간은 모두 한라산지 교통로에 해당된다. 아직 자동차 통행량은 많지 않으나 앞으로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은 물론

교통량 분산, 농산물 운송비 절감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 3-21>. 1차 완공된 서성로 구간에는 위미 마을공동목장, 감귤복합가공처리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하치마키 도로

이 도로는 한라산지 교통로 중 1100도로를 제외하고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임도로, 일제강점기에 주민들을 노무자로 동원하여 만든 도로이나 현재는 폐도가 된 상태이다. 『제주도지』(하권)에 따르면, 일제는 1945년 3월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어승생악 일대에 병력을 주둔시킨 다음 어승생악을 중심으로 작전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이 때 일본군이 개설한 작전도로가 어승생악을 중심으로 머리띠 두른 듯이 만들어 졌다하여 일본인들이 이 도로를 하치마키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도로의 노선을 보면 서쪽으로는 한뫼교(橋)~영실을 거쳐 노루봉 뒤 영실분지점인 법정악에 이어졌고 동쪽으로는 수악교 상류와 논고악 성판악에서 물장오리, 관음사, 천왕사로 이어졌다. 현재도 이 도로는 한라산제2산록도로 북쪽 송전 철탑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하치마키 도로가 군사용 목적에서 건설된 작전도로인지 아니면 한라산의 임산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도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교통로의 이용

“길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요, 도로의 역사는 사회의 역사”라고 한다. 도로는 길의 근대적 개념이며, 인간사회가 형성·변화하면서 생활편의와 산업 및 군사 등의 목적에 따라 지표상에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교통로를 통해 도로건설을 가능하게 한 정치권력과 경제적 힘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라산지의 교통로에 각인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다른 도로들처럼 한라산지의 교통로에도 정치·경제·사회적 상황들이 색깔을 달리 하며 층층이 누적되어 있다. 서부관광도로와 동부관광도로에는 조선시대 제주도에 들어온 유배인들과 제주목사, 현감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한라산제1횡단도로에는 일제강점기 한라산 원시림과 임산자원을 약탈하려는 일제의 야욕과 1960년대 정치사의 큰 사건이었던 5·16 군사정부의 권위가 나타나 있다. 또한 이 도로는 범죄자들로 급조된 국토건설단의 활동을 알 수 있게 한다. 동부축산관광도로[비자림로]를 통해 정부의 쇠고기 공급지인 중산간 목장지대 개발계획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하치마키 도로에는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한라산 임산자원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남아 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장된 한라산지 교통로뿐만 아니라 한라산지로 통하는 수많은 도로들을 통해 중산간과 산악지역의 자연환경에 의존하며 살았던 수많은 민중들의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한라산지 교통로를 이용하여 초봄이면 고사리를 꺾으러 다녔고,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마을 공동목장과 상산(고산지대의 환경사지)에 우마를 방목하려 갔다. 또한 겨울철이면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땃감과 숯을 생산하려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내로 잠입하기도 하였다. 목장지대에 자생하는 목초들이 누렇게 변하는 추석이 지나면 겨울철 집에서 길러야 하는 우마들을 위해 건초(‘출’)를 싣고 다니는 마차(‘구루마, 바래기’)들이 이 도로를 빈번하게 왕래하였다<사진 3-22>.

한라산에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노루와 꿩 사냥꾼들이 사냥개와 함께 한라산지 교통로를 이용하였다. 또한 한라산 산록대에 개척해 놓은 화전을 일구기 위해 그리고 한라산 남부 삼림지대를 이용하여 만들어 놓은 '초기 밭'의 벼를 채취하려는 주민들이 이용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11~12월이면 산남지역 대입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라산제1·2횡단도로를 이용하여 제주시로 넘어와야 했다.

한라산제1·2횡단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로 운영된 적도 있었다. 한라산제1횡단도로의 경우 제주도가 1971년 12월 23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요금을 징수하였다. 요금징수기간은 1972년 4월 18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으로 하였으며, 통행요금은 소형차 50원, 대형화물차 150원, 승용차 100원, 소형버스 150원, 특수차량 300원을 받다가 1974년 2월 6일 소형차 100원, 대형화물차 150원, 승용차 200원, 소형버스 250원, 특수차량 300원, 대형버스 4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당시 요금을 받았던 톨게이트는 견월악 아래에 있었다<사진 3-23>. 그러나 요금징수 절차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한라산제1·2횡단도로가 국도로 지정된 상태에서 제주도가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1983년부터 요금징수가 중지되었다.

한편, 한라산지의 교통로를 통행한 교통수단으로는 축력(우마), 마차, 경운기, 농업용 소형 트럭과 여객수송용 버스 등을 들 수 있다. 중산간 지대에서 생산되는 딸감과 우마용 건초 그리고 농작물인 기장[피], 조, 고구마 등을 운반하기 위해 축력과 마차, 경운기가 이용되었다. 특히 마차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후 해방 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교통수단으로, 우리 고장에서는 1970년대 경운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농수산물과 임산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이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한라산제1·2횡단도로에서 여객수송을 위해 이용된 교통수단으로는 한일여객과 삼화여객, 동진여객 버스를 들 수 있다. 이 중 한일여객은 1960년대 초부터 한라산제1횡단도로를 최초로 운행했던 버스였다. 이후 1966년에 한라산제1횡단도로 포장이 완공되자 한일여객과 함께 제주교통이 마이크로버스를 도입해 운행했다. 현재는 한일여객을 대신하여 동진여객이 여객을 운송하고 있다. 한라산제2횡단도로에는 삼화여객이 운행하고 있다. 최근에 남조로와 서성로 교차지점 부근에는 남제주군 축협이 운영하는 가축 시장이 형성돼 있다.

제4장

한라산의 화전농업과 화전민

한국의 화전농업

화전농업의 개념

화전농업 또는 이동식농업(shifting field agriculture)은 경작기간이 짧고(1~3년) 휴경기간이 길며(아주 길게는 20년 이상, 짧게는 6~8년) 벌채(伐採)하여 불을 지를 뿐 아니라, 작물보다는 경작지를 윤작하고 굴봉(掘棒)이나 팽이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경작·휴한기간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나, 휴한기간이 6~8년보다 짧은 화전농업을 순환휴한총림(循環休閑叢林, rotation bush fallow)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정의 지리적 혹은 문화적 영역 내에서 나타나는 화전농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환경적 측면 기후, 식생, 토양 등의 인자가 합쳐져 화전농업의 환경적 성격을 구성한다. 화전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요소인 집중호우와 고습이다. 이들로 인하여 용탈률(溶脫率)이 심해지게 되고, 그 결과 토양에 있어서 유기물질이 머물러 있는 시간은 극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온대에서 건기가 긴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화전농업이 발견되는 것은 기후인자보다는 노동력의 부족, 극단적인 빈곤, 낮은 영양수준, 만성적인 질병, 낮은 기술수준 등에 기인한다.

식생은 토양의 비옥도를 반영하면서도 경작 및 휴한기간, 작물 결합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2차 삼림의 경작 후 회복기간에 따라 식생의 구조나 구성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길수록 수목류의 구성 비율 또한 높아지며 식생의 종류가 증가하여 보다 복잡한 구성과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식생 속의 영양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식생과 환경방식 사이 연관성은 매우 크다.

문화적 측면 이것은 기술적·사회적·민속생태학적 인자가 서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인자는 농업인구에 대한 사회·정치적 조직화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민속생태학적인 인자는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 틀 간의 관계가 국지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범주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전농업을 행하는 사회는 문화적 수준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문화적 변화는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작물, 기술, 도구, 사고방식 등의 전파, 발명에 기인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주자의 문화적 유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조건과 이주자의 농업기술 수준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 자체가 일방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토지이용 방식을 결정한다든지, 환경 자체가 일방적으로 문화의 성격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문화가 어떤 지역에서 환경적으로 가능한 여러 농업양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이츠(C. Geertz)는 화전농업을 열대의 기후, 토양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가치규범 등이 반영된 광범위한 의미로 전체의 일부라고 하였다. 또한 특정 사회 집단의 인구밀도는 경작지의 윤작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경작기간이 길어지고 휴경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알맞은 작물이 우선적으로 재배되기 마련이다. 결국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에 대한 인구압이 증가하여 비옥도가 낮아지고 경작 지역의 수용능력이 낮아진다. 인구 밀도의 변화는 나아가 전체 사회·문화의 변화를 가져와 사회 전반의 변천이 일어나게 하기도 한다. 화전농업이 인구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대체로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전농업은 그에 필요한 노동량이 다른 농경방식에 비하여 낮고 불연속적이다. 보섭(E. Boserup)은 인구가 증가하여 토지의 이용이 보다 집약적으로 될 때 노동생산성은 저하된다고 본다. 이 때 농업기술의 진보가 요구되며 새로운 기술의 채택은 농업 방식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시간적 측면 화전농업에 있어서의 5가지 단계란 장소선정-삼림제거-화입-재배-휴경을 말한다. 경지를 선택하는 데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토양조건이다. 토양조건이나 식생 이외에도 거리의 인자도 고려하는 데, 경지 선택시 촌락에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일단 경지가 선택되면 건기가 시작될 무렵 보편적으로 벌목을 한다. 또한 식생, 수목의 크기, 수종에 따라 행하는 벌채(clearing)방법과 순서가 다르며 벌목규모는 인구밀도, 농업양식,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다르다. 벌목과 관련된 것이 화입(burning) 단계다. 대부분의 화전농업 사회에서는 벌목과 함께 화입을 아주 신중하게 행하는데 보통 건기 말에 행한다. 파종(planting)은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 행한다. 파종방식은 자연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여러 작물을 동시에 결합하여 재배한다. 이들 작물은 각각 생태학적 처소(處所, niche)를 달리하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재배된다. 이러한 파종방식은 외견상 무질서해 보이나 토지생산성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며 연중 수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경작단계에서는 되도록 작물결합이 생태학적 균형상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계속해서 몇 년간 경작을 하였을 경우 비옥도가 감소하므로 토지를 묵히거나 때로는 수목작물을 심어서 식생회복을 기다린다.

현재나 과거에 세계 각지에서 행해졌던 화전농업은 모두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 자연조건, 사회·문화적 조건, 인구규모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화전농업의 경작 시스템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 화전농업을 근재형(根裁型) 화전농업과 잡곡형 화전농업으로 구분한다. 또한 동남아시아는 육도(陸稻)탁월형, 육도근재형(陸稻根裁型), 육도잡곡형(陸稻雜穀型), 잡곡근재형(雜穀根裁型)으로 구분하고, 한반도의 화전농업은 유럽의 선사시대 온대삼림지대에서 행한 화전농업이 스텝지방의 맥작형(麥作型) 농업의 유입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와터스(R. F. Watters)도 식량생산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기준으로 화전농업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① 수렵·채집이 지배적이며 부수적으로 화전농업을 행한다.
- ② 화전농업이 지배적이며 수렵·채집이 부수적이다.
- ③ 화전농업만 행한다.
- ④ 화전농업이 지배적이며 목축도 행한다.
- ⑤ 화전농업이 지배적이며 영구경작도 행한다.
- ⑥ 화전농업, 영구경작, 방목 등이 병합한다.
- ⑦ 영구경작이 지배적이며 화전농업도 병행한다.
- ⑧ 목축이 지배적이며 화전농업도 행한다.

한국의 화전농업

한국에서의 '화전'이란 평야나 연해를 제외한 산야가 있는 전 지역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일명 '화율전(火栗田)'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행하는 경작방법은, 봄(4, 5월 경)에 눈이 녹는 것을 기다렸다가 삼림을 벌채해 약 2주일 간 땅을 말린 뒤 불지르는 평소(平燒)가 있고(만약 땀감이 부족할 경우 가을에 벌채해 놓고 다음해 봄에 불지른다), 수목이 큰 곳에서는 더욱 조방적

으로 나무껍질을 벗겨 권고(卷姑)를 하면서 잡초, 관목을 벌채해서 불태우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화적지(火跡地)는 소 또는 인력을 사용해 일구고 농작물을 파종하는데, 그 방법에는 평파(平播)와 휴파(休播)가 있다. 여기에서 휴파란 소 1마리 또는 2마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한 번 개간한 곳은 3~4년 간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며 가장 일찍 농산물을 수확한 곳은 방치해 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화전을 행하는데, 7~12, 13년 쯤 다시 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화전농업은 열대의 화전농업과 경작순서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우경(牛耕)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화전농업이 1~3년 간 경작하고 8~15년 정도의 긴 휴경기간을 갖는 것에 비해, 경작 기간이 긴 것은 한국의 기후가 건우기가 뚜렷하고 건기가 6개월 이상 되기 때문이다. 한번 벌채하여 말린 후 불지른 화적지를 쟁기나 축력을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노동력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다. 한번 불을 질러 개간한 후 3~4년간 경작하고 5~6년간 휴경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는 화입 후 식생이 회복되는 데까지 7년 정도 걸린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이 지역에서 불을 놓은 다음 비가 한번 내린 후 가래로 지표층을 간단하게 파 농작물을 파종하며 시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잡초도 별로 자라지 않아 제초를 하지 않고 작물을 수확하는 것은 '부덕(火德)'이라고 한다. 부덕 이후 2년째부터를 '화전'이라고 한다. 경작을 계속하여 수년에 이르면 점차 지력이 쇠퇴하여 휴경을 하는데, 수년의 휴경으로 지력을 회복하면 다시 불을 놓아 윤경을 하게 된다. 수년 휴경 후 개간하는 것을 기경(起耕)이라고 하고, 부덕에서 다시 화전을 하는 것을 신기화전(新起火田)이라고 한다. 또한 신기화전을 하는 해 또는 그 다음해에는 경작에 불편한 지면의 나무뿌리를 가래로 캐내기도 하지만 2~3년 후에는 이들이 썩게 됨으로써 우경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소는 두 마리를 이용하여 산복(山腹)을 수평으로 갈게 되는데, 30도나 되는 급경사지도 능숙하게 간다. 경작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잡초도 생겨 제초를 할 필요가 생겨나고 운반이 편리한 곳에서는 인분뇨, 또는 소 돼지의 분뇨와 재의 혼합물을 약간 주어 지력을 유지시킨다. 산지의 촌락 가까이에 화전과 전지(田地)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산전(山田)이 있다. 한편 시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력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작물의 윤작이다. 작부방법은 <표 4-1>과 같이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4-1>에서 감자와 옥수수는 18세기 이후에 한반도에 전래되어 온 작물인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주로 조, 귀리, 메밀, 팥, 콩 등 잡곡을 심었다. 화목경작물(禾木耕作物)인 조, 메밀과 공중질소 고정 작물인 콩, 팥을 매년 윤작하는 것이 한국 화전농업의 특색이다. 즉, 주로 1~2년 경작하여 밭벼, 잡곡, 근채작물 등을 재배하는 동남아시아 주요 화전민의 윤재 방식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

제주도의 개척은 신라시대 그 이전에 있어서도 화전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상호(1979)는 『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濟州牧 建治沿革條'를 인용하여, 제주도 개척은 화전농업을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高麗史』의 古記를 인용하여, 제주도 주민들이 농업정주가 이루어지고 촌락이 형성되고 난 뒤 촌락주변에는 농경목축지가 분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촌락주변의 농경 목축지가 어떻게 경영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경목교체방식(耕牧交替方式)으로 이루어져왔고, 따라서 당시의 토지이용 역시 경목교체 방식으로 진행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농경을 이끈 생산단위는 정주가구이면서 씨족단위로 기능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정주지 주변의 윤경 화전 확대를 가져오는 식의 화전경영단계에 앞서 1차적으로 이동에 의한 거주정착과 경지개간을 이루는 화전경영단계가 있었으며 후자를 이끈 것은 씨족단위 이상 촌락단위였다. 그것은 자연적인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근재형 화경 농업이 개척 거주단위였음을 시사한다. 그런 자연공동체에서 가족중심 개척단위가 분화되면서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져 간 것이 제주도에 있었던 개척형 화전농업이라고 하였다. 이후 제주화전의 진행과정 역시 한라산 목장지대에 대한 농경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목 교체 방식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목 교체의 사실은 농경진화의 단계로서 매우 흥미 있는 일(久間健一, 1950)이다.

제주도 화전의 기원은 경목 교체 방식과 아울러 고려시대 목장의 설치가 가장 큰 요점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려시대 중간 구목장지대의 설치와 이 중간 목장지대의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화전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가능하다.

탐라에서 삼별초군을 평정한 몽고는 충렬왕 2년 제주에 목장을 설치(『東國輿地勝覽』卷之 三十八, '濟州牧古跡條')했다. 한라산 산요부(山腰部)를 돌면서 국영 목장이 설치됨으로써 목장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를 통틀어 방목지 경영을 한다는 것은 도민식량 확보에 대한 부담과 대책이 필요하였다. 급기야 세종 때에는 한라산 목장과 구 목장을 풀어 경작하도록 하였다. 넓은 지역을 필요로 하는 방목중심경영은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식량 확보 차원에서 농경지화 정책을 필요로 한 것이다.

19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중산간 지대의 목장전과 화전을 개간하여 나갔다. 원래 중산간 지대는 국마를 양성하는 목장으로 경작이 엄하게 금지되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목장전과 화전경작이 허용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화전을 개간하러 중산간 지대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가 화전동이 형성되었다.

『濟州巡撫御使朴天衡書啓』(1777~1794, 49면~53면)에 의하면, 산둔(山屯) 3장은 둘레가 90리이고 지세가 평탄하여 물은 6군데에 있고 간간이 숲이 있으나 백성들이(入耕者) 들어가 경작하는 곳도 많으니 마필이 살찌지 않고 수가 줄어 600여 필밖에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어 목장의 범경(犯境)은 국법으로 금하는 바 제멋대로 목장 안에 들어가 경작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전체의 목장화로 인한 토지부족과 그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간 구목장지대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개간·경작하였다(사진 4-1>). 이처럼 목장 안에서 불법적으로 경작하는 토지를 목장전(장전)이라 부르고 공한지나 황무지를 다시 개간, 경작하는 토지를 가경전이라 한다.

화전은 중산간 지대의 숲이나 산목을 불태워 경작하는 토지로 만약 매년 경작된다면 정규의 전세 부과 대상이지만 부정기적인 경작을 할 때에는 경작할 때마다 납세하는 수기수세(隨起隨稅)의 대상이 되었다. 이 세목이 바로 목장세, 가경세, 화전세다. 이어 1894년 공마제도가 폐지되고 목장토의 개간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제주도 전 중산간 지역에 화전이 확대되어 간다. 이처럼 제주도는 식생과 토지이용, 기타 지리적, 자연환경적 조건에 의해 해안에서 한라산으로 올라가면서 해안지대·중간지대·산간지대·삼림지대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1930년대만 해도 독특한 화전농업이 행해지고 있었다.

산간지대 久間健一(1950)에 의하면, 삼림지대의 하부에 있고 다음에 말하는 중간까지에 약 2~3리 폭으로 둘러싸인 지대로서 옛날의 화전지대가 이에 해당된다. 경작지 면적 1만 6

천 정보로서 제주도 총경지의 약 16.9%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의 이용은 극히 원시적으로 방목, 또는 모초(茅草) 채취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작에 이용되는 면적은 근소하다. 작물은 주로 대두, 조, 보리 등인데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이 10년 3경, 심한 곳은 10년 1경, 보통 10년 2경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대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의 중간지역으로 한라산록에 있는 폭 1~2리 지대이다. 경지면적 약 2만 7천 정보, 총 경지의 28.3%를 차지하여 토지이용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그래도 전경지의 5할 이상이 방목 또는 모초 채취에 이용되고 있다. 기타의 경지는 5년에 2~3경 정도 이다. 경지에는 돌이 많고 땅이 박하기 때문에 그 이용가치가 적고 작물은 피, 교맥, 조, 대두, 발벼로 도민들이 비료를 가장 요한다고 보는 맥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대는 구 목장지대에 해당하여 돌담을 쌓아 소나 말의 도망을 막곤 했던 지역인데, 상부는 옛날의 화전지대에 접하는 쪽의 돌담을 상장성(上場城), 하부의 돌담을 하장성(下場城), 중간을 중장성(中場城)이라 하고 하부를 경작할 때는 우마를 상부에, 상부를 경작할 때는 하부에 각각 방목했었다(이를 김상호는 경목교체방식이라 한다).

한편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화전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층 분해로 화전민들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대해 일제는 산림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삼림령과 화전금지정책을 실시하여 화전을 금지시켜 나갔다. 그러나 제주도 화전은 1930년대를 기점으로 축소되어 갔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층 분해, 유랑민 증가 등의 이유로 화전민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즉,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한반도의 화전은 증가하였고 제주도는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점이 한반도 화전과 제주도 화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주도 농촌사회의 노동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일제시대 일본이라는 소비시장의 확대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제주도 농촌의 노동력이 해안마을로 집중되게 되었고, 또한 1920년대 이후 급격한 도일(渡日)로 인해 노동시장 면에서 커다란 지각변동이 생겼다. 즉, 제주도민 1/4 정도가 도일하게 되어 이로 인해 커다란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화전농업 혹은 화전지역 노동력이 보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화전농업

제주도 농촌의 농업지대

제주도는 표고별, 토지이용도, 사회적·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해발 200m를 기준으로 하여 3 혹은 4지역으로 나눈다.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해안지대, 중간지대, 중산간 지대, 산간지대이다. 제주도의 농사는 각 지대별로 다양하게 달라지며 각 지대에 존재하는 마을의 성격도 다양하다. 이 중산간 지대와 산간지대의 농업활동에서 제주도 화전농업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중산간 지대 중산간 지대는 비교적 토심이 깊고 피가 잘 자라서 새밭이 많은 지역이다. 해발 200~400m 지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새밭농사와 잡초와 관목이 자라는 목장밭(해발 400~800m) 사이의 지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목장밭 농사로 구분된다. 개간은 토지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세고 순한 소 2마리를 종렬로 연결하여 개간하였다. 따라서 개간을 위한

소는 차용할 수 없으므로 인해 소가 부족하였을 때에는 개간을 원하는 주민들끼리 수눌음에 의해 소를 교환하여 축력을 이용하였다.

개간과정을 살펴보면, 소 2마리로 6회를 갈면 약 70cm 정도의 이랑이 만들어지고 이랑과 이랑 사이는 남겨두었다가 소 1마리로 다시 간다. 땅을 간 다음 흙덩이는 풀뿌리와 얽혀있기 때문에 도끼를 사용하여 숙치(熟治)작업을 한다.

1년 1작식 작부체계를 취하였던 띠밭은 순환식 이동농경이 특징이다. 일단 1회의 작부체계가 끝나면 자골을 재배하거나 '새(띠)'를 들인다. 자골은 종자를 파종하였으나 새는 밭을 방치해 두면 저절로 자란다. 자골은 사료작물이었으며 콩작물로서 지력회복에 효과가 있다. 새는 중요한 생활 작물이며 최소한 지력 소모를 하지 않는 휴한 효과가 있다. 휴한 기간이 자골인 경우 3년, 띠는 10년 정도 수확하고 재개간 한다. 목장밭이라고 불리는 해발 400~800m 지대는 토질이 척박하며 원거리라는 점에서 농사에 불리하다. 새밭에서처럼 자골을 재배하거나 새의 수확이 불리할 경우 장기간 방치하여 방목지로 사용한다.

숙지화 작업이 종료된 이후 옥도, 조, 피의 재배는 파종시 진압작업, 옥도와 조의 극히 제한적인 제초, 수확을 위한 노동 외에는 노동투입이 거의 없었다. 중산간 지대의 총 경지 면적은 1만 6천 정보로 제주도 전 경지 면적의 16.9%에 해당한다. 그 중 50%는 산간부에 위치한다. 이 곳에서는 원시적 농경의 성격이 강하며 방목을 주로 한다. 주요작물은 피·대두·조·교맥이며, 10년 3경, 보통 10년 2경 정도를 한다. 토지 이용 정도는 조방적이고 동계에는 대부분 휴한한다.

산간지대 해발 200~600m 지대의 경사도 15도 이상의 지역은 삼림지대인데, 해발 200~800m 지역을 재 구분할 수 있다. 즉, 해발 200~400m 지대는 비교적 토질이 양호하여 새가 잘 자라는 토양이 널리 분포한다. 이 지대는 전통적으로 새밭을 개간해서 3~4년 동안 식량 작물을 재배한다. 식량 작물의 재배 후에 3~4년 동안 자골(차풀)을 재배하거나 10여 년 동안 새(띠)를 채취한 다음, 재개간하여 식량 작물을 재차 재배하는 방식에 의하여 농경이 이루어진다. 해발 400~800m 지대는 잡초와 관목이 많은 방목지다. 이 지대는 개간하여 3~4년 동안 작물을 재배한 다음 다시 방목지로 놓아둔다<표 4-2>. 이 지대에서는 나무를 불태워 만든 재를 비료로 사용한다. 제초작업에 인력 투입이 전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축력 및 농기구 사용이 전무하다. 일종의 약탈식 농경방식을 취한다. 제주에서는 이를 원시적이고 조방적이어서 '친밭농사'라고 불러 왔다. 이처럼 산간지대의 작부방식은 1년 1작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대의 토지이용은 아주 조방적으로 동계는 대개 휴경하며 작물은 조, 피, 메밀, 대두와 같은 조방작물이 재배되었다<표 4-3>.

이처럼 산간지대는 3년 윤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10년 윤작도 행해졌다. 개간지나 산간(화전 지역)에서는 낮은 토지생산성으로 인해 윤작연수가 점점 길어졌다.

제주도 화전 조성 과정

제주도에서의 개간 혹은 화전 조성 과정을 살펴보면, 화전 조성시 벌채시기는 계절적으로 제한이 없었다. 노동력이 여유가 있는 계절에 시기를 가리지 않고, 관목과 잡초를 호미로 베어낸다. 관목들은 벌채 후 5~6개월간 그대로 방치하여 건조한다. 그 후에 화입(불넣기)이 행해지는데, 이에 앞서 조성해야 할 경지 주위의 흙을 제외하고는 폭 1미터 정도의 방화선을 설치한다. 화입의 장소로 조성지가 비교적 완사면을 고르지만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다는. 화입의

시기는 초년도에 피를 재배하려는 경우 늦가을이나 혹은 이른 봄에 한다. 조성된 경지에는 우마의 출입을 막기 위해 나무 울타리를 주위에 쳐놓은 다음 파종 단계로 옮긴다. 초년도 작물인 피는 음력 6월 20일에서 24일까지 행해지고 음력 10월 10일 전후로 하여 수확한다. 이 피밭의 윤작체계는 초년도에 피를 재배한 후에 팥, 이어서 3년째는 배추나 팥을 재배하여 4년째부터 경작을 포기한다.

일반적으로 화전농업은 장소선정-삼림제거-화입-재배-휴경의 5단계를 거친다. 경지를 선택하는 데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토양 조건이다. 토양 조건이나 식생 이외에도 거리의 인자도 고려하는데, 경지 선택 시 촌락에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제주도 화전인 경우 토양 조건보다는 식생상태, 토양피복 상태 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장소 선정은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일단 경지가 선택되면 건기가 시작될 무렵 벌목을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화전은 노동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력이 여유가 있을 때 계절을 가리지 않고 벌채를 한다. 벌목과 관련된 것이 화입(burning) 단계이다. 대부분의 화경농업 사회에서는 벌목과 함께 화입을 아주 신중하게 행하는데 보통 건기 말에 행한다. 제주도의 화입은 주로 봄이나 가을철에 행하며 실화에 대비하여 방화선을 구축한다. 일반적으로 파종(planting)은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 행한다. 제주도 화전의 파종은 이와 함께 재배작물(주로 피)의 생육단계에 맞춰 하는 것이 보통이다. 파종방식은 자연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여러 작물을 동시에 결합하여 재배한다.

제주도 화전의 파종 역시 자연 조건과 토양, 지력상태를 고려하여 결합시킨다. 이들 작물은 각각 생태학적 처소(niche)를 달리하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재배된다. 이러한 파종방식은 외견상 무질서해 보이나 토지생산성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경작단계에서는 되도록 작물결합이 생태학적 균형상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계속해서 몇 년간 경작을 했을 경우 비옥도가 감소하므로 토지를 묵히거나 때로는 수목작물을 심어서 식생회복을 기다린다. 제주도의 경우도 3년 정도가 지나면 휴한하여 잡초가 자라는 대로 방치하거나 소·말을 방목하기도 한다. 가끔 새를 재배하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한반도에 비해 제주도에서의 화전소멸은 빠르다. 강원도 지역인 경우 1970년까지 화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토지조사사업과 도일(渡日) 증가 등으로 급격히 화전이 소멸하였고, 마지막으로 '4·3' 과정에서 산간마을 소개로 완전히 사라졌다. 한편 松山利夫(1986)는 제주도의 화전은 한반도의 화덕, 화전의 형태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경영형태상으로 상당히 변방적인 존재이며 상당히 빈약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덕, 화전의 존재, 한반도에 비해 일찍 소멸했다는 점을 가지고 이런 단정을 내린다는 것은 조사자의 명백한 오류다. 이는 화전이 지역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적응하며 변동해 갈 때 나타나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간파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사실과 가시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도 화전은 1930년대를 기점으로 축소되어 갔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층 분해, 유랑민 증가 등의 이유로 화전민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즉,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한반도의 화전은 증가하였고 제주도는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점이 한반도 화전과 제주도 화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주도 농촌사회의 노동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이라는 소비시장의 확대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제주도 농촌의 노동력이 해안마을로 집중되었으며, 또한 1920년대 이후 급격한 도일로 인해 노동 공급 면에서 커다란 지각변동이 생겼다. 즉, 제주도민 1/4 정도가 도일하게 되어 이로 인해 커

다란 노동력 손실이 생겨났고 이를 화전농업 혹은 화전지역 노동력이 보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화전을 하지 않아도 제주도 농촌에는 경제활동기회가 충분하였고 나아가 일본 노동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영농방식, 생활방식의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화덕, 화전의 분류는 발전론적 단계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었고 다만 개간 후 토지이용의 변화 형태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松山利夫는 1976년 강원도 화전 정리사에서 인분 등을 퇴비로 사용하였다는 점들을 열거하고는 이러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제주도의 화전은 빈약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화전은 원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노동력도 가급적 적게 투입했다. 왜냐하면 화전은 약탈식 농경이기 때문이다. 비료와 노동력 투입을 강화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집약적 농업과는 달리 자연적 토양, 지력, 재배작물의 유기적 결합만으로 생산을 획득하려는 화전농업은 원칙적으로 비료 사용을 하지 않는다. 다만 피나조 재배시 '재'(화입시 생겨난 재에 부가하여)를 사용하기는 하였다. 강원도의 사례는 1970년대에 이른 화전농경이 아닌 산촌에서의 집약적 농경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제주도 화전과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제주도의 화전민

화전민의 유형

화전민의 유형은 경작지와 경작자와의 권리·소유관계, 소유지의 이용방법, 생활상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분류할 수 있다.

경영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 순화전민과 겸화전민 순화전민은 화전만을 경작하여 의·식·주 등 생활의 전부를 화전지에만 의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순화전민은 정착농과 표류농이란 경작기간 중 일시적으로 화전소재지에 거주하다가 지력이 소모되면 휴한 또는 폐경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화전민을 말한다. 겸화전민은 화전과 숙전을 병경작하는 자로 병작화전민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만으로 생활할 수 가 없어 국유림에서 화전식경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순화전민의 경우 국유림에서 경작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퇴거명령이 내리지만 당장 그 생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의 화전민은 겸화전민이 많았지만 순화전민도 화전마을에 상당수 존재했었다고 보인다.

경작지 소재지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 이 분류는 화전민들이 경작하는 거주지의 소재지 여하에 의한 분류이며 국유림거주화전민과 민유림거주 화전민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국유림에서 경작하는 자는 순화전민일 경우가 많다. 국유림의 화전면적의 경우 순화전민보다 겸화전민의 면적이 많은데 이것은 자기 소유만으로 생활할 수 없어 국유림에서 화전 경작을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화전인 경우 국영목장에서 경작하는 자가 많았던 점을 미루어 보아 국유림화전민이 다수였다고 보인다.

생활수준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

① 지주화전민 이 계층에 속하는 화전민은 50~60일 경작(1일 경작은 평균 약 1,200평)

이상의 화전을 소유하여 수명의 고용인까지 있으며, 조·감자·귀리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경작지를 소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화전소작에 의하여 현저히 부유한 화전민을 지주화전민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주화전민은 대부분 그 마을의 개척자이며 입산 당시 풍부하고 비옥한 장소를 점유 경작하여 매년 수확을 증대해 온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평지에 가옥·경작지·자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 재산의 증식을 위해 화전식경작의 시기에만 전 가족 또는 일부만 국유림에 들어가서 적당한 경작지를 고른 후 농막(農幕¹)을 세우고 화전식경작을 하면서 재산의 증식을 기도하는 자도 있다. 또한 화전민사회에서도 평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부재지주나 기생지주가 존재하고 있었다.

제주도 농업에서는 지주나 소작보다는 자작농 비율이 높았다. 이는 토지생산성이 낮고 개간 가능 경지가 무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주화전민의 존재는 생겨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주도 전설에 나오는 '막산이 밭'은 부농이 자기 소유경지를 늘리기 위해 고용한 일꾼으로 하여금 밭을 개간하게 하여 생겨난 것인데, 이 경우와 맥을 같이 하는 예로 해석된다.

② 자작화전민 이 계층의 화전민은 평지의 농민에 비유하면 자급 자작민에 해당한다. 그들은 대개 입산 후 4~5년이 경과한 자이며 화전면적은 자기가족 외에 1명 정도의 고용인을 고용하는 정도로 수확량은 자가수지경제(自家收支經濟, 獨立家計)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제주도는 원래 자작농 중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작화전민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또한 개간을 위해서는 소 2마리가 필요한데 최소한 이 정도의 축력을 동원할 능력을 가지려면 자작농일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③ 소작화전민 이 계층 화전민의 일상 생활 정도는 자급화전민 이상이며 타인의 화전을 소작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들은 자기가 개간한 화전만으로는 면적이 적어서 자급자족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농촌의 촌공민의 경우와 같이 촌계가 되면 식량부족이 생겨 고리대업자인 화전지주에게 금전 또는 곡물 등을 차용하고 다음 수확기에 현금이나 곡물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마을구성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 이 분류에 따르면 집단거주 화전민과 독주(獨住, 독립거주)화전민으로 나눌 수 있다. 집단거주화전민은 수십가 또는 수십호의 화전민이 작은 마을을 구성한 후 상부상조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화전민은 겸작화전민이 많았다.

독주화전민²)은 부득불 또는 고의로 마을사람과 함께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외딴집을 짓고 사는 화전민을 말한다. 그들은 대부분 이동화전민 또는 국유림에 거주하는 순화전민이다.

1899년 5월에 전국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제주군읍지』 중의 『제주지도』에는 목장의 상앗성 위쪽으로 여섯 군데에 화전동(火田洞)이 표시되어 있다. 아울러 지도 뒤의 읍지 본문에 화전세를 수세하던 기록이 있어 산장이 있던 곳에 화전촌이 형성되어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세금을 거두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에 마을 단위의 집단거주 화전민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화전민의 발생 원인

조선총독부(1928) 보고서에는 화전민 발생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① 평지에서 자산을 잃어도 화전에 의하여 용이하게 경작지를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 ② 신규화전은 대부분 평지의 속전보다 비옥하다.
- ③ 대개 각종의 세금·공과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으며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낮은 과세부과로 그친다.
- ④ 벽지의 화전민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휘 감독 내지 장려지도 등의 기회가 적으므로 안이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기가 쉽다.
- ⑤ 점유한 화전의 지력이 소모되면 다시 새로운 화전지로 이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력보전을 위한 퇴비, 금비 또는 토사유출 및 토양보전에 대한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⑥ 삼림령, 기타 임산물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규정이 있지만 일단 입산하여 가옥을 건축하고 토지를 개간하는 화전민에 대해서는 삼림감독관이나 일반경찰의 강제철거 및 단속이 극히 곤란하다.
- ⑦ 화전민의 생활은 대부분 빈곤하며 이른 봄이면 저장하였던 농산물을 거의 소비하여 새로운 곡물이 나올 때까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자가 많다. 그들은 삼림법 및 농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도 옥사의 식생활이 오히려 자기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 처벌은 화전민에게 그다지 고통이 되지 않는다.
- ⑧ 화전 모경(冒耕)에 의하여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을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도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⑨ 국유림, 또는 공유림 내의 화전 침간자가 기소유예, 징계처분 혹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으면 자기가 침간(侵墾)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토지가 자기 경작지로 공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자기는 얼마를 정부에 납부하였으니 이 화전은 자기 화전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⑩ 화전민들의 동계 연료문제는 식생활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 화전민이 산중에서 마음대로 연료를 획득해도 이에 대한 죄책감이나 단속의 문제가 없다.
- ⑪ 지방행정관이나 사법 관리들의 대부분은 화전민이 먹고 살기 위하여 부득불 화전을 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화전민은 그들이 엄중히 처벌을 안 한다고 믿어 태연하게 화전을 모경한다.

이를 참고로 하여 제주도 화전민의 특성을 고찰하면, 제주도 역시 용이하게 화전에 의하여 경작지를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 화전민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휘 감독 내지 장려지도 등의 기회가 적으므로 안이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기 쉬운 장점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점유한 화전의 지력이 소모되면 다시 새로운 화전지로 이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력보전을 위한 퇴비, 금비 또는 토사유출 및 토양보전에 대한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삼림령, 기타 임산물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규정이 있지만 일단 입산하여 가옥을 건축하고 토지를 개간하는 화전민에 대해서는 삼림감독관이나 일반경찰의 강제철거 및 단속이 극히 곤란한 점도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 화전민들의 동계 연료문제는 식생활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 화전민이 산중에서 마음대로 연료를 획득해도 이에 대한 죄책감이나 단속의 문제가 없었다.

이와 함께 제주도 화전은 화전지대의 주민들뿐 아니라 제주도 밖에서 흘러들어 온 이주민들도 화전지대로 이입되었다. 1862년 ‘강제검의 난’ 당시 민란주도자였던 김석구 형제와 1901년 민란의 이재수 역시 민란이 발생하기 전 바로 이 화전동에 정착하였다. 그런데 이 화전동에 대한 화전세의 징수가 화전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어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되자 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남학당 사건 역시 동학혁명 이후 제주도에 들어와 대정현 광창리 일대에서

화전을 하던 남학당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화전민의 경제생활

일제하 제주도 화전민들의 생활상태를 高橋昇(1997)의 자료에서 살펴보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주도내 타 지역과 혹은 한반도의 타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표 4-4>.

이에서 보면 제주도 고지대가 노동에 대한 소비 비율이 가장 낮다. 즉, 노동비용은 중간지대 보다 높으나 소비는 아주 적어 차액비율이 가장 커 보인다. 또한 공과금 지출이 타 지역에 비해 거의 없고 문화비 지출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요약하면, 제주도 고지대에 거주했던 화전민들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아주 적었으며 특히 공과금, 세금, 문화비에 대한 지출이 아주 적었다<표 4-5>.

전체적으로 내륙지방 중 가장 열악한 지역과 제주도의 가장 앞선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제주도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제주도의 가장 열악한 지역, 즉 산간지역과 내륙의 가장 좋은 지역, 황해나 평안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2.5 배가량 제주도 산간지방이 뒤쳐져 있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화전지역은 제주도 고지대인 산간지역이다. 따라서 제주도 화전지역은 육지부에 비해서는 2.5배가량 뒤쳐져 있고 제주도 해안이나 중산간 지역에 비해서도 2 배가량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공과금은 타 지역에 비해 거의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료품비에서 차이가 다소 적었고 문화비, 교육비 등의 차이가 크다. 이는 산간지방이 그 당시에 해안지방과 달리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화전민의 생활 : 제주의 마지막 화전민

제주의 마지막 화전민으로 알려진 강○○(80세, 서귀포시 동흥동 거주)은 서귀포시 서흥동 굴천동에서 태어났다(태어날 당시 그의 부모는 화전마을인 서귀포시 동흥동 연적골에서 거주하였으나 어머니가 친정인 굴천동에서 그를 출산하였다.) 출생이후 1942년(14세)까지 연적골에서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자 동흥동으로 내려왔다. 제주의 마지막 화전민(『동흥동마을지』에 근거함)으로 알려진 강○○ 할머니의 화전마을 연적골에 대한 기억은 다음과 같다<사진 4-4>.

연적골이 융성했을 때는 연적골 마을에는 18가구 정도가 살았다. 주로 보리, 조(주로 맞시리), 피, 메밀, 감자, 토란 등을 경작하며 살았는데, 무, 배추, 참깨 등은 오히려 아래 마을보다 수확이 잘 되었다고 한다. 살았던 집은 주로 삼칸 초가집이었다. 집은 큰방(안쪽에 고팡), 마루(마루에 봉덕), 작은방(작은방 안쪽에 부엌)으로 이루어 졌다. 방을 만드는 법은 우선 돌(평판석)로 밑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다음 감을 으깨어서 바른 다음 초석이나 부드러운 풀을 깔면 된다. 벽은 돌로 쌓고(한 단 쌓고 흙으로 덮고 다시 한 단 올리는 식) 부드러운 흙으로 마무리하였다. 농사 수확을 주로 마당에서 했기 때문에 마당은 200~300평 정도로 넓은 편이었다.

작은방 옆쪽에는 ‘dot통’(돼지우리)이 있었는데 dot통에선 돼지 1~2마리가 사육되었고, 거름을 장만하였다. 집 안쪽에는 ‘쉐막’(외양간)이 있었는데 크기가 컸다. 이 ‘쉐막’에는 본인 소유의

소와 아랫 마을에서 말아 키우는 소가 10여 마리 있었다. 이 '췌막' 한쪽에 방을 꾸며 찾아오는 손님이나 소를 돌보는 사람이 머물렀다. 강 할머니 가족이 연적골에 살기 시작한 것은 강 할머니의 증조할아버지의 자식 중 막내인 할아버지가 장전에서 연적골로 이주하면서부터다.

연적골 주변에는 연적골 외에도 여러 화전마을들이 있었다. 석수밭, 쇠물도, 시오름 옆 3거리, 각수바위 근처 등에 크고 작은 화전마을이 있었다. 이외에 종정굴(위미 다음) 생물도(강, 이 씨 주거), 굴왓(오 씨 주거) 등에도 화전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후까지 남은 화전마을은 연적골뿐이다.

1930년대까지 연적골에는 'ㄱ레'(연자매)가 1곳이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제주마을엔 'ㄱ레'가 12~15세대당 1곳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적골에는 그 정도의 농가가 있었고 일정 정도의 수확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 할머니 집에는 도고방아가 1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사 때면 강 할머니 집에 와서 빌려가곤 했다고 한다.

연적골에서는 농사 외에 부업으로 아랫마을에서 소를 올리면 미악산 근처에서 말이나 소를 돌보는 일도 하였다. 이외에 역시 농가부업으로 숲을 굽기도 하였는데 일제시대에는 허가를 받고 일본인에게 구입한 나무만을 가지고 숲을 구웠다고 한다. 농가부업인 숲 굽기는 우선 땅을 약간 파서 숲굴(가마)을 만든다. 입구는 보통 방문 정도였다. 숲 굽기를 할 나무는 요시모도상에게 구입했다(나무마다 도장 찍음). 보통 숲 굽기는 여러 사람이 한번에 숲을 구웠다(보통 백탄). 혹은 땅위에 흙을 쌓고 흙 위에 담을 쌓고(숲가마) 흑탄을 굽기도 하였다. 한편 연적골 주위에는 표고버섯밭을 운영하는 일본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하치마키 도로를 만들고 한라산 고지대에 밭을 사서 한라산을 둘러싸며 담을 쌓고 그 곳에서 표고버섯밭을 운영하였다.

연적골에도 나는 물이 있었다<사진 4-5>. 나는 물의 이름은 '산물'이다. 산물의 수량이 풍부해서 식수나 생활용수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산물 근처에는 본향당이 있었는데 일년에 세 번 정도 다녔다.

강 할머니의 밭에서는 보통 일 년에 메밀 서른 섬을 수확하였다. 그래서인지 마을 인심은 후한 편이었다. 저녁에는 대개 솔각(송진), 호롱불이나 각지불을 켜고 살았고, 남포등은 특별한 날에만 켜다.

농사 외에 고구마, 토란, 양에, 산마 등이 많이 생산되어 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다. 제사 때면 아버지가 한 달 전에 '솔라니'(옥돔) 한 마리를 사다가 새로 만든 도구에 소금 간 많이 하고 싸서 방 위에 매달아 두었다가 제사용으로 사용했다.

화전마을의 교육열은 대단해서 강 할머니 남동생은 6세 때부터 지금의 서귀포시 1호 광장에 있는 서당에 아버지가 태워주는 말을 타고 통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딸인 강 할머니는 서당에 가는 대신 물로 연필을 적셔가며 동생 어깨 너머로 천자문을 습득하였다. 지금도 그 때 익힌 한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한라산의 목장과 목축업

조선 전기 한라산 목장

조선시대에 있어서 말은 대내외적으로 역마 및 전마,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고려시대의 목장을 재건하거나 물과 목초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목장을 신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섬 지역인 제주도에서는 목장이 해안지역에서 중산간 지역으로 이동되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목장지역을 중산간 지역으로 옮긴 배경은 첫째, 방목하던 말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에서 목초부족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삼림지에서의 방목 필요성 때문이다. 즉, 삼림지 방목의 경우 목초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피서에 유리한 지역이므로 중산간의 삼림지역에도 방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산간 지역을 개간 제한지로 묶어 목장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농경지 개간을 금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축지를 확보하려는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429년경에 제주도 출신의 관료였던 고득종(高得宗)은 해안지대에서 중산간 지대로의 목장 이설을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였다.

“한라산 변두리 사면 약 4식(120리) 되는 땅에 목장을 축조하여 공사의 말을 가리지 않고 들여보내 방목하게 하고, 장내(목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주거민 60여 호는 모두 장외로 옮기게 하여 소원하는 대로 땅을 떼어 주십시오.”

이러한 제안이 수용된 뒤, 1430년경부터 중산간 지역에 165리 규모의 잣성이 축조되면서 중산간 목장이 형성된 것이다. 목장의 형성과정에서 목장 밖으로 옮겨진 민호가 344호인 것으로 볼 때, 1400년대 초에도 중산간 일부 지역에는 산촌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약 500여 명의 인구가 목장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산간 지역의 목장화는 삼읍 설치 이후, 1430년대부터 지역주민들을 동원한 축성 정책과 장내의 거주민들을 장외로 옮기는 이주정책을 통해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소유인 국마와 주민소유의 사마를 국유지인 중산간 목장에서 공동으로 방목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도 중산간 목장지대를 개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도 목장의 근간인 중산간 목장(十所場)이 143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형성 당시 중산간 목장의 규모는 1개 목장의 주위가 45~60리였다. 1440년에는 제주목사가 3읍 감목관을 겸직하여 제주도 전 지역의 마정을 통솔하였다. 그리고 『經國大典』(1485년)의 규정에 따라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을 1군(字牧場)으로 삼고, 1군 당 군두 1명(암말 100필 관리)과 군부 2명(1인당 암말 50필 관리), 목자 4명(1인당 암말 25필 관리)이 목장을 관리하였다. 15세기 말에 중산간 목장은 10개의 소장으로 분할되었다.

조선 후기 한라산 목장

중산간 목장

조선 후기 제주도의 목장은 입지장소에 따라 중산간 목장, 산간목장, 해안목장, 도서목장으로 구분하였다. 산간지역과 해안 및 도서지역에도 관설목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선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목장의 공간확대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중산간 목장은 십소장, 산간목장은 산마장, 해안목장은 우목장, 도서목장은 우도장과 가파도 별둔장이 해당된다. 중산간 목장인 십소장 내에는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천자문의 글자로 낙인하여 군으로 편성한 후 만든 자목장이 소장별로 분포하였다.

17세기 중반에 중산간 지역에는 11개 소장에 58개 자목장이 분포하였다. 이것은 『耽羅志』(1653년)에 제주목 7개 소장에 38개 자목장, 정의현 3개 소장에 17개 자목장, 대정현 1개 소장에 3개 자목장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8세기로 들어오면서 목장 수는 5~6개 증설되었으며, 목장의 위치가 고지도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漢拏壯堦」에 의하면, 말을 키웠던 소장을 대소장과 소목장으로 구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목장을 관리했던 방호소와 목장명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자목장의 명칭을 천자문의 글자로 명명한 황자장, 진자장, 현자장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둔, 산장, 좌장 등의 위치와 경계 및 삼림대의 분포가 표시되고 있다. 목마를 주로 했던 제주도에서 삼림의 분포는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였을 것이다. 즉, 삼림 내부는 삼림 외부에 비해 일사량이 적고, 습도가 높으며 증발량과 기온교차가 적은 성격을 나타내는 곳으로, 특히 여름철 방목지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형상(李衡祥)의 『南甯博物』(1703년)에 근거하여 목장의 공간분포를 보면 첫째, 제주도에는 63개의 자목장이 역적으로 세분화되어 분포하였다. 둘째, 3읍별로 목장의 관리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장의 관리장소는 해안지역에 위치했던 진(鎭)으로, 진성(鎭城)에 주둔한 군인들까지 목장관리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목장 명칭이 1소장부터 10소장까지 연속되지 못하고 일소(大一所)·이소·삼소(大三所)·사소까지 되어있다. 넷째, 대정현 지역의 모슬소(鎭)와 차귀소(鎭)는 자목장을 관리했을 뿐 이 지역에는 소장이 표시되지 못하였으며, 차귀소는 해안지역에 형성되었던 열·별·현 자목장을 관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산간 목장

제주도의 산간목장은 해발 400m 이상의 지역, 즉 삼림지와 초지대가 혼재하는 지역에 분포하였던 산마장으로, 김만일(金萬鎰)의 사목장에서 기원한다. 즉, 남원·표선 중산간 일대에서 사목장을 개척했던 김만일(1550~ 1632)이 임진왜란으로 각 소장에서 말이 징발되었으나, 한반도에서 전마가 부족하자 1600년(선조 33년)과 1620년에 각각 전마 500필을 국가에 헌납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현마한 말을 사육시키기 위해 제주목과 정의현의 경계 일대에 1620년에 동·서별 목장을 설치하였다. 이후 1658년에 제주목사 이괴(李F)의 건의로 동·서 별 목장이 산마장으로 개칭됨으로써 산마장이 제주도의 동부 산간지역에 형성되었다.

산마장의 공간분포를 보면 9소장 위에 2개, 10소장 위에 2개, 2소장 위에 1개, 3소장 위에 1개로서 모두 6개로 분화되었다. 「濟州三縣圖」에는 3소장 위에 1개, 2소장 위에 1개, 1소장 위에 1개, 10소장 위에 1개, 9소장 공간범위 내에 2개 그리고 9소장 위에 1개로, 모두 6개의 산장이 분포하였다. 「제주삼읍도총지도」(1770년대)에는 제주도의 동부 산간지역에 10개가 분포하여 산마장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8세기 후반인 1724~1800년에 침향·상장·녹산장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산마장은 제주도의 산북 동부지역인 조천읍·남원읍·표선면 중산간 일대인 해발 400m 이상의 지대에 분포되었으며, 서부지역에는 분포하고 있지 않는 것

이 특색이다. 동부 산간지역에는 중산간 목장인 십소장(10개의 소장)의 위치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도 지형적으로 완경사지가 넓게 분포한다는 점, 그리고 일제강점기부터 실시된 조림사업의 결과, 현재는 삼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으나 삼나무로 조림되기 이전에는 초지군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산마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산마장의 모태가 된 김만일의 사목장이 동부 산간지대에 입지했기 때문에 산마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산간목장의 관리를 위해 산마감목관제가 신설되었다. 김만일이 마필을 헌마한 공을 인정하여 김만일의 아들인 김대길(金大吉)을 산마감목관으로 임명한 후 산마장을 관리시켰으며, 이후 산마감목관은 6년마다 김 씨 가문의 후손들에게 세습되기도 하였다.

침장, 상장, 녹산장으로 분화된 산마장의 주위는 200여 리였으며, 방목에 필수적인 수처(水處)는 23개가 산마장 내에 분포하였다.

마을 공동목장

형성 배경

제주도에서 목장의 시작은 1276년부터 몽골(元)이 제주도 동부지역에 ‘탐라목장(耽羅牧場)’을 설치하면서부터다. 그 후 1430년대부터는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에 국가가 관리하는 십소장(十所場)과 산마장(山馬場)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목장 내에서의 화전농업이 허용되면서 목장지역이 농경지로 개간되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1894년부터 관설(국영) 목장을 유지시켰던 감목관제(監牧官制)와 공마제(貢馬制)가 폐지되면서 마침내 십소장과 산마장이 폐장되었다. 이후 이 곳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인 상태로 남아 화전민들에 의해 화전농업 지역이 되었으며 일부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개별적인 목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마을공동목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각종 자료에 근거해서 볼 때 193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1910년대에 이루어진 토지세부측량(土地細部測量)에 의해 마을간 경계가 설정된 후 중산간 십소장 지역이 마을별로 분할되어 1930년대부터 110여 개의 마을공동목장으로 재편성된 것이다. 당시 마을공동목장은 주민들에 의한 무분별한 난방목(亂放牧)으로 인해 목야지가 황폐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 당국이 1933년에 만든 한라산 「목야지정리계획」에 의해 각 마을(里) 단위로 설립된 것이다.

마을 공동목장이 형성되기 이전인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조선시대 관설목장이 입지했던 중산간 지역은 해안지역 주민들과 인근 중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화전농업 지역이 되었다. 즉,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과거 목마장지대는 모두 관유지(官有地)로서 일정한 세금(火田稅)만 내면 도민 누구나 이를 개간·경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간한 토지는 모두 점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축으로 특화되었던 중산간 지대는 1900년대 초에 이르러 가축방목뿐만 아니라 농경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농목교체형(農牧交替型) 토지이용 형태로, 이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상жат성과 하жат성의 중간부분인 해발 300~400m 일대에 중жат성을 쌓아 활용하였다. 여기서 농목교체형 토지이용이란 중жат성을 중심으로 하여 중жат성의 하부지역(중жат성~하жат성)을 경작할 때는 우마를 중жат성의 상부지역(중жат성~상жат성)에 방목하고, 중жат성의 상부지역을 경작할 때는 중жат성의 하부지역에 우마를 방목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

런데 이 때 이루어진 우마방목은 아직 마을 공동목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마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방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마을별로 마을 공동목장이 중장성과 상장성 사이 또는 상장성 위쪽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앞서 마을 공동목장은 1800년대 말기 또는 1910~1920년대에도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리학적 측면에서 마을 공동목장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제주도의 토양은 대부분 화산회토로 바람에 흩날리는 ‘뜯 땅’이기 때문에 농작물 파종시 종자의 발아·정착이 잘 안되어 진압농법(鎭壓農法)을 위한 인력이나 축력이 더해져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방목의 형태로 제주마(조랑말)를 많이 사육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들 제주마를 키우기 위한 마을 공동목장이 중산간 초지대에 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목장은 진압농법에 이용된 말의 공동관리, 사육을 위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930년대 이전에도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濟州島勢要覽』(1939년)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형성된 마을공동목장은 <표 4-6>에서와 같이 모두 116개였다. 이를 당시 마을의 수와 비교해 보면 한 마을 당 1~2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간혹 초지면적이 넓은 마을인 경우 2개 이상의 마을 마을 공동목장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 공동목장의 토지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임대한 차수지(借受地)가 27.7%, 무상으로 기부 받은 토지가 21.4%, 대금을 지불하여 구입한 매수지가 50.9%로 구성되었다.

한편, 매수지(買收地)의 구체적인 사례는 서귀포시 토평동 마을공동목장 조합원 후손이 보관하고 있었던 「경작권인허증(耕作權認許證)」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1937년의 자료로, 당시 마을 공동목장조합은 목장용지로 이용될 토지를 소유주들로부터 염가로 매입하였으며 그 대신 주민들에게 목장 내 「경작권인허증」을 발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목장조합은 토지소유주에게 마을공동목장조합장과 부조합장 그리고 마을 대표인 일·이구 구장(區長) 및 관할구역 면장이 연서로 서명한 「경작권인허증」을 발급하여 목장지 내에서 경작할 수 있는 특전을 영구히 부여하였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과금은 소유권을 취득한 이(里)가 부담하였으며, 본 증서에 기재된 농작권(農作權)은 상속 또는 양도할 수 있었고, 이 증서를 상실하거나 헐어서 찢어졌을 때에는 해당 마을대표 구장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 구조

자연경관 마을 공동목장은 지리적 위치로 볼 때 “겨울철에도 눈이 잘 내리지 않아 따뜻하고, 봄철에는 풀이 무성하며 그리고 방목을 위협하는 맹수가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마을 공동목장의 자연경관은 인공극상의 2차 초지대·축화산·하천·삼림지·꽃자왈·화산회토·용암평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 요소들은 목축의 공간적 확대를 좌우한 중요한 환경조건이었으며, 크게 식생조건, 기후·지형조건, 토양조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식생조건은 방목우마의 사료공급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입지인자로, 마을공동목장이 입지한 해발 200~600m 일대에는 자연초지와 더불어 ‘꽃자왈’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해발 200~350m 지대는 반경작(半耕作), 반방목(半放牧)을 하는 곳으로, 이 중 반방목 지대에는 동계 월동 사료인 건초(乾草)를 생산하는 채초지(採草地)가 위치하고 있었다.

중산간 지대의 주요 식생인 2차 초지대는 관설(국영)목장, 마을 공동목장, 개인 목장 등으로

이용되어 왔고 소유형태에 따라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나누기도 하였다. 마을 공동목장의 2차 초지대에는 해마다 봄철에 '방애'(放火)를 놓아 병충해와 잡목을 제거하는 전통이 있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자연초지대를 개간하여 목초씨를 파종하는 초지개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방목우마들이 강렬한 태양열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인 '그늘케'가 사라져 태풍과 집중 호우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마을 공동목장 내에는 군데군데 '곶자왓'이 분포하고 있다. '곶자왓'이란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혼재해 있는 곳으로 토심(土深)이 얇은 황무지인 '자왓(磊野)'과 나무숲을 의미하는 '곶(洞藪, 磊林)'이 결합된 용어이다. 이 곳에는 이끼류, 양치류, 초지성 식물, 화초류, 수목(침엽수, 활엽수) 그리고 습지(물웅덩이)가 발달하여 방목 중인 가축들이 물과 먹이를 확보할 수 있고 풍우설(風雨雪)을 피할 수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목축을 위해 중요한 곳이었다.

둘째, 기후조건을 보면, 먼저 기온조건은 가축 방목기간에 영향을 준다. 비록 지역차가 있으나 대체로 마을공동목장에서의 방목기간은 평균 5개월이며, 방목은 음력 3월 청명(淸明) 이후에 시작하여 늦어도 음력 10월 상강(霜降)이면 종목(終牧)되었다. 특히 종목시기를 기온과 연결시킬 경우 일평균 기온이 5°C이하로 내려가면 목초생육이 정지되기 때문에 5°C 되는 날로부터 60일 전에 마지막 방목을 끝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1월 평균기온이 4.8°C가 되므로 음력 10월에 종목시켜야 한다.

강수량을 보면, 방목지대가 되는 중산간 지역과 산악지역의 강수량은 지형성 강수현상에 영향을 받아 각각 1,780mm와 2,766mm로 나타나 다우지역이 되고 있다. 적당한 강수량은 목장 내에 설치된 급수통과 연못에 물을 채워 우마들에게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지나치게 강수량이 적어 목장에 물이 마를 경우 방목책임자인 '테우리(목자)'들이 우마를 이끌고 하천으로 이동하여 하상(河床)에 고인 물을 먹이거나 해안지역의 용천수를 찾아 이동해야 했다. 방목기간은 적설기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중산간 지역은 지형조건에 의해 기온이 해안지역보다 빨리 떨어지는 곳이므로 강설현상이 일찍 나타난다. 그리고 적설기간이 해안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봄철 새로운 풀이 돌아나는 시기 역시 느리다. 강설현상이 나타나 눈이 쌓이는 하한선인 설선(snow line)은 대체로 마을공동목장의 상한선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지형조건을 보면, 중산간 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대체로 해발고도 200~600m, 경사도 5~15. 의 완만한 지역이며, 전체면적은 589.0km²로, 제주도 총면적의 32.2%에 해당한다. 고도별로 보면, 200~300m 지역이 12.7%를 차지하여 가장 넓게 분포하고, 300~400m 지역이 8.8%, 400~500m 지역이 6.4%, 500~600m 지역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곳에는 화산활동의 산물인 광활한 완경사지와 용암평원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완경사지에는 마을 공동목장이, 용암평원에는 육우(肉牛)를 사육하는 기업목장이 입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산간 지대에는 측화산(오름, 기생화산)과 하천이 분포하고 있다. 측화산은 목장간의 경계나 방풍의 기능 및 여름철 방목지로 활용되었으며, 우마들의 방목상태를 관찰하는 '망동산'이 되기도 하였다. 하천들은 대부분 하폭이 3m 이하인 세류(細流)에 해당되며, 마을공동목장을 구분하는 자연적 경계선 역할과 우마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기능도 하였다.

넷째, 마을공동목장의 토양은 대부분 화산회토다. 이 토양은 모관공극(毛管孔隙)이 잘 발달하여 배수가 양호하고 보수량(保水量)이 큰 반면에 한발을 일으키기 쉽고 토양침식을 받기 쉽다. 이러한 토양환경은 목초가 잘 자라 화산회토와 마을공동목장 지역의 분포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산회토는 목장에서 '방애(放火)'가 타오를 때 표토유실이 크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방애'로 인해 초종(草種)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일년생 종자식물은 자생이

관란하며 다년생 숙근초류와 양치식물이 우점(優點)되어 왔다. 그 결과 마을 공동목장에서는 해마다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목장 내 고사리를 제거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 경관을 갖는 마을 공동목장의 지역적 분포는 <그림 4-2>와 같다.

문화경관

마을 공동목장과 관한 문화경관으로는 마을 공동목장을 움직인 관리체계(조직)와 목축민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목장시설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창출된 목축문화가 있다.

관리체계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마을 공동목장은 각 마을별로 주민들이 조직한 목장조합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러한 마을 공동목장조합은 <그림 4-3>과 같은 관리체계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을 공동목장조합은 당시 일제 식민지 당국인 제주도사(濟州島司)와 제주농회(濟州農會)의 감독을 받았다. 제주도사는 목장조합의 설립과 조합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승인권을 행사했으며, 제주농회는 각 마을공동목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제주농회의 통제를 받는 농회 읍면 분구장(農會邑面分區長)은 읍·면별로 조직된 마을공동목장조합연합회를 관리했으며, 읍·면별 마을 공동목장조합연합회는 각 마을별 마을 공동목장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관리체계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 마을별 마을공동목장조합은 조합장·부조합장·평의원회·간사·목감으로 구성되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일체의 사무를 맡았다.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보좌하였으며, 유사시 조합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였다. 평의원은 조합장의 자문에 응하면서 조합업무의 집행 및 조합재산의 변동을 감사(監査) 하였다. 조합장 및 부조합장 사고시 연령 순서에 의해 조합장의 직무를 대리하였다. 사무원으로 간사 1인과 목감 1인을 두었다. 간사는 조합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 및 회계 사무에 종사하였다. 목감(牧監)은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목장에서 우마의 사육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평의원회는 조합장의 마을 공동목장조합 운영을 보조하는 성격을 갖는 기구였다. 평의원 회의는 평의원 반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목장시설 마을 공동목장에는 급수장(給水場)·간시사(看視舍)·가축수용사(家畜收容舍)·급염장(給鹽場)·목장도로(牧道)·경계 돌담이 있었다. 이 중에서 급수장은 우마에게 물을 먹이는 곳으로 가장 필수적인 시설물이었다. 이것은 마을공동목장이 위치한 중산간 지대가 다우지에 해당되지만 배수가 잘되는 화산회토가 분포하고 절리(joint)가 발달된 현무암층이 지표층을 넓게 덮고 있는 환경조건으로 인해 물이 부족한 핍수(乏水)지대였기 때문이다. 하천 역시 평상시에는 물이 말라 있는 건천(乾川)이기 때문에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장조합원들을 동원하여 급수장 시설을 하거나 혹은 못을 파서 봉천수(빛물)를 저장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간시사는 목장을 관리하는 목감이 방목기간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던 가옥이었다. 가축수용사는 비, 눈, 바람이 불 때 우마를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축사였다. 급염장은 우마에 소금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 목장경계에는 돌담을 쌓아 목장공간을 구획하였다. 해마다 봄철이면 마을주민들이 출력(出力)하여 공동으로 돌담을 보수하였다.

이밖에 수원(水源) 함양과 방풍을 위해 목장림(牧場林)을 식재하였다. 그리고 자연초지 이외의 목초확보를 위해 싸리·자골(荳茶)·귀리(燕麥) 등을 재배하여 우마 사료로 활용하였다. 편리한 목장 출입을 위해 목장 진입로인 목도(牧道)가 만들어졌다.

한라산의 목축업

한라산의 목축업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82개의 마을 공동목장과 38개의 전·기업형 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형 목장으로는 조천읍 교래리와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위치한 제동목장과 한림읍 금악리 금오름 일대에 위치한 이시돌 목장, 그리고 구좌읍 성읍리에 위치한 남영목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목장에서는 한우, 돼지, 양 등을 사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젓소사육을 통해 낙농업을 하고 있는 전업형 목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장들은 모두 한라산이 제공하고 있는 완경사지와 여기에 발달하고 있는 초지환경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또는 목초조성을 통해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한편 한라산지의 목장에는 제주도의 전통적 목축문화가 남아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중산간 지역의 자연초지대를 이용해서 목축생활을 하며 만들어 놓은 일체의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축문화는 최근 들어 마을 공동목장이 골프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점차 소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축문화의 성격은 1년 동안 방목지에서 이루어지는 목축력(牧畜曆)을 통해 알 수 있다<표 4-7>.

공동목장의 방목기는 대체로 음력 3월(양력 4월)부터 음력 9월(양력 10월)까지, 겨울과 봄철에 축사에서 기르는 가사기(家飼期)는 음력 10월부터 2월까지였다. 한편 현재 제주도 마을 공동목장은 대상마을 106개, 목장수는 75개소로 총 면적은 9,326ha에 달하고 있다. 공동목장 현황은 <표 4-8>과 같다.

방목

중산간 지대의 방목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방법으로 해발 200~300m에서 600m(이 주변에 상앗이라 하는 감목관 시대 목장 경계인 울타리가 있다)에 이르는 지역에서 방목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여러 가족이 연합하여 우마를 만들어 가족 교대로 책임을 맡는다. 종일 감시자를 둔다. 농번기가 지나면 감시의 책임은 각자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만 매일 옆에 붙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망보러 가는 정도이며, 우마는 자유롭게 방목한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풀을 따라 한라산정 부근까지 올라갔던 우마들이 큰 눈 때문에 움직이기 곤란하여 하산할 수 없으므로 마소들을 모아서 좁은 휴한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산간지대의 방목 이 곳에서는 완전히 산악지대에 우마를 방목하여 다만 때때로 살펴보는 정도로, 완전히 우마의 자유에 맡겨두는 방식이다. 한적한 산중, 특히 상앗성 위에서 방목하는 우마는 점점 산위로 올라가 겨울에 큰 눈을 만나 죽지만, 늘 방목하던 우마는 도리어 산정 가까이 오르지 않으며 가을이 되면 스스로 내려와서 얼어 죽지 않도록 훈련되었다. 초지 경계도 나누지 않은 곳에서 방목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마에 표시를 한다. 표시는 마을마다 다르지만, 소에는 표를 찍고 말에는 귀를 자르는 것이다. 이를 낙인(烙印)과 귀표(耳標)라 하였다.

이목(移牧)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지는 방목형태는 계절적 방목에 해당된다. 이것은 지리학적 의미에서 이목(移牧)에 해당된다. 여기서 이목이란 겨울철에는 저지(低地 : 해안마을)에서 목축을 하다가

여름이 되면 산지(중산간)로 이동해 가축을 사육하는 형태로, 제주도는 해안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수직적인 지형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온난한 해안 취락지역(0~100m)에서 방목한 후 새로운 풀이 돌아나는 양력 4월부터는 다시 중산간 지역(200~600m)의 공동목장으로 우마를 이동시켜 방목을 하는 것이다. 즉, 일정 계절(여름~가을) 동안 공동목장에서 방목한 후 추석을 지낸 후 한겨울을 지낼 '출'(풀)을 베어 건조로 만든 다음 음력 9월경 공동목장의 우마들을 해안 저지대의 축사로 몰고 와서 키우는 방목형태이다. 이러한 이목은 제주도의 기후와 지형환경이 만들어낸 전통적 방목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진 이목의 구체적인 형태로 일명 '번치기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번치기 목축'이란 마을 사람들끼리 일정한 차례로 순번을 정하여 들과 산이나 공동목장에서 방목시킨 우마를 관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동목장의 방목과 관련하여 '캐파장, 방둔, 간목, 번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를 끈다. 이는 애월읍 고성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성리 공동목장의 우마 사육방법을 보면, 음력 4월이 되면 '방둔'하고 9~10월 쯤 되면 '간목'하였다. 여기서 방둔은 우마를 공동목장으로 올려 여름 동안 방목하는 것을 말하며, '간목'은 겨울이 되어 우마가 공동목장의 야산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되면 마을로 이끌고 와서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우마의 수가 3~4마리인 경우에는 축사를 지어 간목하였지만 그 수가 많을 때는 인근 자기 밭에 가둔 다음 '출(건초)'을 주면서 사육하였다. 그리고 공동목장에 방목시에는 목감(牧監)을 두어 우마를 관리하게 하였고, 그 대신 목감(캐파장)에게는 우마의 두수에 따라 보리쌀로 그 값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번곡'이라 하였다. 번곡은 탈곡한 보리로 하였는데 조합원인 경우에는 녀 되(소두 한 말), 비조합원인 경우는 여덟 되, 어린 송아지의 경우에는 그 절반을 받아 목감 급료로 주었다.

낙인

낙인은 자형(字形)이나 도형(圖形)이 새겨진 쇠붙이를 달구어 가축에 찍는 일종의 쇠도장을 의미한다. 제주지방에서 낙인은 조선시대의 십소장(十所場) 운영을 위한 마정(馬政)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데, 말의 생산, 사육,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낙인의 자형과 도형 표시는 국마(國馬)와 사마(私馬)를 구별하였고, 국마를 사육하는 관설(국영)목장에는 천자문의 순서인 천(天), 지(地), 현(玄), 황(黃) 등의 자형을 낙인으로 이용하였다.

낙인을 찍는 장소는 대부분 대퇴부다. 간혹 귀에 하는 경우도 있다. 말에는 대체로 귀를 자르는 방식으로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새로 태어난 새끼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일은 엉덩이에 낙인을 찍거나, 귀표를 해놓는 방법을 택했다. 낙인은 무쇠를 가지고 자기의 성이나 정해진 약자를 만든 것인데, 이것을 불에 달구어서 짐승의 네발을 묶고 넘어뜨린 다음 엉덩이를 지진다.

귀를 자르거나 표시하고 번호가 쓰여진 니켈 귀표를 하는 방법은 훨씬 이 후에 이루어진 방법으로 귀를 'V'자나 'W'자로 잘라내었으며 보통 시월 첫 子日에 제를 지낸 다음 시행했다. 이와 같은 낙인찍는 작업은 비단 어린 새끼에만 한한 것이 아니었다. 해가 지나면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긱물·긱쇠'뿐 아니라 상산이나 목장에 풀어놓기 위해 다 자란 소들에게까지도 낙인을 찍었다.

이처럼 낙인은 많은 우마들을 공동으로 방목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거나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우마의 마을별, 개인별 소유관계를 확실히 밝혀주기 위해 행해진 것이

다. 낙인은 쇠꼬챙이 끝에 두 글자를 새긴 것과 한 글자를 새긴 것으로 나타난다. 두 글자는 마을이나 단체별로 사용하는 자형으로 이명(里名)을 새기고 있다. 한 글자를 새긴 것은 가문별, 개인별로 고유의 글자를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마을 단위의 낙인은 마을의 한자음을 그대로 쓰거나 상형화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을마다 공동목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변에서 방목하던 우마가 월장(越牆)하여 다른 목장으로 이동해 버릴 경우 이 가축의 소유관계를 구별하는 데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낙인은 글자의 획이 간명하면서도 표시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므로 획이 복잡한 글자는 피하였다. 획이 많은 글자로 낙인을 했을 때 낙인찍힌 상처 부위가 더 많이 만들어져 치유되는 데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는 낙인은 주로 공동목장에 방목하기 전인 봄철이나 방목을 끝내고 집으로 몰고 오는 가을철에 행해졌다. 낙인찍는 장소로는 목이 좁고 바닥 면적이 넓지 않아야 하며 담장이 높게 쌓아진 곳을 택하였다.

거세(불알·붕알 까기)

제주도에서는 소와 돼지를 거세한다. 그러나 전체 우마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위세 넘치는 소와 교배 후 수소나 돼지에 한하고 있다. 방법은 육지와 달리하고 있다. 소는 다섯 살 무렵, 돼지는 교배 직후 이웃 사람들과 교대로 남자 여러 명이 대상 동물을 앞뜰에 끌어다가 두 장의 목판에 고환을 짜내어 작은 칼로 외피를 열어 고환을 꺼낸다. 수술 뒤에 재와 소금을 집어넣고 울타리를 높이 하여 그 안에 풀었다가 상처가 아물 때까지 방치한다. 그러나 악전(惡田)이면 상처에 농이 생긴다고 믿는다.

방애(放火)

공동목장에서 목야지 불 놓기를 ‘방애’라고 불렀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방애를 화입(火入)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화입이라는 용어는 한글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용어, 즉 일본어 火入れ(ひい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공동목장이 일본 식민지 당국의 통제로 들어가면서 전통적인 용어인 방애가 일본어인 화입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러한 방애는 매우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다. 선인들은 오름이 많아 좋은 경작지를 구하기 어렵고 우마의 사육을 방목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화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방애가 금지되긴 했으나, 실효를 얻지 못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일본인 畠田重吉이 『제주도의 산업구조』에서 화입을 “당 지방의 절대적 관습”이라 하였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언급이다. 그러나 1968년 화전정리법이 발효되면서 국지적으로 남아 있던 화전(火田)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도 화학비료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불을 놓아 밭을 일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방목을 위한 방애만큼은 여전히 효용성이 인정되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과 초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방애의 전통은 사라지고 말았다.

방애는 경작을 목적으로 불을 놓아 밭을 일구거나 방목을 목적으로 불을 놓아 초지를 개량하는 일을 말한다. 전자를 화전, 후자를 방애 혹은 ‘들불놓기’라고 한다. 화전은 개별적이며 소규모로 불을 놓아 밭을 일군다. 들불놓기는 공동적이며 대규모로 불을 놓아 초지를 마련한다. 이 가운데 특히 들불놓기는 제주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문화 현상이다. 들불놓기는 오름이

나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오름들이 민동산인 것도 이 방애의 흔적일 것이라 한다. 또한 산소에 담을 두른 것도 마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들불농기로 인해 분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한다.

방애는 이른 봄 들판에 쌓였던 눈이 녹아 마른 풀이 드러날 때 이루어졌다. 새 풀이 돋아나면 마소를 방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들불농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들불농기를 하면 진드기 등 각종 해충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풀이 잘 돌아난다. 오늘날처럼 농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대적인 초지조성 작업을 벌일 형편도 못 되어, 마른 풀과 해충을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서는 들불농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들불농기는 마소를 방목하기 전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중요한 연중행사의 하나였다.

공동목장에 들불농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사람들이 함께 모여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적절한 날을 고르고 필요한 인원을 동원할 계획을 짰다. 들불농기할 날이 되면, 일기를 보아 바람의 방향과 그 변화 가능성을 잘 가늠하여 불을 놓고 번짐을 방지하였다. 어떤 마을에서는 들불농기 할 곳의 외곽에 물도랑을 쳐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들불농기에 대하여, 어떤 이는 “20~30년 전만 해도 방애를 하는 계절이 돌아오면 한라산 기슭에는 여기저기서 연기가 솟아올랐고 날이 어두워지면 불길의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커다란 꽃무늬가 밤하늘 아래 수놓은 듯 일대장관이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기형, 1990, 『제주풍속도』, 한라일보사).

공동목장의 방애는 진드기 등 병해충 구제와 가시덤불,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양질의 목초 생산과 방목공간의 확대가 가능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진 방애 놓기 과정에 대해 전술한 명월 공동목장조합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진드기 구제 및 전년도 잔초(殘草) 소각을 위해 적당한 시기를 골라 화입을 하도록 정하였다. 화입을 위해 먼저 목장 내에 남아있는 자갈을 일제히 제거하여 일정한 구석에 적치하였다. 그리고 목장의 주위에 폭 오간(五間: 5×1.8m=9m) 이상 풀을 베어내고, 방화선을 설치하여야 화입출원을 할 수 있었다. 화입이 이루어질 각 부분에 관계 마을주민들을 동원, 배치하여 화입을 한 다음, 다른 쪽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하였다. 화입허가원은 1월 말까지 읍면공동목장연합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화입 시기는 지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해안지대는 2월 하순, 중간지대는 2월 초순, 그리고 산간지대는 3월 중순경이었으며, 온화한 날을 골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공동목장의 방애 놓기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제주시 영평동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 다음과 같다.

4·3 전까지만 해도 화입 관행이 이루어져 왔었다. 화입이란 음력 3월 초순 경 마소 떼에 기생해 사는 병충해(‘점역 또는 부그리’)를 없애고 묵은 잡초를 태워 버린 후 새 풀을 돋게 하여 마소들의 먹이로 삼으려고 불을 놓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때에는 상잣 담 밑으로 5~6m 간격을 남겨 놓고 그 폭을 반팔 간격을 유지해가면서 쟁기로 밭을 갈아나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 간격으로 불을 붙인다. 이 일을 두고 ‘물도랑 친다’고 한다. 이는 상잣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두고 나서 목장 안에도 불을 붙인다. 이 일을 할 때에는 모든 목장 조합원이 동원된다(『영평마을』, 1991:207~208).

공동목장 지대어의 ‘방애’ 놓기는 해마다 이른 봄철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가시덤불과 잡목이 제거되어 2차 초지대가 형성되었다. 즉, 제주도의 2차 초지대는 매년 반복되는

방에 놓기에 의해 형성, 유지되었다. 이러한 방에 놓기 전통은 산불방지와 삼림보호를 명분으로 1966년부터 금지되었으나 최근 들어 북제주군 지역의 공동목장을 중심으로 방에 놓기가 새롭게 허용되고 있다.

테우리

테우리는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牧子)를 의미하는 제주어다. 이 말은 몽골어에서 유래한 용어라고도 한다. 이들은 전문적인 목축기술을 가지고 광활한 목장 초지대를 누비며 우마를 방목하면서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축문화를 만들어낸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바다에 해녀가 있다면 산에는 테우리가 있다. 이들 테우리들은 관리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소 테우리, 말 테우리라고 부른다. 테우리들은 자신의 우마를 키우는 경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우마들을 키우는 경우, 마을 공동목장에 고용되어 우마를 키우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공동목장의 고용 테우리는, 일제강점기 마을별로 설립된 목장조합에 목감(牧監)으로 고용되어 등장한 이래 1970년대 이후 소 값 파동이 발생하여 공동목장의 이익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폐쇄위기에 놓이자 목축 대신에 농사일에만 매달리게 된 목장계꾼들에게 고용되면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테우리들은 지역차가 있으나 대체로 음력 3월 청명(淸明)에 우마를 공동목장에 올린 다음 음력 9월 상강(霜降) 이후 하늬바람이 불어 공동목장에 풀이 마를 때까지 우마관리를 담당하였다. 인근의 해안마을이나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면서 공동목장으로 올라가 우마의 방목상태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공동목장 내에 만들어진 '테우리 막'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기도 하였다.

테우리들은 우마에 먹일 적당한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지리적 환경을 세세히 인지하는 사람들이었다<사진 4-9>. 방목지 내에 위치한 오름과 하천, 동산의 이름 그리고 우마의 이동로와 관련된 주요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오름의 위치, 물을 먹일 수 있는 용천수나 하천의 위치 그리고 기름진 풀이 자라고 있는 위치를 경험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테우리들이 방목지 내의 지리적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바로 방목 중인 우마들의 생존과도 관련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테우리들은 '테우리 코사'를 행하였다. 이것은 목축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목축의례(牧畜儀禮)로 백중날(음력 7월)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가지고 목장 내에 위치한 오름(우마들의 방목상태를 관찰하는 '망 동산' 또는 '테우리 동산') 정상에 올라가 그들이 방목하는 지점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제사를 지냈다.

한라산의 임업

한라산의 산림업

한라산 임정사

고려시대 이전 한라산 삼림은 소유자가 불명확해서 아무나 임산물 채취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농경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한라산의 삼림은 농경지의 확보, 방목지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화입에 의하여 계속 파괴되었다. 특히 고려시대 제주가 원나라의 직할지가 되었을 당시 원나라에 의한 대규모 방목지의 조성은 많은 삼림파괴를 초래하였다. 고려 말엽에 이르러 일부 세도가들에 의해 삼림이 독점되어 서민들이 어렵게 되자 1325년 사점금지령(私占禁止令)을 내렸다. 이 사점금지령은 하나의 제도로서 조선시대 말엽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08년 삼림법(森林法)에 의하여 사유화가 인정되었다. 한편 삼림법 제정 이전에도 특수한 지역이나 수림은 나무수를 확인하고 생산물을 공물로 바치게 하였다.

일제는 영림부를 설치하고 1911년에는 1908년 제정된 삼림법을 폐지하여 삼림령(森林令)을 공포하였다. 이 삼림령은 삼림불하에 한국인의 참여를 막고 단속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8년 제주도의 임야면적은 전체면적의 약 1/4인 총 82,700여ha로, 요존(要存) 국유림(한라산)이 약 27,400ha, 민유림과 미처분 국유림이 55,300ha이며 민유림은 성림지 7,500ha, 잡수지 10,000ha, 미림목지 37,788ha, 죽림 27ha 등으로 구성되었다. 일제는 수탈임정이 임상의 급격한 황폐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여 육묘와 조림도 하게 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기후가 온난하여 삼나무와 편백의 조림을 일부 지역에 실시하였고 기타 유용수의 조림도 병행하였다. 1936년 양묘생산실적을 보면 주 수종은 곰솔로 1,016,000본, 삼나무 35,000본, 편백 5,000본, 상수리나무 1,372,000본, 사시나무 4,000본, 유동 12,000본, 검양옻나무 3,000본, 동백나무 3,000본 등으로 표고재배의 재료로 사용되는 상수리나무의 균목이 많다.

1936년 조림면적별로는 곰솔 252ha, 삼나무 6ha, 편백 1ha, 상수리나무 239ha, 상수리나무 직파조림 100ha, 먹구슬나무 8ha, 밤나무 1ha 등 607ha에 대한 일반조림을 실시하였고, 보조조림이 곰솔 125ha, 삼나무 2ha, 편백 2ha, 상수리나무 100ha, 상수리나무 직파조림 100ha, 유동 20ha, 검양옻나무 10ha 등 358ha로 총 조림면적은 965ha였다.

1933년부터 삼림보호직원이 배치되었고 매년 인원을 증원하여 민간에서의 연료나 가사용 목재의 벌채를 금하였다. 그러나 한라산에서는 주수종인 서나무, 졸참나무 등의 낙엽 활엽수를 이용하여 제탄을 하고 일본으로 반출시킬 것을 계획하는 등 관주도의 벌채는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1948년 '4·3'이 발생하여 군작전상 대규모 벌채가 진행되어 오늘날과 같은 넓은 초지가 나타났다.

1951년 법령 제218호로 삼림보호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보호림을 설정하고, 삼림계 조직, 삼림조합연합회 창립, 삼림보호요원의 대폭 증원 등 삼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도민의 연료림으로서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 등 속성림이 도내 각처에 조성되었다.

한편 1955년 부정임산물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어 1957년에는 전국적으로 임산물 반입이 강력히 통제되면서 제주도에도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 하였다.

1964년에는 한라산을 비롯한 도내의 주요난대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1968년에는 한라산의 대부분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호 개발하게 되었다. 그 후 석탄과 석유의 교체가 진행되어 현재는 도내에서 임산연료의 채취로 인한 삼림파괴는 사라졌다.

산림개황

제주도의 임야면적은 107,120ha로서 제주도 총면적의 58.6%에 해당한다<표 4-9>. 소유별로는 사유림이 전체의 64%로서 가장 많으며 국유림 27.4%, 공유림은 8.6%로 가장 적다. 임야별 면적은 입목지가 53,909ha, 무입목지 50,596ha로 전 임야의 반이 무입목지로 남아 있다. 입목지의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이 27,815ha, 활엽수림이 19,809ha, 침활혼합림이 6,244ha, 죽림이 41ha로 구성되어 있다<표 4-10, 11>.

조림사업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조림수종은 곰솔과 상수리나무 등이며, 삼나무와 편백은 시험조림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광복과 더불어 대대적인 조림이 해마다 계속되었는데, 주 수종은 삼나무와 곰솔이었다. 편백의 조림은 1960년대까지 국유림에 소규모로 시행되었으나 1969년부터는 주 조림수종이 생장이 좋은 삼나무와 편백으로 고정되었다. 1969년 이후의 양묘실적을 보면 삼나무와 편백이 많이 생산되었고, 리기다소나무, 테다소나무, 밤나무 등이 소량 육묘되었다.

채종원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조림수종에 대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채종원을 조성하여 개량종자를 생산 보급하며, 난대수종을 비롯하여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수종 중 약용, 식용, 용재수 및 환경수 등 유용 식물자원에 대한 자원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69년도부터 침엽수 장기 조림수종인 삼나무, 편백, 테다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해송 등 5개 수종에 대하여 150ha의 채종원을 조성하여 매년 조림에 소요되는 개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0,000ha에 조림할 수 있는 6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향토수종에 대해서도 신품종 개발과 종자생산을 위하여 후박나무, 이나무, 먹구슬나무,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비자나무 등 용도가 다양한 향토수종에 대한 소규모 채종원을 10개 수종을 대상으로 8ha를 조성하였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안의 삼나무 조림면적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성판악 등산로 주변 해발 1,140m 속칭 '속밭' 일대에 대규모로 조림된 것을 비롯해 어승생약, 5·16도로 '숯터널' 인근에도 삼나무가 심어졌다. 어림잡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에 최소한 수백ha의 면적이 삼나무 군락으로 뒤덮였다.

한라산의 표고버섯

표고버섯(Lentinus edodes)은 민주름 버섯목 송이과에 속하는 식용버섯이다. 야생에서는 동남아지역의 참나무 등 활엽수의 고사목에서 주로 발생한다. 인공재배의 역사는 10세기경 중국

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동양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Lentinus속 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수집 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표고와 잣버섯이 인공 재배되고 있다.

표고버섯은 항암성분인 렌티난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 작용, 혈압 강하작용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식용버섯보다 건강식품으로 관심이 더 큰데, 미주지역은 물론 유럽지역에서도 재배와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표고버섯은 색깔, 형태, 육질, 크기에 따라 화고, 동고, 향고, 향신 등으로 나누고, 갓이 오므라들고 육질이 두꺼운 것, 색깔이 선명한 것일수록 고급에 속한다. 표고버섯은 초기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은 있으나 병충해에 강하고 연작피해가 적으며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작물이다. 표고버섯이 건강에 좋은 식품이고 무공해 식품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소비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버섯 골목은 2년 동안 재배하면 썩어서 폐기되므로 과잉의 소지가 타 작목에 비하여 적고, 생표고, 건표고로 유통되므로 생표고 과잉 생산시 대처할 수 있으며, 동양권인 대만, 중국, 일본에 생표고, 건표고를 모두 수출할 수 있다. 세계 각지의 동양권 동포들의 소비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표고시장의 전망이 밝다.

제주도의 표고재배는 1905년 처음 시작된 이래 초기에는 한라산 동남부의 화전 위쪽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성행하였다. 일제 당시 재배법을 살펴보면, 벌목 후 3년째의 가을부터 차츰 수확을 시작하여 그 후 3년 정도는 한창 생산이 되고 그로부터 차츰 생산이 떨어져서 10년쯤 되면 생산이 없어진다. 벌목은 매년 10월경 하는데 나무의 영양상태를 잘 살펴 일제히 도끼질을 해야 한다. 그 해는 그냥 지나고 다음해 4월경부터 장마철까지 입목이라고 해서 가지를 잘라 내고 높이 1척 7~8촌 정도 침목을 세운다. 동시에 도끼로 거리 5촌 정도로 나무표피에 선형으로 깊은 홈을 낸다. 그리고 입목(笠木)이라고 해서 나뭇가지들을 상목 위에 얹는다. 이 갓 모양의 입목은 가뭄이 심할 때는 차양용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막이가 되고, 서리나 눈이 올 때 막아주는 것이다.

벌목 후 3년째에 골목 아래쪽의 풀을 베어주고 입목을 알맞게 조절하면 가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표고버섯이 소량 산출된다. 4년째 되면 장목법을 쓰는데 벌목은 그냥 둔다. 단목법이란 그 긴 골목을 길이 3~4척 정도로 통나무인 상태로 잘라내고 같은 크기의 못을 파서 빗물을 담아 그 속에 넣은 뒤 하루 밤낮을 지내고서 인부가 못 속에 들어가 나무토막으로 절구부근을 4~5차례 두들겨주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절목과정이 끝나면 천연입목, 즉 입목의 밑으로 운반해서 우목이라고 하는 가로 누인 나무에다 양쪽을 받쳐 세운다. 이 작업은 4년째의 4월 상순부터 시작하여 추자(秋子, 가을표고) 발생 전 40일에 종료된다. 장목법의 골목도 역시 이 무렵 비온 뒤에 그 위치 그대로 타목을 해주면 된다. 타목 후 1주일이면 표고균의 발아가 시작된다. 장목법은 전적으로 기후에 지배되는 대신 표고가 오래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단목법은 강우를 기다리지 않고도 못 속에 놓아두면 타목이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조절이 가능하나 그 대신 생산기간이 짧고 벌목 후 7~8년으로 끝나게 된다. 수확한 표고는 너비 2간, 길이 8간 정도의 건조실에서 뜨거운 숯불을 피워 놓고 선반 위에서 '에비라'라고 불리는 기구에 넣어 불짐으로 말린다.

현재 표고재배방법은 이와 조금 다르다. 현재 표고재배법을 살펴보면, 표고버섯은 11~2월까지 벌채된 참나무 원목을 길이 1.2m, 직경 15cm정도 되게 잘라 드릴로 원목을 뚫어 그 곳에 종균 심기를 한 다음 장마 전 뒤집기를 1~2차례 하고, 다음 해에 수확을 한다. 수확시기는 품종에 따라 다르며 건표고는 봄에는 보통 5~6월, 가을에는 9~10월에 많이 수확한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은 5월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표고목을 쓰러뜨리고 2~3일 충분히

물을 주며 버섯 발아가 시작되면 세우기를 한 뒤 적기에 수확을 한다. 수확 후 휴면기간을 20~30일 이상 충분히 두어야 충실한 버섯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한라산에는 81.4ha 재배면적에 총 96명 사업자가 연간 250,227kg의 표고를 생산하고 있다.

한라산의 양봉

양봉은 인류가 오래 전부터 길들인 벌을 이용하여 채밀해오던 것으로 동·서양 모두에서 성행하였다. 초기 미국의 개척자들은 야생의 벌들이 속이 빈 통나무를 벌집으로 선호하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게 된 후 속이 빈 통나무로 된 벌통을 개발했는데, 한쪽 끝은 벌집을 걸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17세기 무렵, 유럽의 양봉가들은 스킵(skep)을 발달시켜 바구니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짚으로 엮은 벌통을 만들었고 바닥을 통해 벌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벌통에 구멍을 만들고 짚이나 나무로 만든 상자를 그 위에 올려 놓았는데, 벌들은 이 상자에도 꿀을 가득 채워 놓았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2가지 획기적인 발달을 통해 현대 양봉기술에 이르게 되었다. 그 하나가 쿨비가 고안한 계상식(多層式) 벌통으로, 1개의 벌통 위에 구멍을 뚫고 그 위로 또 다른 상자를 차례로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면 위에 있는 상자에 꿀이 가득 차서 이를 제거해도 주 벌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또 1851년 랭스트로스 신부는 이동식 틀이 있는 벌통을 발명했는데, 벌들이 이들을 토대로 벌집을 만들고 여기에 꿀이 가득 차면 손쉽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 꿀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모양의 벌통에서 몇 가지 점이 개선되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벌통 형태가 되었다. 이 벌통은 밀판과 벌통 몸체, 그리고 계상(1개일 때는 단상이라고 함)이라고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리 가능한 부분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뚜껑으로 이루어졌다. 벌통의 몸체는 틀에 끼워진 형태의 육아실(育兒室)인데, 여왕벌은 여기서 산란을 하고 어린 벌들을 키운다. 계상 역시 틀에 끼워져 있는 형태로 이 곳은 꿀을 저장하는 장소다. 대부분의 벌통에는 여왕벌의 출입을 막는 격리판이 있는데, 여왕벌에 비해 몸집이 작은 일벌들만이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여 육아실과 위층을 오르내릴 수 있다. 여름철 꿀벌의 세력이 왕성할 때는 꿀이 꽉 찬 벌통의 계상을 빈 것으로 갈아주어야만 하는데, 이로써 지나치게 벌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분봉(分蜂 : 새로운 군체를 형성하는 것)을 막게 된다. 분봉을 위한 준비로 일벌들은 몇 개의 애벌레를 선발하여 장차 여왕벌이 될 수 있도록 기른다. 먼저 있던 여왕벌이 사라진 직후로 열 켈리라는 물질로 잘 길러진 새 여왕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몇 마리의 여왕벌들은 벌통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가 남을 때까지 싸운다. 수벌은 여왕벌들과의 교미만을 목적으로 태어나며 교미 후 곧 죽는다. 양봉에서 분봉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분봉 후 만들어진 벌떼는 새로 태어난 일벌들을 기르느라 여분의 꿀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봉을 막기 위해서는 여왕벌 방을 제거하거나 벌통을 늘려야 한다. 양봉가들을 위한 특별한 장비로는 복면포, 벌집을 자르기 위한 하이브툴, 벌을 진정시키기 위한 훈연기 등이 있다. 훈연기는 벌통을 열기 전, 그 속으로 연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벌들은 불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벌집을 지을 준비를 하기 위해 많은 양의 꿀을 먹게 된다. 이렇게 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된 벌들은 훨씬 다루기 쉽고 잘 쓰지 않는다.

현대 양봉에서는 채밀기(採蜜器)를 이용하여 꿀을 완전히 떼낸다. 이 채밀기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벌집을 망가뜨리지 않은 상태로 꿀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벌들은 다시 꿀 생산을 하기 위해 새로운 방을 만들 필요가 없다. 채밀한 꿀은 약간의 열을 가해 불필요한 밀랍을 위로

뜨게 해서 제거해야 한다. 63°C가 조금 넘는 더운 물에 벌통을 넣으면 벌통으로부터 밀랍이 녹아나오게 되고, 녹은 밀랍은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므로 쉽게 골라낼 수 있다. 벌통을 유지·관리하는 문제 외에도 봉군을 질병과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꿀벌들은 기생충·응애류·곰팡이 등에 감염되기 쉽고, 그밖에 도마뱀·쥐·너구리·조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벌통의 모양이나 채밀하는 방법 등과 같은 전문적인 양봉기술은 각 나라의 전통적인 양봉 방식이나 양봉 규모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서의 양봉의 기원은 고구려 동명성왕 때이며 원산지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재래종 벌인 동양꿀벌이 들어왔다고 한다. 이어 고구려·백제·신라의 순으로 양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구석기시대부터 사냥을 하거나 나무열매를 따다가 바위 틈 등에서 자연의 꿀을 발견하게 되고 농경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유재산의 개념도 싹터서 꿀벌의 소유와 양봉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643년 백제의 태자 여풍에 의해 현재 일본에서 키우고 있는 벌이 전해졌다고 한다. 꿀이 주요 수출품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자생한 것으로 짐작되는 양봉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조선시대에도 꿀은 중요하게 취급되었는데, 특히 고려시대에는 유밀과(油蜜果)를 만들어 먹는 등 용도가 다양했으며 소비량도 증가하였다. 공급량을 훨씬 넘어서는 꿀의 수요로 1192년(명종 22)에는 궁중 이외의 일반 가정이나 사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령(禁令)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세종 때 편찬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 선조 때 편찬된 『동의보감』(1613) 등에는 꿀, 밀랍, 꿀벌의 번데기 등이 영약(靈藥)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벌꿀의 산지, 양봉기술에 관하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숙종 때 홍만선(洪萬選)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호봉법(護蜂法)·할밀법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양봉기술은 대체로 원시적이었으며 벌집을 쥐어짜서 걸러 내거나 불을 때어 꿀이 흘러나오면 걸러내는 등 채밀방법도 불량하여 번식·생산이 저조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벌통·소초(巢礎)·원심분리기에 의한 채밀방법 등 근대 양봉의 3요소가 소개되었고, 선교사들에 의해 개량종 벌도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보통 토종이라고 하는 재래종 벌인 동양꿀벌은 이탈리아벌·카니올란벌·코카시안벌과 같은 서양꿀벌에 비해 여러 가지 결점이 있었으므로 사양봉군(飼養蜂群)의 수가 줄어들었다. 현재는 이탈리아벌·코카시안벌로 양봉되나 토종인 동양꿀벌도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한편 한라산 양봉의 기원은 한일 합방 후의 일로 1910년 완도군으로부터 정의면에 재래종 3군을 옮긴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 양종(洋種)벌(사이프리안 및 이탈리아 종계 잡종)은 1919년에 서귀포 川崎 라는 일본인이 일본으로부터 반입한 것을 최초로 여기고 있다. 한라산의 양봉은 온난한 해양성기후의 혜택을 받고 있고, 특히 남제주군은 한라산의 남사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따뜻하여 사계절 모두 양봉에 적합하다. 이에 더하여 지형·지질 관계상 밭이나 목장이 많은 관계로 밀원식물(蜜源植物)이 풍부하여 농가 부업상 아주 적합한 것으로 여겨왔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1920년에 15군에 불과하던 것이 1931년에는 2,959군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밀원으로는 9월부터 12월 중순에 이르는 건조기에 양질의 꿀을 저장하는 향유(香誘)가 대표적이다<사진 4-13>. 그 밖에 삼림지대에는 밤, 싸리, 덩굴꿀 등이 있으며 삼림지대의 상부에는 철쭉밭이 펼쳐져 있다.

양봉가는 해안지대의 개화기가 끝날 즈음부터 벌통을 한라산 고지대로 이전하여 심수일간의 천막생활을 하면서 벌통을 관리한다. 예를 들면 향유초로부터의 채밀을 위해 관음사까지 이동하기도 한다.

한라산에서의 꿀벌 기르기 작업을 살펴보면, 1군의 꿀벌수는 2만 마리 정도이며 정상적인 봉군인 경우에는 1마리의 여왕벌이 있다. 그 외는 대부분 일벌로 봉군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 수벌은 무정란으로부터 발달한 것이며 번식기에만 생존하고 수백 수천 마리다. 이중 한 마리만이 처녀왕벌과 결혼비행하며 교배하고 그 외의 수벌은 무위도식한다. 교배한 수벌은 생식기가 이탈되어 죽고, 나머지 수벌은 꿀이 적은 시기에 일벌에 의하여 추방되거나 관리인에 의하여 제거된다.

벌상자에는 소방(벌방)의 집합체인 난소의 대부분이 직경 약 6mm의 일벌방으로 되어 있다. 봉군의 세력은 꿀벌의 수, 육아수, 저밀량, 꽃가루 등을 종합하여 강군과 약군으로 분류된다.

봉군의 증식은 봄이 되어 기온이 상승하고 밀원이 풍부해지면 산란, 육아가 촉진되며, 이 때에 분아가 나타나기 전에 빈 벌통에 소비(巢脾) 2~4 정도를 넣어 분봉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370호의 가구에서 총 52,622군의 양봉을 하고 있다.

한라산의 숯 굽기

숯에는 흑탄과 백탄의 두 종류가 있다. 흑탄은 600°C~700°C로 정련한 뒤 숯가마 안에 2~3일간 두었다가 100°C 정도가 되었을 때 꺼낸 것을 말하며, 백탄은 800°C~1300°C의 높은 온도로 정련한 뒤 꺼내어 흙·재·탄불을 혼합한 소분을 덮어 빠른 속도로 불기를 꺼버린 것을 말한다. 백탄은 흑탄보다 탄화온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함유비율도 흑탄의 75.2%에 비하여 83.3%로 높다. 흑탄을 굽는 가마는 주로 흙으로 만들고 백탄을 굽는 가마는 돌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흙가마·돌가마라고 하는데, 숯가마의 크기나 모양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가마에서 막 꺼내 활활 타고 있는 숯덩이에 마사토를 덮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백탄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숯을 구워 왔다. 일반적인 용도인 연료용에서부터 취사 난방용, 건조, 탈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 왔다.

제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라산에서부터 해안마을까지 판매용이나 자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숯이 구워졌다. 제주의 숯 생산량은 1981년까지 통계에 기록되고 있다.

제주도지에 따르면 제주의 목탄생산은 1981년 32톤이 마지막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숯, 즉 목탄 생산량 통계를 보면 1957년부터 집계된다. 1957년 49톤에 196만 원으로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1958년 56톤, 1959년 28톤이고, 이후 1963년 연간 최고기록인 800톤이 생산돼 금액 규모가 1억9천76만 원에 이르렀다. 이후 1977년 100톤을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 감소해 연간 100톤 미만으로 떨어지다가 연탄과 석유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목탄 생산은 20년 전쯤 그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泉靖一(1966)에 의하면 한라산 숯굽기는 겨울철 부업으로서 삼림에서 잘려 나온 활엽수를 길이 1척 정도로 잘라서 모양이 반듯하고 별로 굽지 않은 (직경 3-10cm) 것으로 조종(弔鐘) 모양의 외곽을 쌓고 (직경 1.8m, 높이 1.5m) 그 속에 되도록 규칙적으로 바르게 통나무를 쌓아 올려서 물로 반죽한 찰흙을 밑으로 발라 정상부에 직경 30cm 정도의 굴뚝과 하부에 60cm~30cm 정도의 화입구를 열어 거기에 점화한다. 연기 나오는 것을 점검하여 우선 정상부의 굴뚝을, 다음에는 화입구를 진흙으로 막아 하루 정도를 방치하고 흙의 벽을 부순다. 고정된 숯 굽기 아궁이를 만들지 않고 수시로 이와 같은 숯 굽기 아궁이를 만든다<사진 4-15>.

한편 2004년 한라일보 한라산 탐사팀에 의하면, 성진이 오름과 태역장오리, 쌀손장오리, 물장오리 오름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전형적인 숯가마 터를 찾았다<사진 4-16>. 보통 크기의 이 숯 가마터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됨으로써 제주숯가마의 문화적 가치를 조

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발견 장소는 성진이 오름 기슭을 감도는 천미천 지류를 따라 태역장오리로 가는 계곡 근처로, 숯 재료 확보가 쉬운 고지대에서 숯을 굽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숯가마는 지름 3~4m, 1.5m 깊이로 땅을 판 뒤 계곡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크기의 돌을 이용해 울타리를 만들었고, 불을 지피는 화구와 연기가 배출되는 굴뚝 구멍을 가마의 머리 부분에 널 만큼 머리를 쓴 과학적인 숯가마였다. 그 속에 벌목한 나무를 쌓아 놓고 흙으로 덮어 불을 때서 나무장작들이 타도록 한 것이다. 보통의 숯가마는 흙으로 울타리와 지붕을 덮어 굽는데, 쇠공장에서 보는 주물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숯을 굽기 위해 돌로 울타리를 친 반영구적 가마를 만들었지 않았나 추측된다(한라일보 전자신문, 2004. 5.).

한편 애월읍 수산리를 조사한 고시홍(1998)에 의하여 제주도 숯굽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보리, 조 수확 또는 출베기가 끝나고 숯을 만든다. 숯을 만드는 일을 ‘숯을 굽는다’, 또는 ‘숯 묻는다’고 한다. 숯 묻을 철이 되면 산에 오른다. 작은 솔이나 냄비 등 간단한 취사도구를 가지고 가서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며 숯을 굽는데, 산에서 노숙하는 기간은 대개 1박 2일이다.

‘숯 굽기’는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 낀 날이 좋다. 연기 나는 것을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낮에는 나무를 준비해 두었다가 밤에 숯가마에 불을 지폈다. 숯을 굽는 절차는 먼저 숯 굽는데 필요한 나무를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숯의 재료는 ‘밤나무, 콧낭, 가시낭, 틀낭, 서어낭, 볼레낭, 소리낭’ 등이 쓰였다. 숯 굽는 나무는 목질이 질긴 것이 최상이다. 숯불 기운이 오래 가기 때문이다. 숯 묻을 나무가 준비되면 본격적인 숯굽기 작업에 들어간다. 숯은 숯가마를 이용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지만 대체로 공기가 차단된 숯가마에서 구워낸다.

① 가마터 고르기 숯가마를 만들 평지를 물색하여 평평하게 터 고르는 작업을 한다. 그런 다음 땅바닥에 나뭇잎이나 자잘한 나뭇가지를 깬다. 이것은 숯을 추려낼 때, 숯과 땅바닥을 구분 짓는 역할도 한다.

② ‘덕돌’ 만들기 숯을 구울 가마터의 면적을 가늠하여 그것에 맞게 네 군데에 덕돌을 만든다. 숯가마에 불을 지피는 구멍을 ‘덕돌(화덕)’ 또는 ‘숨골’이라 한다. ‘덕돌’은 솔덕의 앞쪽처럼 양쪽에 두 개의 돌을 세우는데 이것을 ‘어긋돌’이라 한다. 그리고 ‘어긋돌’ 위에 가로 얹는 돌을 ‘덮돌’이라 한다. 하나의 숯가마에는 보통 4개의 ‘덕돌’을 만드는데, 가마가 아주 큰 경우에는 5~6개의 ‘덕돌’을 만들기도 했다.

③ 나무 쌓기 ‘덕돌’을 경계로 한 가마터에 숯을 굽기 위해 마련해 둔 나무를 쌓는다. 나무를 쌓는 형식에 따라 숯 굽는 방식을 ‘누운 숯(곰숯)’, ‘눌 숯’, ‘선 숯’으로 구분한다. 첫째 ‘누운 숯’ 또는 ‘곰 숯’은 숯나무를 가마터 바닥에 눕혀서 뽕뽕처럼 쌓아올려 흙을 덮는 형식을 말한다.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숯 굽기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숯을 많이 만들 수 없고 ‘냉발이’가 많이 나온다. ‘냉발이’란 탄화가 덜 된 숯, 즉 숯이 되다 만 숯나무를 말한다. 둘째, ‘눌 숯’은 숯나무를 ‘눌을 눌 듯’ 피라미드형으로 쌓아 흙을 덮는 방식이다. 숯을 많이 구워 낼 수 있다. 셋째, ‘선숯’은 숯나무를 지면에서 수직으로 곧추 세워 쌓아 흙을 덮는 방식이다. 가장 고등기술이며 상설 숯가마에서 숯을 만드는 것은 모두 ‘선 숯’이다. 숯나무를 가장 많이 쌓을 수 있고 ‘냉발이’가 적어 많은 숯을 얻을 수 있다. 나무쌓기를 할 때는 숯나무를 쌓은 겉면에 나뭇잎을 덮어서 흙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눌 숯’이나 ‘선 숯’인 경우에는 숯나

무가 무너지지 않게 덩굴로 나무 더미를 빙빙 에둘러 감은 다음 흙을 덮는다. 위 과정을 통하여 솥나무를 쌓고 흙을 덮어 돔 모양의 솥가마를 완성한다.

④ 불 지피기 솥나무 위에 흙을 덮어 솥가마가 만들어지면 ‘덕돌(화덕)’구멍으로 불을 지핀다. 불길의 한꺼번에 골고루 돌아야 솥이 잘 된다.

⑤ ‘숨골’ 막기 불길이 솥가마에 골고루 돌아갔다고 판단되면 ‘덕돌’을 빼내 ‘숨골(입구)’을 흙으로 막아 공기를 완전히 차단한다. 불길이 덜 들 때 ‘화덕’을 막으면 ‘냉발이’가 많이 생긴다.

⑥ 솥가마 허물기 1박 2일 동안 산에서 노숙하며 솥 굽는 작업이 끝나면 귀가한다. 솥 굽기 하러 다닐 때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길을 이용한다. 2~3일 정도 지나서 솥가마를 해체하여 솥을 골라낸다. 그런데 솥가마를 도둑맞을 때도 있다. 때문에 가마를 허물어 솥을 골라내는 일은 밤에 한다.

‘솥굴(솥가마)’을 세는 단위는 ‘눌’ 또는 ‘구덩이’다. ‘솥굴’ 눌에는 2인 1조, 3인 1조로 솥 굽기를 한다. 솥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멩탱이’이다. 다른 사람과 한조가 되어 솥을 만들었을 때는 ‘멩탱이’로 분배한다. ‘솥굴’에서 생산되는 솥의 양은 대충없다. 나무를 쌓고 불을 지피고 공기를 차단하는 시간 등 기술적인 것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마을 조사를 다니다 보면, 솥을 집으로 옮기다 불이 난 일화나 남의 솥을 몰래 훔쳐오다 엉덩이에 불이 붙었던 일화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한편 육지부에는 이러한 예전의 솥 굽기를 이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적극 고려해 볼 일이다.

제5장

교육자원으로서의 활용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우선, 교육자원으로서의 활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이 교육자원이라는 키워드와 연계되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교육적 소재를 담고 있는 장소나 대상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육적인 주제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자원들은 궁극적으로 자연적 자원요소와 인문적 자원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전제로 선택할 경우, 두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설정한 학습주제를 바탕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나, 일정한 공간적인 범위를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 분포되는 자연적 자원요소와 인문적 자원요소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 자원요소와 인문적 자원요소를 알기 쉽게 대비시켜 정리한 것이 <표 5-1>이다. 그러나 여기의 자연적·인문적 교육자원들은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것을 제외하면 해발고도 약 500m를 전후하여 그 이상의 지역에서 교육자원이 될 만한 것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간추린 것이다. 따라서 <표 5-1>에 열거한 교육자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취사선택의 시점을 달리하면 매우 다양한 교육자원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

자연적 자원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발 500m 이상의 지역에서 간추려 낸 자연적 교육자원들은 제주도의 지형적·지질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원요소와 제주도 주요 동식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원요소로 구성된다<사진 5-1>. 이들은 단지 공간적으로 범위가 작은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만을 이해하기 위한 자원요소라기보다는 제주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원 요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해발고도가 낮은 해안지역 내에도 얼마든지 제주도의 지형적·지질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원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표 5-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라산을 핵으로 하는 주변 지역에는 해안지역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는 자원요소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즉, 탐라계곡·영실계곡·아흔아홉골(구십구곡), 돈네코 등 계곡이나, 선작지왓·만세동산 등 고산지역의 초원(습지 포함)지대, 그리고 구상나무와 한란 등 일부 동·식물군은 어느 정도의 고도대(高度帶)를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교육자원들이라는 점이다.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적 자원요소들의 특징은 제주도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들도 많지만, 그것들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가 위치인 만큼 교육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서만 접할 수 있는 교육자원들은 그만큼 학습적 가치를 높이는 특수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문 자원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검토해 보자. 인문적 자원요소들은 마애명(磨崖銘, 또는 마애각[磨崖刻])을 비롯하여 사찰, 사지(寺址) 및 사리탑, 잣성과 4·3성터, 오름 전설유적지, 일제강점기의 전적 유적지, 표고버섯 재배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사진 5-2>. 이로 볼 때,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적 교육자원들은 제주도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해안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다종·다양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

에는 한라산(체)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제주도민들이 미치는 손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자연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라산(체)이 자리 잡고 있는 산간지역의 인문적 교육자원들은 관점을 달리하면 매우 소중한 것들이기도 하다. 가령, 백록담 마애명은 조선시대의 선현들이 한라산을 등반하여 산자락의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바위에다 자신들의 이름이나 당대의 유명한 시문을 조각하여 남긴 것이다<사진 5-3>. 이러한 마애명은 백록담 부근보다는 오히려 방선문 계곡이나 용연 등에서 더 많은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백록담 근처의 마애명은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한라산 등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한라산을 등반했던 당사자(목민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해안지역의 여러 장소에 분포하고 있는 마애명과 한라산 백록담 부근의 마애명은 분명히 교육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자연적·인문적 교육자원들은,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교육자원들은 제주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파악하고 학습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두 번째로,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교육적 활용은 단순히 지식과 경험의 확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식의 심화는 물론이고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연마할 수 있는 체험적인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교육활동 단계에서는 특별한 주제를 바탕으로 일정한 지점이나 장소를 직접 탐방하여 교육활동을 행하거나, 또는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야영(野營)이나 야숙(野宿)을 하면서 심신을 도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나아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정신력과 인내력 그리고 협동심과 모험심 등을 기르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관광자원으로서의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은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라는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지속적으로 각광받는 존재임이 틀림없다. 보통 제주도를 방문하는 도외의 관광객들은 며칠간의 관광일정이라면, 반드시 하루 정도는 한라산 등산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한라산 등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산간 지역이나 산간지역의 어느 한 지점이나 장소에서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는 관광객의 수가 의외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이다.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은 제도적으로는 보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닌 지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자연의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주는 공간적인 범주이기도 하다. 제주도에서는 관광객들이 해안지역 내의 다양한 관광지를 돌며 관광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저절로 자연의 신비함과 오묘함을 느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은 관광객들이 도시관광이나 문화관광에 식상할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새로운 충전과 변화를 얻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라 지적할 수 있다.

일단, 한라산을 등산하는 관광객 수를 토대로 하여 관광자원으로서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기로 하자. <그림 5-1>은 1995년 이후 2004년까지 10년 동안 한라산 등산 코스별로 입장객수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평균 51만 5,100여 명 정도가 한라산을 등산이나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수치는 1975년의 41,885명, 1980년의 88,802명, 1985년의 185,183명, 1990년의 368,867명으로 나타나는 입장객 수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비약적인 증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사회가 자연을 타깃으로 한 체험관광과 녹색관광(green tourism)을 갈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4개의 등산 코스별로 비교해 보면, 어리목과 영실 코스가 연도별로 다소 변화의 폭은 감지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입장객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사진 5-4>. 성판악 코스의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관광객과 산악인들에게 가장 많이 애용된 코스로서 변화의 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라산의 주요 등산로인 어리목과 영실 코스가 1994년 이후부터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반 행위를 제한해 왔다는 배경과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 1986년 이후 한라산 자연휴식년제를 전반적으로 취해 오다가 1994년부터는 일부 코스와 구간에만 한정하여 제한하였기 때문에 코스별 이용률의 차이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편,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하는 관광자원은 기본적으로 앞에 제시한 교육자원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관광객이나 등산객에게 인기 있는 자원으로는 백록담 분화구를 정점으로 한 한라산체와 주변의 오름군일 것이다. 즉, 한라산체 주변에 포진해 있는 윗세(웃세)오름, 어승생악, 물장오리, 물чат오름, 사라오름 등은 한라산체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산체의 매력을 가진 오름들이다<사진 5-5>. 따라서 이들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제주도의 자연을 가장 매력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관광자원이라 해도 손색이 없으며, 향후 제주도에서도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가능하게 하는 귀중한 존재로 평가할 수 있다.

한라산과 주변의 오름군은 분명히 제주의 자연을 상징하는 구성요소인 동시에 관광자원이지만, 그것들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이고 있는 것은 바로 우거진 삼림, 다시 말해 숲 세상일 것이

다. 제주도 안에서도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만큼 푸른 숲인 삼림이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 궁극적으로, 푸른 삼림이 곳곳에 우거져 있기에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의 으뜸군을 등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나아가 푸른 숲지대는 중산간 지역과 일부 산간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곳자왈에도 전형적으로 잘 남아 있다. 최근에 곳자왈 지대는 '제주의 허파' 또는 '자연의 허파' 등과 같이 인간의 허파에 비유되면서 '제주 생태계의 생명선'으로 강조하여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제주의 곳자왈 지대는 과거에는 불모의 땅으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지하수의 함양기능을 비롯하여 한라산과 해안지역 사이의 환경적인 완충기능, 그리고 조망을 중심으로 하는 위락(관광) 자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곳자왈 지대는 비록 토양발달이 지극히 미약한 곳이지만, 아아(aa) 용암류라 불리는 특이한 용암류로 뒤덮여 있고, 그 용암류 아래쪽에는 수많은 공극과 아주 작은 공간들이 형성돼 있어서 다양한 수목들이 영키며 특수한 숲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곳자왈 지대는 앞으로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에 버금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사진 5-6>.

숲의 특성과 관련하여 관광자원으로서 특특히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11번 국도(5·16 도로) 변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속칭 '숲 터널'이라 할 수 있다. 5·16도로 변의 숲 터널은 도로 양쪽에 서식하는 수목들이 도로의 윗 부분을 덮을 정도로 무성하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터널(tunnel)에 비유하여 이름 붙여진 것이다. 이 숲 터널을 지나는 관광객들은 마치 숲 속을 달리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며,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넘나드는 관광객들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숲 터널에서 느낀 자극적인 감흥을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든다. 어쩌면 그러한 짧은 시간의 감흥이야말로 관광객들을 제주자연의 매력에 빠지게 하는 매우 소중한 배경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도이고 보면, 한라산 주변에서는 녹색관광이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제주도내의 경향을 보면,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의 야생화를 찾아다니는 개인이나 동호인들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에는 계절에 따라 수없이 많은 야생화들이 온 들녘을 장식하는데, 그런 자연의 야생화에 흠뻑 젖어드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야생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작은 들꽃 하나하나로부터 자연의 신비로움과 발견의 기쁨을 동시에 만끽하고자 한다. 이처럼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에서 야생화의 자생지나 집단 서식지를 발견해내는 과정도 자연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체험활동의 하나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야생화를 매개체로 하여 체험형 관광활동을 유도해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야생화 관광'이라는 관광형태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희귀식물과 보호식물을 중심으로 한 '식물관광' 형태도 가능해진다. 야생화와 희귀식물 및 보호식물 등을 토대로 한 관광형태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들 관광형태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과거로부터 제주도에는 영주10경(瀛洲十景)이라 불려온 빼어난 절경지 10군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산출일(城山出日), 사봉낙조(紗峰落照), 영구춘화(瀛邱春花), 정방하폭(正房夏瀑), 굴림추색(橘林秋色), 녹담만설(鹿潭晚雪), 영실기암(靈室奇巖), 산방굴사(山房窟寺), 산포조어(山浦釣魚), 고수목마(古藪牧馬)를 가리키는데, 이들 중에서도 영구춘화(영구[지금의 방선문]의 봄꽃), 녹담만설(백록담의 여름눈), 영실기암(신령골의 기이한 바위들) 및 고수목마(곳자왈에 기르는 말)는 방선문 계곡(登瀛丘), 백록담, 영실 및 중산간 지역의 곳자왈 지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절경을 가리킨다. 결국 이들 절경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지역에서 만끽할 수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관광자원으로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1장

-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강문규, 「나의 한라산 이야기 ①」, 『제주발전포럼』 통권 제6호, 제주발전연구원, 2003.
- 강문규, 「나의 한라산 이야기 ③」, 『제주발전포럼』 통권 제8호, 제주발전연구원, 2004
- 강정효, 『한라산』, 돌베개, 2003.
- 국립지리원 발행, 1:50,000, 1:25,000(1996년 수정판), 1:5,000 지형도.
- 南濟州郡·濟州文化藝術財團 文化財研究所, 『南濟州郡 文化財遺蹟分布地圖』, 2003.
- 서귀포시, 『서귀포시지』(하권), 2001.
- 西歸浦市·濟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西歸浦市 -』, 2000.
- 吳文福 編, 『영주십경 시집』, 제주문화, 2004.
- 정광중, <제주일보> 2004년 5월 17일자 기사, 제18면(기사명 : '시론 - 한라산 예찬론 -').
- 정광중,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 『제주교대논문집』 제33집, 2004.
- 정광중·강창화·김일우·김종찬,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제주교대논문집』 제33집, 2004.
- 정광중, <한라일보> 2005년 4월 29일자 기사, 제10면(기사명 : “한라산 학술 대탐사”.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 74회 최종회).
- 濟州道, 『韓國의 靈山 漢拏山』, 濟州道, 1994.
- 제주도,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1997.
- 제주도, 『제주의 오름』, 1997.
- 제주도, 『제주행정지도』의 <도로현황>, 2001.
- 제주도, 『통계연보』, 2002.
- 제주도, 『2004년도 주요관광행정현황』, 2004.
-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 4·3 유적 I·제주시·북제주군』, 2003.
- 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濟州市 -』, 1998.
- <제민일보>, 2002년 12월 31일자 기사(기사명 : 꽃자왈 대탐사 <1>. 제주 생태계를 지켜온 영원한 생명력).
- <제주일보>, 2003년 3월 5일자 기사, 제6면(기사명 : 집중진단 제주⑩ 도내 골프장 적정 건설 규모는).
- <제주일보>, 2005년 1월 1일자 기사, 제26면(기사명 : 제주도민 의식조사).
- KT, 『KT 전화번호부 SUPER PAGE-2004 ㄸ2005 제주 상호·인명-』, 2004.
-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www.jeju.go.kr.
- 한라일보사, 『제주생명의 원류 / 하천과 계곡③ 한천』, 2003.
- 현길연·고길홍, 『한라산』, 대원사, 1993.
- 현길연, 「제주의 자연과 문화」, 제주국제협의회·제주도·북제주군 공편, 『제주사회 2020 - 변화야 산다 -』, 2002.

현원학,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질」,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환경부 보도자료, 2003년 1월 16일자(보도 자료명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정보).

제2장

김정호, 『대동지지』(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76.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남도영,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1.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1970.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이원조, 『탐라지초본』(영인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1976.
제주문화방송, 『속탐라록』, 1994.
제주문화원, 『지영록』, 1997.
제주문화원, 『남사일록』, 2001.
제주문화원, 『옛사람들의 등한라산기』, 나라출판, 200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옛지도』, 1996.
제주시, 『탐라순력도』(영인본), 1994.
제주시, 『제주목 지지총람』, 2002.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83.
『증보탐라지』, 천리대 소장본.

제3장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수상집』 19, 계문사, 2003.
——, 「취락발달과 구조」, 한국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 - 전라·제주편』, 2004.
국토개발연구원·제주도, 『제주도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 자료집』, 1997.
김동전,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세림원색, 2000.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김태일, 「제주사회의 변동에 따른 주택특징에 관한 연구 - 1945년부터 1960년대 주택을 중심으로 - 」, 사단법인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9집, 2001.
박용후, 『제주도지』, 백영사, 1976.
북제주군, 『북제주군』(상권), 2000.
서귀포시, 『西歸浦市誌』(하권), 2001.
석주명, 『제주도수필』, 보진재, 1971.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2001.

오영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공간의 차별적 양상 - 제주도 북제주군 납읍초등학교를 사례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오홍석,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이익태 저·김익수 역,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제주도, 『제주도지』(하권), 1982.

제주도, 『도제50년 제주실록』, 1997.

제주도, 『濟州道誌』(제2권), 1993.

제주도, 『韓國의 靈山 漢拏山』, 1994.

제주문화원, 『옛 사람들의 등한라산기』, 나라출판, 2000.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제주시 우당도서관(1999), 『제주도의 경제』, 1999.

제주시,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2000.

조동규, 「한국화전의 분포」, 대한지리학회, 『지리학』(제2호), 1966.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농촌경제의 변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진축삼, 「蒙元和 濟州馬」, 吳富伊 옮김, 『탐라문화』(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최영준, 「영남대로와 문경」, 문경새재박물관 엮음, 『길 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실천문학사, 2002.

현영학, 「강원도 화전지역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홍경희, 『촌락지리학』, 법문사, 1988.

「濟州三邑都總地圖」(1770년대).

「旌義地圖」, 1899.

「大靜郡地圖」, 1899.

坂田一二, 『坂田一二地理學論文集』, 日本 : 弘詢社, 昭和51年.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9.

天嶋仁吉, 『集落地理學』, 日本 : 古今書院, 1982.

中村和朗·手塚 章·石井英也, 『地域と景觀』, 日本: 古今書院, 1991.

松山利夫,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日本: 古今書院, 1986.

제4장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 『전국문화원연합회 수상집』, 2004.

高橋昇,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 未來社, 1997.

고시흥, 「숯굽는 이야기」, 『제주학』 창간호, 제주학연구소, 1998.

久間健一 『조선농업경영지대의 연구』, 동경농업종합연구소, 1950.

宮塚利雄, 「한국화전민에 관한 사적 연구」, 『단국대 학술논총』 제4집, 단국대학교, 1980.

김상호, 「韓國農耕文化의 生態學的 研究: 基底 農耕文化의 考察」, 『사회과학논문집』 4, 서울대, 1979.

南仁熙, 『濟州農業의 百年』, 태화인쇄사, 1985.

坂田一二,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 弘詢社, 1976.
 邊昇圭, 『濟州島略史』, 제주문화, 1992.
 釜山商業會議所, 『濟州島とその經濟』, 1930.
 善生永助, 『火田の現狀』, 1926.
 小泉昇平, 「火田民 生活狀態 調査」, 『조선연구자료』, 1934.
 松山利夫,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86.
 송성대·강만익, 「朝鮮時代 濟州島 官營牧場の 範圍와 景觀」,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 2001.
 玉漢錫, 「한국의 화전농업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10집, 1985.
 李榮培, 「濟州馬 烙印의 字型 調査(I)」, 『調査研究報告書』 第7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2.
 이영배, 「濟州馬 烙印의 字型 調査(II)」, 『調査研究報告書』 第8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3.
 제주도, 『濟州道誌』(상·하), 1982.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7.
 ———, 『濟州島勢要覽』, 1939.
 조동규, 「한국화전의 분포」, 『지리학』 제2호, 1966.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基二』, 濟州島, 1929.
 조선총독부산림국, 『火田調査報告書』, 1928.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2004.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71.
 제5장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남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 2003.
 북제주군·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 2002.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 서귀포시 -』, 2000.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 제주시 -』, 1989.
 제주도, 『2003~2004년 도정백서』, 2005.

【사진 목차】

- <사진 1-1> 동부관광도로의 모습 / 18
- <사진 1-2> 1100도로에서 영실휴게소로 이어지는 서귀포시도 / 19
- <사진 1-3> 중산간지역의 화산회토 / 23
- <사진 1-4> 조랑말 / 24
- <사진 1-5> 영실 부근의 숲경관 / 31
- <사진 1-6> 한라산의 자태 / 34
- <사진 1-7> 잊세(웃세)오름 전경 / 39
- <사진 1-8> 한라산 관음사 / 40
- <사진 1-9> 천왕사 / 40
- <사진 1-10> 석굴암 / 40
- <사진 1-11> 왕이메 전설지 / 43
- <사진 1-12> 물영아리 전설지 / 43
- <사진 1-13> 함덕-북촌리 부근의 해안 지역 / 46
- <사진 1-14> 샘이오름-우전제비 주변의 중산간 지역 / 46
- <사진 1-15>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삼림지역 / 48
- <사진 1-16> 노루샘 / 55
- <사진 1-17> 영실 부근의 산철쭉 / 56
- <사진 1-18> 영실 병풍바위 / 57
- <사진 1-19> 한라산 눈꽃 / 58
- <사진 2-1>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 / 64
- <사진 2-2>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 / 65
- <사진 2-3> 『동여비고』계열인 『조선강역총도』의 제주도 지도 / 67
- <사진 2-4> 이형상 목사 종가 소장의 제주도 지도 / 69
- <사진 2-4-1> 한라산 지역 세부도 / 70
- <사진 2-5>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 / 71
- <사진 2-6> 『탐라지도병서』 / 75
- <사진 2-6-1> 왕관릉 일대의 모습 / 76
- <사진 2-7> 『제주삼읍도총지도』 / 79
- <사진 2-7-1> 제주삼읍도총지도의 한라산 지역 / 80
- <사진 2-8> 『전라남북도여지도』 / 83
- <사진 2-9> 이원조의 『탐라지도병지』 / 85
- <사진 2-10> 『환영지』에 수록된 『탐라도』 / 87
- <사진 2-11>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중의 제주지도 / 89
- <사진 2-12> 『제주삼읍전도』 / 90
- <사진 2-13> 『제주군읍지』 중의 『제주지도』 / 92
- <사진 2-13-1> 한라산 지역 세부도 / 92
- <사진 2-14> 『탐라십경도』 중 「백록담」 / 94

- <사진 2-15> 『탐라십경도』 중 「영곡」 / 95
- <사진 2-16> 『탐라십경도』 중 「서귀소」 / 95
- <사진 2-17> 『탐라십경도』 중 「산장구마」 / 97
- <사진 2-18> 『탐라십경도』 중 「제주조점」 / 97
- <사진 2-19> 『탐라십경도』 중 「병담병주」 / 98
- <사진 2-20> 『제주도』 / 99
- <사진 2-21> 멀리서 바라본 한라산 / 107
- <사진 2-22> 한라산 산정부(상봉) / 108
- <사진 2-23> 백록담 / 109
- <사진 2-24> 장울악의 모습 / 112
- <사진 2-25> 관목림으로 이루어진 고산지대 / 115
- <사진 2-26> 존자암지 / 118
- <사진 3-1> 금악리 이시돌 목장 / 134
- <사진 3-2> 금악리 이시돌 목장 내의 삼안식 주택 / 134
- <사진 3-3> 서부관광도로변 원동 입구의 표지석 / 135
- <사진 3-4> 농경지화된 원동 터(동원) / 137
- <사진 3-5> 원동(동원) 터에 남아 있는 원물 / 137
- <사진 3-6>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 / 138
- <사진 3-7> 4·3 이재민 복귀주택 / 141
- <사진 3-8> 고성2리 양잠단지 개척촌의 누에 공판장터 / 142
- <사진 3-9> 유수암리 개척단지 입구의 개척비 / 142
- <사진 3-10> 제주시 해안동 개척단지 입주식 장면 / 143
- <사진 3-11> 한라산지 마을 / 149
- <사진 3-12> 안덕면 상천리 분교터 / 158
- <사진 3-13> 성읍2리 마을 입구의 거옥대 / 160
- <사진 3-14> 조천읍 교래리 관광산촌 모습 / 163
- <사진 3-15> 하치마키 도로 / 170
- <사진 3-16> 국토건설단 퇴단식 장면 / 174
- <사진 3-17> 한라산제1횡단도로 개통식 장면 / 174
- <사진 3-18> 성판악 휴게소의 김영관 공적비 / 175
- <사진 3-19> 제2산록도로변 솔오름 전망대 / 179
- <사진 3-20> 교래리 입구 비자림로 / 180
- <사진 3-21> 서성로 / 181
- <사진 3-22> 한라산지 교통로를 이용했던 마차 / 183
- <사진 3-23> 한라산제1횡단도로 톨게이트 모습 / 184
- <사진 4-1> 애월읍 광령리 火栗田 전경 / 196
- <사진 4-2> 한라산 중턱에 남아 있는 화전민 단독가옥의 돛통시 / 198
- <사진 4-3> 따비 / 200
- <사진 4-4> 연적골 토지매매 문서 / 212
- <사진 4-5> 연적골에 남아 있는 생물(生水)터 / 214
- <사진 4-6> 경작권 인허증 / 222

- <사진 4-7> 방목 중인 말 / 230
- <사진 4-8> 낙인 도구 / 232
- <사진 4-9> 한라산 목자의 복장 / 238
- <사진 4-10> 시범조림지 기념비 / 242
- <사진 4-11> 표고 건조 작업 / 244
- <사진 4-12> 표고재배 / 245
- <사진 4-13> 벌통 속의 여왕벌 / 249
- <사진 4-14> 꽃향유 / 250
- <사진 4-15> 泉靖—이 그린 제주도 숲가마 / 252
- <사진 4-16> 한라산 숲가마 / 253
- <사진 4-17> 관음사 등반길에 있는 돌 숲가마 / 254
- <사진 5-1> 한라산 백록담 주변부를 둘러싼 암벽 / 260
- <사진 5-2>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어승색악 전적 유적 / 262
- <사진 5-3> 한라산 백록담 부근의 마애명 / 263
- <사진 5-4> 영실 등산코스 입구의 표석 / 266
- <사진 5-5> 물장오리 분화구 / 267
- <사진 5-6> 백약이오름에서 바라본 곳자왈 지대 / 268

【표 목차】

- <표 1-1> 중산간지역 내 지역별·표고별 취락분포 실태 / 16
- <표 1-2> 중산간지역의 표고별 주요 시설물의 분포현황 / 21
- <표 1-3> 1:25,000 지형도를 통해서 본 시·군별 최고지점의 과수원 용지와 위치 / 22
- <표 1-4> 백록담과 정상부의 지리적 정보 / 35
- <표 1-5> 해발 500m 이상의 토지 이용 실태 / 42
- <표 1-6> ‘한라’ 또는 ‘한라산’ 명칭의 활용 사례 / 52
- <표 1-7> 지역신문 3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한라’ 및 ‘한라산’ 빈도수 / 53
- <표 3-1> 한라산지 화전촌락의 위치 / 140
- <표 3-2> 한라산지에 분포하는 촌락의 이름 / 152
- <표 3-3> 한라산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 / 162
- <표 3-4> 제주도의 교통로 현황 / 172
- <표 4-1> 한국 화전농업의 작부방법 / 194
- <표 4-2> 제주도 산간지대의 윤작체계 / 201
- <표 4-3> 제주도의 지대별 경지 휴한 상황 / 201
- <표 4-4> 지대별 제주도 농민의 생활비 비교 / 209
- <표 4-5> 제주 및 내륙지방 농민 생활비 / 211
- <표 4-6> 1939년의 마을 공동 목장 조합 현황 / 221
- <표 4-7> 제주도의 목축력 / 229
- <표 4-8> 제주도 마을 공동 목장 현황 / 229
- <표 4-9> 시·군별 임야 / 241
- <표 4-10> 시·군별 임목 축적 / 241
- <표 4-11> 보전산지 현황 / 241
- <표 4-12> 제주도표고현황 / 246
- <표 4-13> 제주도 양봉 농가 호수 / 251
- <표 5-1> 한라산과 주변지역에서 교육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연적·인문적 자원의 사례 / 261

【색인】

[ㄱ]

가경세 196
가경전 196
가문약수 91
가축 시장 185
각씨암 96
각지불 214
간다시촌 81
간목 231
간시사 227
갈석 82
감굴과수원 21
강제검의 난 210
개척 촌락 132, 141, 142
개척단지 143
거세 233
거옥대 160
거은굴 88
거해지 77, 91
건표고 244, 246
겨척형 화전농업 195
겸화전민 205
경계 돌담 227
경관변화 127
경목교체방식 194, 195
경작 시스템 191
경작권인허증 222
계상식 별통 247
고경옥 85
高橋昇 210
고득종 215
고량지어외 80, 84
고산식물 126
고연대 90
고죽 115
골두 80
골프장 27

공동묘지 160
공마제 220
공마제도 138, 196
공조 110
곶물 233
곶쇠 233
곶자왈 223, 267
관광목장 145
관광산촌 148, 163
관광승마장 27
관광자원 264
관설 목장 220, 232
광령양돈단지 24
광양당 120
광제 원평대 77, 80
광평리 15
교래리 97, 163
교래촌 71
교육자원 259
교통로 128
久間健一 197
구덩이 256
구란어외 80
구린굴 56
구목장 지대 196
구봉암 94
구상나무 56
구향목전 90
국립공원 15
국마 232
국토건설단 175
굴빙고 56
권고 192
귀표 230, 232
그늘케 223
근교농촌 164
근재작물 194
근재형 화전농업 192
급수장 227
급염장 227
기경 193

기생지주 206
기업형 목장 24
기우단 94, 121
기이츠 190
김남길 96
김만일 218
김상헌 129
김상호 194
김성구 109
김영관 175
김정 104, 167
김정호 88
그레 213

[나]

낙농마을 164
낙인 230, 232
남명소승 102, 104, 108, 109
남사고 105
남사록 102, 107, 109, 112, 118
남사일록 102, 109
남조로 18, 181
남천록 102,
남학당 210
남환박물관 100, 105, 114
南窟博物 217
냉발이 255
노루샘 55
노인성 104
녹산장 133, 219
녹색관광 265, 268
논성어외 80
농경지화 정책 195
농막 206
농목교체형 220
누에고치 143
누운 숲 255

눌 256
눌 숲 255

[ㄷ]

닥낭구석 84
단목법 245
단산 82
단향 115
담수계 101
대독거지 98
대동여지도 66, 88
대동지지 119
대두리 78
대로 167, 168
대마근다리 79
대삼소장 74
대이소장 74
덕돌 254
도로교통 17
도일 198
독주 화전민 206
돈네코 260
돌매화 56
돛통 213
동국지도 66
동무소협 103
동부관광도로 18, 178
동부축산 관광도로 180, 183
동암 92
동여비고 67
동영주 103
동해소 82
두리서 83
두리여 77
두리오름 77
두무약 102
두무약 68, 99

두원장 81
두타사 119
들불농기 234
들불축제 147
뜯 땅 155, 221

[口]

마소은지 91
마애명 261, 262
마을공동목장 145, 219
마을 공동목장과 상산 184
막산이 밭 206
만랄가 72, 90
만세동산 260
말자지 77
망동산 225
맥작 형 농업 192
면죽 114
명도암 145
모동장 74, 76
목감 237
목마장 40
목삼소장 74
목야지정리계획 220
목일소장 74
목장도로 227
목장세 196
목장전 196
목장화 216
목축 촌락 132, 134
목축력 228
목축문화 225
목축업 23
목호 133
몽골 219
문덕어외 80, 84
문화마을 150, 164

문화재 42
문혹덕량 81
물맞이 151
물장오리 오름 70, 252
물통 154
밀원식물 250

[나]

방둔 231
방목 215
방목지 127
방성칠란 139
방암 68, 110
방애 223, 234
방전 116
방호소 65
백량 119
백록담 35, 93, 126
백록담 분화구 266
백탄 251
번곡 231
번치기 목축 231
벌채 191
법호촌 142
별둔장 217
별자둔 목장 84
별천 양자둔 목장 84
별현장 74
보문 136
보섭 191
복구 촌락 140
본향당 149, 159
부덕 193
부악 103
부재지주 206
분봉 247
비자나무 56
비자림로 19, 180
빌레못굴 146

빙담 122

빙통 94

[스]

사리탑 261

사마 232

사목장 218

사장 81

사지고개 81

사직단 78

사천 77

산간 목장 218

산간지대 196

산간지역 48

산구 음부리악 97

산도 92

산동성 72

산록감자 158

산록도로 179

산림경제 249

산마 감목관 71

산마감목관제 219

산마장 24, 217, 218

산물 214

산방산 82

산별른내 56

산신제 119

산악등반 59

산장 133

산전 193

산정호수 35

산지 126

산지농업 126

산지촌 130

산천단 91

산천단 마을 145

산촌 130

산촌경관 157
삼간형 가옥 159
삼다도 50
삼림령 239
삼림지 방목 215
삼림지대 196
삼성묘 75, 87
삼수동 88
삼장동 80
삼화 여객 185
상대로 91, 167, 168
상마 79
상봉 110
상앗성 197
상장 133, 219
상장 목장 140
상품작물 164
생태관광 28
생태도로 178
생태학적 처소 191
생표고 244
생활문화 29, 31
서귀소 96
서부관광도로 18, 177
서산 63
서산장 75, 77
서성로 19, 181
서암도 92
선 숲 255
선작지왓 260
섬라 90
섬라국 72
성진이 오름 252
성판악 266
세미오름 144
세종실록지리지 100
소독거지 98
소두리 78
소림사 121
소마근다리 79
소목장 73

소비 251
소유구 82
소작화전민 206
소주 72
소천태산 104
소초 249
속음청사 102
솔각 214
송당목장 24
松山利夫 203
송악산 82
송정규 75
수기수세 196
수목경관 31
수분처 99
수산평 132
수악계곡 56
수행굴 56
수행동 117
숙치작업 199
순력로 167
순상화산체 125
순화전민 205
순환휴한총림 189
숨골 254
숯 굴 256
숲 터널 175, 268
쉐막 213
스캡 246
슬수 77
시로미 56
식물관광 269
신기화전 193
신작로 170
신증동국 여지승람 100, 102, 112
심연원 104
십성대 88
십소장 217
쌍계암 96, 119

[ㅇ]

아흔아홉골 56, 260
안남국 72, 90
야생화 관광 269
약탈식 농경방식 200
양성지 63
양잠단지 164
양주 72
어리목 265
어린벽 95
어승봉 92
어승생악 69, 80, 92
에비라 245
연대 77
연圖돌 56
연무정 68
연적골 214
영곡 87, 95
영산 41
영송 56
영실계곡 56, 260
영주10경 269
영주산 103
영주실 115
영파부 72
오름 트레킹 26
오백나한 111
오백장군 56, 96, 111
와터스 192
왕관릉 56, 79
왕관바위 94
왕벚나무 56
용암동굴 50
용암류 267
용암평원 129, 132
용진동 79
용천수 129
용추 68

우경 193
우목장 217
운생굴 95
원 촌락 132, 135
원교산 103
원동 92, 135, 136
원미장 81
원산 68, 99, 102
위백규 86
유구 72
유구국 82
유네스코 37
유료도로 184
육도 근재형 192
육도 잡곡형 192
육도 탁월형 192
윤경 193
윤경 화전확대 195
윤재 방식 194
은수평대 77, 80
의항 77, 79
이규성 63, 74
이동식농업 189
이목 230
이생원 91
이수광 105
이시돌 목장 24, 134, 146
이원조 84
이익태 93
이재민 복귀주택 141
이중환 103
이지함 104
이형상 68, 114, 217
일기도 73
일본 72
일소장 74
일자장 74
일출봉 82
임제 129
입목 244
입석 94

입선석 79

[지]

자가수지경제 206
자목장 70, 217
자연공원 48
자연유산 31
자작화전민 206
잠가 전평대 77, 80
잡곡 근재형 192
잡곡형 화전농업 192
잣성 261
장고항 78, 94
장올추 70
장을악 111
저목수 84
전공지 63
전라남북도여지도 80, 81
전원농촌 144
전횡도 82
점마처 151
점성 90
정도원 78
제1산록도로 18
제2산록도로 18
제남목장 24
제등목장 24, 140
제주군읍지 66, 91, 207
제주농회 226
제주도 98
濟州島勢要覽 221
제주삼읍전도 65, 89
제주삼읍도 63
제주삼읍도총지도 66, 218
濟州三縣圖 218
제주삼현도 64, 76
제주지도 66, 207

제주풍토기 102
제주풍토록 102, 104
제증원 91
조선강 역총도 67
조선총독부 207
조천 80
존자석 99
존자암 56, 80, 96, 118
종상화산체 125
좌가장 77
주홍굴 78
죽생어외 84
중간지대 196
중산간 목장 216
중산간 지역 46
중심장 45
중갓성 197
중향성 111
증보탐라지 101
지남농법 221
지봉유설 105
지영록 102, 111, 118
지오투어리즘 266
지정문화제 38
지주화전민 205
지초 117
지형성 강수 125
직세마을 149
진백지대 115
진자둔 목장 84
집단거주 화전민 206
집촌경관 157

[ㄷ]

채밀기 248
채밀방법 249
채종원 242

채초지 223
천불봉 111
천연보호구역 36
천연입목 245
泉晴一 252
청구도 66
청주 72
청태 117
체험관광 265
체험형 관광 28
초지군락 219
촉지대 115
촌락경관 158
최익현 105
축성 정책 216
총암묘 68
취락분포 16
측화산 223
친발농사 201
칠성대 88
칠성도 88
침간자 208
침장 133, 219
춤 154

[ㅋ]

개파장 231

[ㅌ]

탐라계곡 56, 260
탐라기년 102
탐라도 86
탐라록 102, 113
탐라목장 132, 219
탐라속지 101
탐라순력도 71

탐라십경도 93
탐라지 100
탐라지도병서 63, 64, 66, 74, 76, 82
탐라지도병지 84
탐라지초본 101, 121
택리지 103
테우리 132, 224, 237
테우리 코사 238
토지세부측량 220
토지조사사업 197

[표]

파종 191, 202
파종방식 191
패러글라이딩 26
팽목 동산 97
평소 192
평파 192
포신묘 121
핀 현상 125
표고버섯 25, 26, 243
표고버섯밭 213
풍토록 108

[ㅎ]

하대로 167, 168
하마 79
하жат성 197
하치마키 도로 170, 171, 182, 183, 213
한라대맥 44
한라문화제 51
한라산 33, 53, 260, 264
한라산 임정사 239

한라산관광도로 179
한라산목장 133
한라산신 41
한라산제1횡단도로 173, 176, 183
한라산제2횡단도로 176
한라산지 125
한라산체 34
한라장축 71
한일 여객 185
할밀 법 249
함바 집 146
항주 72
해동지도 64, 76
해안지대 196
향교 78
향목 87
향유 250
현자둔 목장 84
현자장 74
혈망봉 88
혈석 94
형산 104
호봉법 249
호종조 120
흥량 94
홍항일영측자둔목장 84
화구호 35
화덕 203
화목경작물 194
화산재 155
화산지역 30
화산지형 50
화산회토 23, 155
화을전 192
화입 191, 202
화적지 192
화전 농업 125, 189
화전 모경 208
화전 촌락 132, 137, 138
화전경영단계 195
화전동 15, 92, 131, 147, 195

화전세 196
환영지 86
황사암 94
황자둔목장 84
황자장 74
會田重吉 234
휴량 119
휴먼 임팩트 127
휴양펜션 28
휴파 192
흑탄 213, 251
희충괴 81

[그 외]

10소장 24
1100도로 17, 176
4·3성터 261
5·16도로 17, 173